

Park, Shin Ju
The Biblical Motifs in Leonid Andreev's *Anathema*

Chechnev, Ya. D.
M. Gorky's Satirical Play The Workman Slovotekov (1920):
The Chattering Bureaucrat as a Hero of the "War Communism" Era

Demikhov, A. O.
The Influence of the Militarism Ideology on the Narrative of Korean Dramas (1937-1945)

Izmaylova, A. N.
Russian-Korean Relations and Olympic Diplomacy

Smertin, Yuri G.
China in World War I:
the Revival of National Identity

Gaffarova, Malohat
Polysemy and Lexicographic Meaning of Vocabulary in Korean, Russian and Uzbek

Seung, Joo Yeoun
A Study on the Equival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Russian Pronoun 'ты' and Korean Pronouns:
Focusing on Victoria Tokareva's *One of the Many*

Yoon, Hyoseung
A Study on the Grammatical Metalanguage of *Learning Choson*:
A Comparison with a Korean Textbook

Spiridonova, O. S. / Khrabrova, O. S.
Phraseological Units as Didactic Material in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 Classes

Yoon, Young Sun
The Pleasure and Vertigo of Overlapping Reading:
A Review of *The Midwifery of Comparison* (Kim SooHwan, MunhakgwaJiseongsa, 2025)

러시아 | 유라시아 | 연구

Vol. 14.

Oct.
2025.

ISSN 2671-6054



RES
Russian & Eurasian Studies

『러시아·유라시아 연구』는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학회지로서 러시아 및 유라시아의 문학, 어학, 문화, 정치, 경제, 지역학 등 전반에 관한 연구논문, 서평 등을 연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논문투고 및 편집과 관련한 모든 문의 사항은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편집위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전화: 053-950-7301

·홈페이지: ires.co.kr ·온라인 논문투고: ires.jams.or.kr

·이메일: iresknu@gmail.com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인문한국진흥관 420호

Russian & Eurasian Studies is published twice a year by Institute of Russian & Eurasian Studies. The Journal is dedicated to the academic papers and reviews about Russian and Eurasian literature, language, culture, politics, economics, regional studies and etc.

Contribution and other editorial matters should be addressed to the editor of the journal.

Institute of Russian & Eurasian Studies

·Tel: 053-950-7301

·Homepage: ires.co.kr ·Contribution address: ires.jams.or.kr

·E-mail: iresknu@gmail.com

·Address: 420, Humanities Korea Bldg, 80, Daehak-ro, Buk-gu, Daegu

러시아 | 유라시아 | 연구

Russian & Eurasian Studies

Vol. 14. Oct. 2025

ISSN 2671-6054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 Eurasian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편집위원회 ■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연구소

편집위원장 _이종현(경북대, 러시아문화)

편집간사 _김민채(경북대, 러시아문학), 양지수(경북대, 러시아어학)

편집위원 _권경준(성균관대, 러시아어학), 김정일(경북대, 러시아어학)
김태욱(충북대, 러시아문학), 서광진(경북대, 러시아문학)
이강은(경북대, 러시아문학), 이기주(안양대, 러시아문학)
이선우(전북대, 러시아정치), 홍택규(한림대, 러시아어학)
박노자(오슬로대, 한국사)
노나카 수수무(사이타마 대학, 러시아문학)
아나톨리 아프락신(상트-페테르부르크대, 철학)
유리 스메르친(쿠반국립대, 동양학)

■ *Russian & Eurasian Studies* Editors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hief Editor _Lee Jonghyeon(KNU)

Managing Editors _Kim Minchae(KNU), Yang Jisu(KNU)

Editors _Kwon Kyong Joon(SKKU), Kim Jung Il(KNU)
Kim Tae Ok(Chungbuk N.U.), Seo Kwang Jin(KNU)
Lee Kang Eun(KNU), Lee Ki Ju(AYU)
Lee Sun Woo(Jeonbuk N.U.),
Hong Taek Gyu(Hallym U.), Park No Ja(Oslo U.)
Nonaka Susumu(Saitama University)
Anatoliy Apraksin(Sain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Yuri Smertin(Kuban State University)

러시아 & 유라시아 연구

목차

| 문학 Literature

레오니드 안드레예프의 『아나테마』에 나타난 성서의 모티프: 욕기를 중심으로	1	박 신 주
Сатирическая пьеса М. Горького «Работяга Словотеков» (1920): чиновник-болтун как герой эпохи «военного коммунизма»	19	Я. Д. Чечнёв

| 문화 및 지역학 Culture & Region

Влияние идеологии милитаризма на создание нарратива корейских драм (1937-1945 гг.)	43	А. О. Демихов
Русск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и олимпийская дипломатия	67	А. Н. Измайлова
China in World War I: the Revival of National Identity	89	Smertin, Yuri G.

| 어학 Language

한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에서 다의 양상 및 사전적 의미 배열	109	가파로바 말로하트
---	-----	-----------

러시아어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 ты와 한국어의 지칭어 및 인칭대명사의 등가 관계 고찰: 빅토리아 토카레바의 중편소설 「티끌 같은 나」를 중심으로	143	승 주 연
『조선어배우기』의 문법 메타언어 연구: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와의 대조를 중심으로	165	윤 효 승
Фразеологизмы как дидакт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на занятиях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как иностранному (теоретические основы выбора материала)	189	O. C. Спиридонова O. C. Храброва

| 서평 Book review

“접쳐 읽기”의 즐거움과 현기증: 『비교의 산과술』 서평 (저자: 김수환, 문학과지성사, 2025)	213	윤 영 순
---	-----	-------

| 부록 Appendix

연구소 규정	219
편집 규정	224
투고 지침	228
연구윤리 규정	234

러시아 & 유라시아 연구

목차

| 문학 Literature

The Biblical Motifs in Leonid Andreev’s <i>Anathema</i>	1	Park, Shin Ju
M. Gorky’s Satirical Play <i>The Workman Slovotekov</i> (1920): The Chattering Bureaucrat as a Hero of the “War Communism” Era	19	Chechnev, Ya. D.

| 문화 및 지역학 Culture & Region

The Influence of the Militarism Ideology on the Narrative of Korean Dramas (1937-1945)	43	Demikhov, A. O.
Russian-Korean Relations and Olympic Diplomacy	67	Izmaylova, A. N.
China in World War I: the Revival of National Identity	89	Smertin, Yuri G.

| 어학 Language

Polysemy and Lexicographic Meaning of Vocabulary in Korean, Russian and Uzbek	109	Gaffarova, Malohat
--	-----	--------------------

A Study on the Equival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Russian Pronoun ‘ты’ and Korean Pronouns: Focusing on Victoria Tokareva’s <i>One of the Many</i>	143	Seung, Joo Yeoun
A Study on the Grammatical Metalanguage of <i>Learning Choson</i> : A Comparison with a Korean Textbook	165	Yoon, Hyoseung
Phraseological Units as Didactic Material in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 Classes	189	Spiridonova, O. S. Khrabrova, O. S.

| 서평 Book review

The Pleasure and Vertigo of Overlapping Reading: A Review of <i>The Midwifery of Comparison</i> (Kim SooHwan, MunhakgwaJiseongsa, 2025)	213	Yoon, Young Sun
---	-----	-----------------

| 부록 Appendix

연구소 규정	219
--------	-----

편집 규정	224
-------	-----

투고 지침	228
-------	-----

연구윤리 규정	234
---------	-----

레오니드 안드레예프의 『아나테마』에 나타난 성서의 모티프: 욥기를 중심으로*

박 신 주**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레오니드 안드레예프의 희곡 『아나테마(Анатема)』에 나타난 성서 모티프의 구현 방식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안드레예프는 성서, 특히 욥기를 중요한 창작 원천으로 삼았으나, 원전을 단순히 답습하지 않고 자신의 세계관과 미학적 범칙을 반영하여 재해석하였다. 그는 『바실리 피베이츠키의 인생』에서 이미 욥기의 모티프를 변주하며 인간의 고난과 신앙의 문제를 탐구한 바 있으며, 『아나테마』에서는 악마적 존재 아나테마와 인간 다비드의 대비를 통해 성서적 갈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현한다. 아나테마는 전통적인 악마의 형상을 지니면서도 진리를 향한 갈망과 좌절을 동시에 드러내는 이중적 존재로, 다비드는 유혹과 고통 속에서도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을 선택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이처럼 안드레예프는 욥기의 고난 모티프를 확장하여 인간의 자유, 선택, 윤리적 책임을 탐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서적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독창적인 문학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레오니드 안드레예프, 아나테마, 성서, 모티프, 악마, 희생

* 본 논문은 2025년 러시아학 4개학회 학술대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러시아·유라시아: 갈등과 협력, 평화공생의 가능성을 중심으로>에서 발표한 「레오니드 안드레예프의 『아나테마』에 나타난 성서의 모티프: 욥기를 중심으로」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박사 과정 수료, roselz@naver.com

I. 서론

안드레예프의 성서 해석은 작가 개인의 미학적 법칙들과 기독교에 대한 태도에 의해 기인한다. 특히 작가는 성서의 슈제트와 이미지를 바탕으로 현실 문제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안드레예프는 “나는 확신한다, 철학이나 신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고 열렬한 신자라면 사랑의 하나님, 정의와 지혜, 기적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상상할 수 없다. 이 세상이 아니라면, 약속된 저세상에서 신은 정의와 의미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할 것이다. 가장 겸손한 사람,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도 다음 세상에서도 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관료, 전쟁, 불의, 무고한 눈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신을 부인할 것이다.”¹⁾고 주장했다.

안드레예프의 작품 세계에서 성서의 모티프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몇몇 작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십자가 고난의 길 이야기가 『벤-토빗(Бен-Товит)』(1905), 『가룟 유다(Иуда Искариот)』(1907), 『나의 수기(Мои записки)』(1908), 『일곱 살인자에 대한 이야기(Рассказ о семи повешенных)』(1908)에 나타난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엘르아살(Елеazar)』(1906)에 그리스도와 유다의 이야기가 나타난다.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이 『바실리 피베이스키의 삶(Жизнь Василия Фивейского)』(1903), 『엘르아살』에 나타났으며 욥기의 모티프가 『바실리 피베이스키의 삶』, 『아나테마(Анатэма)』(1909)에 나타난다.

안드레예프는 성서의 내용을 자유롭게 해석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서의 내용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성서와 안드레예프의 해석을 단순히 갈등 관계로 축소할 수는 없다. 작가가 성서를 해석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 사이의 간극은 안드레예프 특유의 예술적 감축이 발현된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욥기의 모티프는 안드레예프뿐만 아니라 단테의 『신곡』, 괴테의 『파우스트』, 허먼 멜빌의 『모비딕』에서도 나타난다. 이처럼 욥기의 모티프가 다양한 작가들의 선택을 받은 것에는 욥기가 단순

1) Андреев Л. Н. “Письма М. П. Неведомскому (5) 1904”, *Искусство* (1925) № 2, С. 266-267. Цит. по: Иезуитова, Л. А. *Творчество Леонида Андреева: 1892-1906* (Л.: Издательство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76) С. 116.

히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욕기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죄의 증거라는 기독교적 교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동시에 인간이 겪는 고통의 신비를 통찰하는 인간 지성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와 같은 철학적인 담론을 가진 욕기를 통해서 안드레예프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바탕으로 한 갈등을 특징으로 하는 작품 『아나테마』²⁾를 집필한다. 여기에서 안드레예프는 이타적인 삶과 인간의 사랑 받을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주제는 이미 그의 여러 산문에서 진지하고 깊이 있게 전개되었다.³⁾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욕기를 바라보는 안드레예프의 시선과 『아나테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욕기에 대한 작가의 시선

욕기에는 죄 없는 자가 겪는 고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문제가 등장한다. 욕기에 담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원칙, 종교적 이념은 철학적이고도 윤리적인 복합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 있는 인간의 올바른 태도와 고통의 원인과 목적에 대한 것이 중심 서술이다.⁴⁾ 이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경험한 것으로 욕기는 이에 대하여 인간에게 끊임 없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탐색하도록 이끈다. 욕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이 인간을 그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슬한 시련을 주고 성장을 위하여 인내를 배우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징계하고(잠언 3:12)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을 자신의 뜻대로 징계한다(히브리서12:10)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온전한 신의 섭리를 강조한다.

2) ‘아나테마(Анате́ма)’는 작품의 제목임과 동시에 등장인물의 이름이다. 작품을 지칭할 때는 겹낫표를 사용하여 『아나테마』로 표기하고 작품 속 인물을 지칭할 때는 문장부호 없이 아나테마로 표기한다.

3)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주제는 『나의 수기』에서, 인간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단편소설 『벤-토빗』, 『세월의 심연으로부터(Из глубины веков)』(1904), 『인간의 아들(Сын человеческий)』(1909)에 나타난다.

4) 강철구, 「욕의 경건과 축복의 관계(행위화복의 관계)에 대한 논쟁」, 『성경과 신학』 93 (2020) 2쪽.

안드레예프는 희곡 『아나테마』에 앞서 1903년에 집필한 중편소설 『바실리 피베이스키의 인생』에서 욕기의 모티프를 다룬다. 한 시골의 사제였던 바실리 피베이스키는 철저하게 신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신에게 저항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안드레예프는 이 작품에서 삶의 의미, 인간의 책임의 문제, 고통과 죄에 상관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바실리 피베이스키와 욕의 관계는 작품 속 인물의 말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사제 바실리는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다. 교회 집사인 이반 포르피리치는 누구보다도 바실리를 함부로 대했다. 보조 사제가 그를 나무라면서 고난당한 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이반 포르피리치는 조롱하듯이 보조사제의 말을 끊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무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욕은 진실한 사람이고 성인이지만 바실리는 뭐지요? 그에게 진실함이 있나요? 집사 양반, 다른 것을 떠올려보시오(I, 493)⁵⁾.

주인공 바실리 피베이스키의 인생은 고난과 좌절로 점철되어있다. 어린 시절부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던 그는 잠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지만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불행에 빠지고 아내는 알코올중독자가 된다. 이후 다시 자녀를 얻었지만 기형아에 백치로 태어난다. 하지만 바실리가 경험한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집이 불타버리고 아내도 그 화재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게 된다. 또 다른 고통 앞에서 바실리는 무너지지 않고 신앙에 의지한다. 작품의 후반부에서 바실리는 죽은 자를 부활시키기로 결심한다. 그는 썩어가는 시신에게 전하는 무시무시한 요청을 계속 반복한다.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바실리가 죽은 사람을 되살리려는 시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부활의 기적을 암시한다. 그러나 신과의 동일시는 바실리 신부의 영혼에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 그에게 기적은 없었고 그의 믿음은 가루처럼 바스라지고 광기에 빠져 죽음에 이른다.

게르셴존(М. Гершензон)은 이 이야기의 핵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지적

5) 본고에서 인용한 안드레예프 작품은 Андреев, Л. 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6-ти томах* (М.: Худож. лит., 1990-1996)을 따른 것이다. 이하 본 논문에서 작품의 인용은 본문에 전집 호와 쪽수를 표기하는 것으로 한다.

한다. “안드레예프의 인간의 이성과 사랑의 무능함에 대한 비관적인 슬픔에 있다. 이는 인간의 치명적 운명이다.”⁶⁾ 이 소설에서 보여지는 바실리 피베이스키의 삶은 안드레예프가 삶에 대한 비관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욥의 테마가 다시 등장하는 『아나테마』에서 작가는 자신의 달라진 해석을 보인다. 우선 욥기와 『아나테마』는 구조적으로는 유사하다. 욥기는 서언(프롤로그), 욥과 친구들의 대화, 결언(에필로그)의 구조로 되어있다.⁷⁾ 『아나테마』는 7개의 장면(картина)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나테마의 첫 번째 장면이 프롤로그,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장면이 사건, 마지막 일곱 번째 장면이 프롤로그에 해당한다. 첫 번째 장면과 마지막 일곱 번째 장면이 아나테마와 입구를 지키는 누군가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장면부터 여섯 번째 장면까지 아나테마가 다비드를 만나서 발생하는 사건을 다룬다고 본다면 욥기와 구조적 유사성을 지적할 수 있다.

반면 전개 과정은 서로 다르다. 안드레예프는 욥기 초반부에 등장하고 나타나지 않는 악마를 자신의 작품에서 전면으로 내세운다. 욥기에서 악마는 욥이 겪는 고난과 역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반면 아나테마는 직접 다비드 레이제르라는 인물의 곁에서 모든 유혹과 시험의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욥기의 악마 역할이 관찰자에 가까웠다면 안드레예프의 작품 속에서는 참여자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안드레예프는 저주받은 영혼의 이름을 가진 선동하는 자와 그의 도발적인 모험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욥기의 구절이 『아나테마』 속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 작품에 그대로 나타난다. 우선 욥의 아내가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욥기2:9)는 내용은 다비드의 아내 수라가 다비드에게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순결함을 굳건하게 지켜? 신을 저주하고 죽어.”(III, 404)라는 대사와 이어진다. 욥기 1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

6) “«Научное слово», 1904, № 6, с. 134.”, Цит. по: Иезуитова, Л. А. *Творчество Леонида Андреева: 1892-1906* (Л.: Издательство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76) С. 109.

7) 강규성, 「욥기의 구조와 신학」, 『교회와 문화』 44 (2020) 13쪽.

8) 안드레예프가 막(действие)을 사용하지 않고 장면으로 작품을 집필한 것은 『아나테마』가 처음이 아니다. 『인간의 일생(Жизнь человека)』과 『기아 황제(Царь Голод)』에서 이미 이러한 구성을 시도하였으며 두 작품에서는 각 장면에 부제까지 표기하였으나 『아나테마』에서는 장면의 순서만을 표기하였다.

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라는 구절이 아나테마가 입구를 지키는 누군가에게 “나는 단지 할 일이 없고,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있을 뿐이지.”(III, 400)라고 말하는 대사와 연결된다.

『아나테마』에는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차용한다. 우선 주인공 다비드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 총애받는 자’로, ‘사랑받는, 사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דָּוִד**[dode]⁹⁾에서 파생되었다. 다비드는 진정으로 모든 사람의 총애를 받는 존재, 많은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 된다. 다비드의 성 레이제르(Лейзер) 역시 고대 히브리어 **לֵאזָר**(Эльзар)에서 유래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¹⁰⁾는 뜻이다. 다시 말해, 신은 다비드를 받아들였고, 신에 대한 그의 믿음과 인류에 대한 사랑은 그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할 수 있다.¹¹⁾

여기에 작가는 성서의 다른 이야기도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루드네프(A. П. Руднев)는 다비드 레이제르에 대해서 겐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유혹인 빵, 기적, 능력에 대한 복음서의 이야기와의 관련성을 지적한다.¹²⁾ 연구자 트렐레(H. И. Трелле)도 가난한 유대인 다비드 레이제르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성육신을 입고 희생한 예수의 모습과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¹³⁾ 그러나 다비드는 예수가 악마를 극복한 것처럼 아나테마를 벗어나지 못한다. 예수처럼 부활하지도 않는다. 아나테마는 자신의 실험을 통해서 다비드를 신적인 존재로 끌어올리려 하지만 다비드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9) “Имя Давид”, ИМЯ. URL: <https://imya.com/name/23913>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025.09.30.)

10) “Имя Лейзер”, ИМЯ. URL: <https://imya.com/name/52435>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025.09.30.)

11) 다른 인물들의 이름도 어원적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이름이 성경에서 따온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비드의 형제의 이름은 모세(Моисей)고, 죽은 다비드의 자녀들 이름도 한나(Ханна), 벤야민(Вениамин)이다. 그리고 다비드의 가장 가까운 인물의 이름도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하는 아브람(Абрам)이다.

12) Руднев А. П. “Комментарии”, Андреев Л. Н. *Собр. соч.: В 6-ти т. Т. 3.* (М: Худож. лит. 1994) С. 627.

13) Трелле Н. И. “Переосмысление библейских истин в пьесе Л. Андреева «Анатэма»”, *Церковь, государство и общество в истории России и православных стран: религия, наука и образование.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числа и года 12 мая 2021* (Владимир: Аркаим, 2021) С. 333.

욥기의 핵심인 죄 없는 자가 겪는 설명되지 않는 고난에 대한 내용은 『아나테마』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는 고통을 겸손하게 견뎌낸다. 결국 악마는 수치를 당했고, 욥의 인내와 신실함 덕분에 신은 그의 가족과 재산, 그리고 건강을 회복시켜 준다. 『아나테마』에서는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다비드에게 악마가 커다란 부를 준다. 다비드는 자신이 얻은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눠준 가난한 자들에게 돌을 맞아 죽음을 맞이한다.

III 악마의 욕망과 인간의 희생

아나테마는 그 명칭에서부터 성경적 요소를 담고 있다. 아나테마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어 ‘ἀνάθεμα’에서 온 것으로 ‘교회로부터의 저주, 교회로부터의 파문’¹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을 신자들과의 친교와 거룩한 성사에서 파문시킴으로서 중대한 죄에 대한 가장 높은 교회의 형벌로 적용된다.¹⁵⁾ 아나테마라는 주인공의 이름은 신으로부터의 분리, 빛의 영역에서의 추방, 진리에 대한 무지로의 파멸,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영원한 방황을 의미한다. 아나테마는 전통적인 악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를 범죄하게 만드는 뱀의 모습이 바로 아나테마의 모습이다.¹⁶⁾ “그는 구멍을 찾는 뱀처럼 조용히 누군가를 향해서 다가간다.”(III, 397) 그는 기만적이고 수완이 풍부하며 교활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유혹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성경에 나타난 타락한 천사처럼 보인다.

자신은 볼 수 없는 닫힌 공간 너머에 계신 분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하는 아나테마는 영원의 문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한다. 때로는 “발꿈치 아래의 별레처럼 조용한 경련을 일으키며”(III, 398), 때로는 “개처럼 배를 땅에 대

14) Фасмер М. *Этим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4 т. Т. 1 (А-Д)* (М.: Прогресс, 1986) С. 77.

15) Максимович К. А. “Анафема”, *Православ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в 40 т, Т. 2* (М.: Церковно-научный центр «Православ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2001) С. 274.

16) 아나테마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1장의 후반부와 7장에서 다시 반복된다. “Вытянув змеиную шею, он кричит страстно.(뱀의 목을 펴고 열정적으로 비명을 지른다.)”(III, 398), “Затем поднимает голову, яростную, как у змеи.(그리고는 뱀처럼 화를 내며 고개를 든다.)”(III, 468)

고 기어가며”, 때로는 “뱀의 목을 쪽 뺀어 몹시 고통스럽게 신음한다.”(III, 398). 하지만 그 문은 침묵하는 경비병에 의해 지켜진다. “아나테마, 네가 묻는 것에는 이름이 없다. 사랑이라는 말을 한 자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은 모두 거짓말을 했다. 심지어 신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사람조차도 최후의, 가장 끔찍한 거짓말을 했다……”(III, 400). 첫 번째 장면에서 작가는 특정한 존재의 말을 빌려 작품의 이념적 지향을 드러낸다.¹⁷⁾ 그것은 인간의 삶은 덧없고 고통, 분노, 아픔,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지혜도, 사랑도, 신 자신도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 없기에, 인간은 의지할 존재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아나테마는 변호사 놀류스(Нуллус)로 변장하여 불행한 유대인 노인 다비드를 찾아간다. 그는 다비드의 형제 모세가 남겼다는 400만 루블의 유산을 가져다주고, 그에게 신을 상기시키며 이 예상치 못한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아나테마는 자신의 이성적이고 일방적인 지성으로 우주의 비밀을 꿰뚫어 보려 한다. 그는 신을 찾는 자가 아니라 신과 싸우는 자에 가깝고, 소시민이 평온한 삶을 바라는 것처럼 세계의 조화를 갈망하면서도 끊임없이 악을 창조하는 실증주의자이다.¹⁸⁾

그는 첫 번째 장면에서 신으로 추정되는 입구를 지키는 누군가에게 고통 받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그 고통은 아나테마의 내면에서 발원한 것이다. “이름! 이름! 악마와 인간에게 길을 밝혀라. 세상의 모든 것은 선을 갈망하지만 어디서 찾는지 모른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삶을 갈망하지만 오직 죽음을 만날 뿐이다. 이름! 선의 이름을, 영생의 이름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III, 400)

아나테마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사위 놀이로 다비드의 운명을 조종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한다. 그는 주사위를 굴려 점수를 매기는 게임에서 여섯, 여덟, 스물을 강조한다.

6은 내가 다윗에게 예상치 못한 부를 가져다준다는 뜻이다.
8은 다비드 레이체르가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뜻이다. 20, 그렇다! 이는 다비드와 내가 감사를 드리러 왔다는

17) Трелле Н. И. Указ. соч., С. 331.

18) Чирва Ю. Н. “О пьесах Леонида Андреева”, Андреев Л. Н. *Драматическ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в 2-х томах. Т. 1* (Л.: Искусство, 1989) С. 25.

뜻이다.....(III, 401).

성서의 숫자 상징에 따르면 6은 인간의 수로 불완전함을 뜻하고, 8은 새로운 행위의 시작을, 20은 40의 절반으로 성경에서 개인과 국가가 받는 시험인 유혹의 수를 의미한다.¹⁹⁾ 아나테마는 자신이 다비드를 강하게 만들 수 있지만 약하게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한다.

자그보즈드킨(Н. Д. Загвоздкин.)은 아나테마에 대해서 악의 근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다. “본질적으로 그는 극에서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아나테마는 오히려 지상의 영혼으로, 지상 너머에 있는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며, 그래서 세상의 선의 어리석음, 감사의 잔혹함, 지상에 걷는 인간의 비열함을 비난하고, 또한 신을 도둑질로 고발한다. 신이 진리를 빼앗아 철문 뒤에 숨겼기 때문이다. <...> 그래서 악마는 일곱 번째 장면에서 주인공(다비드)의 죽음 이후 승리를 자축하는 것이다”²⁰⁾라고 주장한다. 그의 지적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이는 지나친 해석이다.

그 이유는 다비드의 행동이 아나테마에 의해 유발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비드는 아나테마의 손아귀에 놓인 꼭두각시이다. 그리고 아나테마는 기독교의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사랑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기독교 계명의 무익함을 증명하려고 한다. 아나테마는 선행은 무의미하다고 믿는다. 다만 아나테마의 “이미지가 이중적이다”²¹⁾는 트렐레의 지적은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인다. 아나테마는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나테마의 목적은 최고 존재와의 대화를 유도하고 진리를 가리는 문을 뚫고 들어가려는 것이다. 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분별하고 선과 진실을 아는 것이지만, 이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진리를 갈구하며 분개하지만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안드레예프는 인간 세상에 지옥의 영웅을 등장시켜서 갈등을 만들어낸다. 아나테마는 미덕의 이

19) Андреев Л. Н. *Драматическ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в 2-х томах. Т. I.* (Л.: Искусство, 1989) С. 519.

20) Загвоздкин Н. Д. “Идейное содержание пьесы Леонида Андреева «Анатэма»” *ВЕЧЕ* 27-2 (2015) С. 294.

21) Трелле Н. И. Указ. соч. С. 331.

름으로 행동하지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냉소적으로 시험한다. 인류와 관련된 그의 주된 행위는 도발이다.

그와 직면하는 다비드 레이제르는 평범한 인간이다. 아나테마는 그의 운명을 조종하고 마치 “물매로 던지는 돌맹이”처럼 “거만한 하늘”에 던지려고 한다(III, 401). 그러나 다비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다비드는 자신의 가족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유혹에서도 자유로운 인물이다. 우선 다비드의 형제 모세는 다비드를 버린 채 해외로 떠나버렸지만 다비드는 이에 대해서 그 어떤 원망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그의 아내 수라는 400만 루블의 유산으로 부를 얻은 후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다비드는 오히려 그것을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준다. 그의 딸 로자는 세속적인 아름다움에 빠져서 자신을 꾸미기에 바쁘다. 다비드는 병든 상태에서 바다를 걸으면서 신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고 싶어하고 해답을 얻고 싶어하며 자신이 삶을 돌아본다.

다비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주려고 애쓴다. 그는 수라와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남겨놓은 마지막 루블까지 포기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기꺼이 바친다. 이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수염을 뜯도록 허락한 것에서 명확해진다. 다비드는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기뻐한다. 그는 낯선 사람들의 아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부모가 결코 보여주지 못한 순수함과 온전함으로 사랑을 베푼다. 다비드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타적인 사랑의 관념을 지닌 인물로, 그 안에서 만족을 찾는다.

그는 네 번째 장면에서 아내 수라에게 “세상 모든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아니겠어?”(III, 436)라고 말한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 아나테마에게 자신은 문지방에 조용히 누워서 평범한 아이들이 어떻게 먹고 있는지 보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안드레예프의 다른 희곡 『인간의 일생』의 주인공 ‘인간’에게 아들의 죽음은 최후의 절망으로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다비드는 또한 네 명의 자녀를 잃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데서 기쁨과 행복을 찾고, 세상의 모든 아이를 자신의 자식처럼 여긴다. 이처럼 베푸는 사랑이라는 가치는 다비드라는 인물을 보여주는 핵심이다. 네 번째 장면에서 술 취한 남자는 다비드는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져다주기 위해 왔

다고 전한다. 다비드의 사랑은 기쁨을 주지만 춤추고 노래하는 군중의 피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고통과 결합된 진실하고 완전한 기쁨이다.²²⁾ 따라서 다비드는 진정으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겪는 유일한 인물이며, 유일한 비극적 인물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기뻐하고 슬퍼할 뿐이다.

늙은 유대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눠줄 준비가 되어있으며, 각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의 엄청난 슬픔을 제외하면 다비드는 나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그의 재산은 그가 속아 넘어간 미끼였고, 그를 통해 이익을 보려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기적이라는 개념은 순례자 무리 중 한 명인 늙은 방랑자에게서 영감을 받았는데, 그는 다비드에게 다양한 기쁨을 선사한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보호 시설을 짓고, 부자와 가난한 이, 기독교인과 비신자 사이의 장벽을 허물 기회를 제공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다비드가 기쁨을 가져다준다는 생각은 오히려 다비드의 삶에 혼란을 가져온다. 그리고 다비드의 삶과 기적과 돈에 대한 기대에 사로잡힌 군중의 혼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군중은 결국 돌을 던져 다비드를 죽인다.

IV. 사랑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인간은 이기적이며 이타적이지 못하다. 사랑은 그러한 인간 본성의 불완전성에 대한 필수적인 보완물이다.²³⁾ 안드레예프의 『아나테마』는 사랑과 선의 의미, 죄 없는 자의 고통, 군중의 평범함에 대한 정당성에 질문을 제기한다.

『아나테마』의 마지막 일곱 번째 장면을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²⁴⁾ 영원히 닫힌 철문은 여전히 무겁게 땅을 짓

22) Загвоздкин Н. Д. Указ. соч., С. 295.

23) Полякова Е. А. “Любовь к ближнему в нравственной философии Иммануила Канта”, *Вестник Свято-Филаретов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16.2(50) (2024) С. 217

24)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작품의 처음과 끝이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공간의 구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아나테마』는 고리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성문의 기슭 - 도시의 경계 - 도시 내부 - 도시의 경계 - 성문의 기슭의 구성이다. 이러한 극의 구조는 정선

누른다. <...> 그리고 여전히, 고요하고 위협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곳에 누군가가 입구를 지키고 있다.”(III, 466). 다비드가 죽음을 맞이했지만 아나테마는 아무런 변화를 겪지 못했다. 그는 다시 설명할 수 없는 세계의 신비 앞에 홀로 서게 되고, 다시 한번 비통하게 외친다.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진리는 어디에? 진리는 어디에?”(III, 469) 다시 하늘을 향해, 신을 향해 자신의 비난하는 “네가 죽었다!”를 내뱉지만, 불멸의 문제는 사랑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아나테마는 수치스러운 처지에 놓인다. 그는 인간을 경멸하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하며 인간 마음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 어둠 속에 거하는 아나테마는 여전히 저주받았고 그 저주 속에서 외롭다.

하지만 다비드가 보여준 조건 없는 사랑은 불완전한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제한에서 벗어나도록 이끈다. 다비드의 죽음은 사랑을 베푸는 것의 완성이며, 존재의 소멸을 통해 존재의 충만함으로 이어진다. 트렐레는 다비드의 행동에 대해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한다. “다비드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행복을 돌보지만, 감사의 표시로 잔혹하게 살해당한다. 이것이 악마의 가설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다비드 레이제르는 아나테마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 폭도들이 복수를 하고 사람들이 인간성을 잃고 야생 동물처럼 변해갈 때조차, 다비드는 그들을 용서할 용기를 얻고 어떤 악감정도 품지 않는다.”²⁵⁾ 결국 자신이 가진 모든 물질적인 것을 내어주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준다.

다비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놀류스? <...> (듣는다.) 그들이 울고 있어. 부르고 있어, 부르고 있다고. 물려서, 놀류스, 난 기도하고 싶어.

아나테마 (물러난다). 하지만 서두르게, 다비드, 그들이 가까이 있어.

다비드. (무릎을 꿇고) 저 소리 들려? 그들이 오고 있어.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만 내 사랑은 증오보다 더 쓰라리고, 무관심만큼이나 무력해……. 나를 죽이고 저들을 직접 만나. 나를 죽이고

적 공허함, 불신 등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것을 상징한다. 아나테마의 세속적 이름인 놀류스는 숫자 0에 해당하는 것이며 아나테마가 말하는 숫자 6, 8, 20 역시 고리의 상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5) Трелле. Н. И. Указ. соч., С. 332.

사랑으로 그들을 은혜로이 만나게. 내 몸으로 굶주린 대지를
살찌우고 그 위에서 빵이 자라게 하소서. 내 영혼으로 슬픔을
없애고 웃음이 자라게 하소서. 그리고 기쁨을, 오 하나님, 인간
에게 기쁨을…….(III. 459)

다비드는 자신을 찾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서는 죽음이 머지않았다는 것
을 깨닫는다. 다비드가 먼저 사람들에게 “나를 돌로 치시오. 나는 배신자입
니다.”라고 말하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 아나테마는 다비드에
게 부와 권력, 명성, 자녀의 죽음,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
든 것을 바친 자들의 손에 죽는 것까지 포함한 일련의 비극을 차례로 겪게
한다. 어느 단계까지는 다비드가 아나테마를 순종적으로 따랐다. 그러나 이
후에 인간은 악마에게서 떨어져서 다른 길을 간다. 그래서 다비드는 네 번
째 장면에서 아나테마처럼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드러나지 않을 인간의 운
명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깨닫는다.

다비드. 나는 인간의 영혼을 무한한 시간의 거리에 두었어.
영혼은 불의 불멸 속에서 살고 영혼은 생명이 있는 빛의 불멸
안에서 살아. 그리고 불멸의 빛의 처소 앞에서 어둠이 그치게
하소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불멸이다. 오 신이시여!(III, 440)

비록 다비드의 사랑이 완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구를 지키는 자는
아나테마가 “불멸을 달성했다.”(III, 468)고 선언하는 것은 사랑, 희생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멸은 육체의 불멸이 아닌 정신의
불멸이다. 육체가 소멸한 후에도 사랑의 정신은 계속해서 존재하여 어둠을
밀어낼 것이라는 것을 아나테마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아나테마는 심장
이 없지만 죽은 다비드를 보고 마치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듯하다.

아나테마. 나 아나테마는 심장이 없고, 내 눈은 지옥 불에 말
랐으며, 눈물도 없다. 하지만 내게 눈물이 있다면 모두 다비드
에게 주겠다. 심장은 없다. 하지만 순간 내 가슴 속에서 살아
있는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순간이 있었다.(III, 467)

암피테아트로프(A. B. Амфитеатров)는 『아나테마』의 핵심 주제에 대해
말하면서 “무한한 인류애 속에서 최상의 선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이다. 이

는 인간의 광기, 미신, 살인이라는 끔찍한 유혹을 통해 이루어진다.”²⁶⁾고 하였다. 안드레예프는 아나테마의 어두운 면을 통해서 다비드의 빛나는 면을 더욱 강조한다. 이와 관련한 술라티코프(В. Шулятиков)의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그가 어둠에 몰두하는 것은 빛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한 갈망을 의미한다. 빛은 필연적으로 어둠에서 빛날 수밖에 없다.”²⁷⁾고 지적한다. 악마는 결코 진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비체바(Ю. В. Бабичева)는 『아나테마』를 기독교적 사랑의 절정²⁸⁾이라고 평가하였다. 비평가 르보프-로가체프스키는 『아나테마』의 결말에 대하여 “사랑과 형제애의 일치에 대한 인식”²⁹⁾이라고 생각했다.

욥기에서 신이 세계를 운영하는 방식은 인간의 인지로는 탐지할 수 없다. 인간의 인지로 설명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신의 뜻이 이루어지며, 이유를 알 수 없는 극한적인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신은 욥과 함께한다.³⁰⁾ 안드레예프는 『아나테마』에서 전지전능한 신의 섭리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인간의 연약함을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다비드는 외롭고, 주변 환경과 인물,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서조차 소외되어 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알 수 없는 무한 앞에서 느끼는 연약함은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보여 준다. 하지만 다비드는 담대하게 그것에 맞선다. 세상은 무자비하고 인간은 불완전하다. 하지만 사랑과 희생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III. 결론

26) Амфитеатров А. В. “Анатэма”, *Собр. соч.: в 10 т. Т. 10. Кн. 1* (М.: Интелвалк 2003) С. 586.

27) Шулятиков В. *Неаристократическая аристократия. Литературно-критические статьи* (М.; Л.: Земля и фабрика, 1929) С. 152-174.

28) Бабичева. Ю. В. “Богоборческая драма Леонида Андреева «Анатэма»”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XX века (дооктябрьский период). Сб. 2* (Тула: Туль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им Л. Н. Толстого, 1970) С. 187.

29) Бугров Б. С. “Мятежная душа”, Андреев Л. *Пьесы* (М.: Советский писатель, 1991) С. 24.

30) 욥기의 주제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현창학, 「욥기의 주제」, 『신학정론』, 21.1 (2003) 9-43쪽.

희곡 『아나테마』는 성서적 줄거리를 따르면서도 새로운 읍, 다비드 레이 제르가 저주받은 영혼 아나테마를 만나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안드레예프는 읍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독서하고 사유한 결과물을 작품에 녹여냈다. 이에주이토바(Л. А. Иезуитова)가 “안드레예프는 읍기를 따르지 않는다. 다만 읍기의 모티프와 상황만을 이용할 뿐이다.”³¹⁾고 언급한 것은 이에 대한 지적이다. 읍기의 읍은 악마로부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서 신에 대한 믿음을 시험받았다고 한다면 『아나테마』의 다비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악마로부터 엄청난 부를 얻게 된다.

갑작스레 찾아온 부는 다비드에게 기쁨보다는 혼란을 가져온다.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자기희생의 첫 번째 단계로 나아간다. 다비드는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다. 특히 그는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은 세상 모든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처럼 느낀다. 다비드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즉각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사람들은 다비드에게 죽은 자를 살리고 굶주린 자를 먹이는 기적을 행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다비드는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으로 그 기적이 행해지기를 바란다.

안드레예프는 작품에서 절망의 혼돈에서 벗어나 밝은 삶을 구축하려고 한다. 그래서 숫자 너머에는 사랑이 있고, 땅 너머에는 천국이 있으며, 악마 너머에는 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한다.

안드레예프는 이전 작품들에서 절망과 희망이 가득한 어두운 해답을 향해 나아갔고 그의 모든 작품이 암울한 비관주의로 물들었고 어둠, 심연이 그의 작품을 지배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아나테마』에서 작가 안드레예프의 생각과 감정은 여전히 소심하지만 다른 긍정적인 해답, 삶의 지고한 이성에 대한 긍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시도한다. 비록 그 돌파구를 향하여 가는 과정에는 슬픔과 고난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31) Иезуитова Л. А. Указ. соч., С. 115.

참고문헌

1. 강규성. 「욥기의 구조와 신학」, 『교회와 문화』 44, 2020.
2. 강철구, 「욥의 경건과 축복의 관계(행위화복의 관계)에 대한 논쟁」, 『성경과 신학』 93, 2020.
3. 현창학, 「욥기의 주제」, 『신학정론』, 21.1, 2003.
4. Амфитеатров А. В. “Анатэма”, *Собр. соч.: В 10 т. Т. 10. Кн. 1.*, М.: Интелвалк, 2003.
5. Андреев Л. Н. *Драматическ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в 2-х томах. Т. 1.*, Л.: Искусство, 1989.
6. _____ “Письма М. П. Неведомскому (5) 1904 (Б.д.)”, *Искусство*, 1925.
7. _____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6-ти томах*, М.: Худож. лит., 1990-1996.
8. Загвоздкин Н. Д. “Идейное содержание пьесы Леонида Андреева «Анатэма»”, *ВЕЧЕ* 27.2, 2015.
9. Иезуитова Л. А. *Творчество Леонида Андреева: 1892-1906*, Л.: издательство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76.
10. “Имя Давид”, ИМЯ. URL: <https://imya.com/name/23913>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025.09.30.)
11. “Имя Лейзер”, ИМЯ. URL: <https://imya.com/name/52435>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025.09.30.)
12. Колобаева Л. А. *Концепция личности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рубежа XIX—XX вв.*, М.: Изд-во МГУ, 1990.
13. Максимович. К. А. “Анафема”, *Православ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в 40 т. Т. 2*, М.: Церковно-научный центр «Православ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2001.
14. Полякова Е. А. “Любовь к ближнему в нравственной философии Иммануила Канта”, *Вестник Свято-Филаретов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16.2 (50), 2024.
15. Руднев А. П. “Комментарии”, Андреев Л. Н. *Собр. соч.: Т. 3.*, М., 1994.

16. Трелле Н. И. “Переосмысление библейских истин в пьесе Л. Андреева «Анатэма»”, *Церковь, государство и общество в истории России и православных стран: религия, наука и образование.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числа и года 12 мая 2021*, Владимир: Аркаим, 2021.
17. Фасмер М. *Этим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4 т. Т. I (А-Д)*, М.: Прогресс, 1986.
18. Шулятиков В. *Неаристократическая аристократия Литературно-критические статьи*, Л.: Земля и фабрика, 1929.

Abstract**The Biblical Motifs in Leonid Andreev's *Anathema***

Park, Shin J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ways in which biblical motifs are embodied in Leonid Andreev's play *Anathema* (Анатэма). Andreev drew significant inspiration from the Bible, particularly the Book of Job, yet he did not merely reproduce the original text. Instead, he reinterpreted it through the lens of his own worldview and aesthetic principles. In *The Life of Vasily Fivevsky*, Andreev had already reworked the motif of Job to explore the problem of human suffering and faith. In *Anathema*, he further develops this trajectory by contrasting the demonic figure Anathema with the human figure David, thereby reconfiguring biblical conflict in a new form. Anathema embodies the traits of a traditional devil, yet simultaneously reveals a dual nature marked by both longing for and frustration with truth. David, in contrast, is depicted as a character who, despite temptation and suffering, chooses love and sacrifice for others. In this way, Andreev expands the motif of Job's suffering to probe questions of human freedom, choice, and ethical responsibility, while at the same time inheriting the biblical tradition and offering an original literary interpretation.

Key words : Leonid Andreev, *Anathema*, Bible, Devil, Sacrifice

**Сатирическая пьеса М. Горького
«Работяга Словотеков» (1920): чиновник-болтун
как герой эпохи «военного коммунизма»**

Я. Д. Чечнёв*

국문 초록

이 논문은 막심 고리키의 풍자극 『일꾼 슬로보토크프』(1920)를 전시 공산주의 시대 관료주의에 대한 예술적 응답으로서 분석했다. 1917년 이후 고리키는 여러 문화·교육 기관에서 직책을 맡았고, 새로운 연구소와 출판물을 창설했으며, 지식인들을 새 정권과의 협력에 참여시키기 위해 힘썼다. 그러나 1920년 가을에 이르러 행정적 형식주의와 비협조적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고리키는 관료적 활동의 타당성 자체에 회의를 품게 되었고, 이러한 환멸감이 작품 속에 드러나 있다.

또, 이 논문은 주요 인물인 관료 슬로보토크프의 말하기 방식의 원천을 규명한다. 그의 담론은 1919-1920년의 정기간행물에서 직접 차용한 상투적 표현들로 구축되어 있다. 또한 저자는 작품 속 주인공의 발화와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지하인의 발화를 비교하여, 개인적 반항에 기반한 무위와 사회적으로 조건 지어진 ‘활동 흉내내기’라는 두 가지 무위의 유형적 차이를 드러낸다.

더불어 1920년 6월 S. E. 라들로프에 의해 이루어진 초연을 중심으로 이 작품의 공연사, 그리고 긍정적 영웅의 부재를 체제 비판으로 해석했던 공식 비평의 반응을 고찰한다. 슬로보토크프의 형상은 공허한 말만 늘어놓는 관료라는 집합적 유형을 구현하며, 그러한 인물상은 고리키의 후속 작품들(1928년의 필명파 소설 『클럽 삼킨의 생애』)에서도 지속적으로 재현되었다.

주제어 : 슬로보토크프, 고리키, 전시 공산주의, 관료제, 풍자

* 고리키세계문학연구소 선임연구원, ya.d.chechnev@yandex.ru

В нов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после 1917 г. А. М. Горький взял на себя роль консолидатора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России. Он занимал множество официальных должностей, руководя ключевыми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ми и культурными институтам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чертить масштаб деятельности писателя и объем моральных сил, затраченных на сплочение и защиту русск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и в тяжелых условиях социо-политическ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России, не побоимся повторить за горьковедом, которые привели исчерпывающий список должностей, занимаемых писателем в 13-м томе Полного собрания писем¹⁾.

Горького избирают членом Моссовета и Петросовета; он работает в Отделе театров и зрелищ Наркомата просвещения Союза коммун Северной области, является членом Сове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Эрмитажа, одним из руководителей Музея революции, литературного отдела коллегии Наркомпроса и Лиги борьбы с детской преступностью; возглавляет Петроградскую Комиссию по улучшению быта ученых, петроградское отделени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мощи голодающим (Помгол), Экспертно-оценочную комиссию при Петроградском отделении Наркомата торговли 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тановится комиссаром типографии «Копейка», руководителем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Крестья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озглавляет редколлегия Библиотеки «Жизнь мира», Секции исторических картин, издательства «Издательства З. И. Гржебина», «Всемирная литература»²⁾.

Горький прилагал все усилия, чтобы вовлечь российскую интеллигенцию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новой властью, лично подавая пример активной работы. Он выступал за создание новых печатных органов, таких как альманахи «Завтра» и «1921», газета «Земля», «Наш

1) Горький М.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Письма: в 24 т. Т. 13: июнь 1919–1921* (М., 2007), С. 281-283.

2) Краткая история «Всемирной литературы» в статье: Чечнёв Я. Д. «Частушка о смене кадров в издательстве А.М. Горького «Всемирная литература»: «домашнее творчество» как зеркало социокультурных изменений ранней советской культуры», *Russian & Eurasian Studies* 13 (2025), С. 109-127.

журнал», журналы «Наука и ее работники» и «Дом Искусств». Благодаря его инициативе начали издаваться крупные советские журналы «Красная новь» и «Сибирские огни», а также были основаны «Дом Искусств», «Дом Ученых», «Дом литераторов»,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и театр-студия М. Горького. Писатель также оказывал помощь Институту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ой медицины.

К осени 1920 г. многогранная организацион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А. М. Горького столкнулась с системными препятствиями. Возглавляя ключевые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Петрограда, писатель на собственном опыте столкнулся с бюрократической волокитой, некомпетентностью и откровенным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ем. «Всемирной литературе» не давали бумагу и стремились лишить автономии, КУБУ препятствовали в организации мастерских³). Это порождало у Горького нарастающее разочарование, вылившееся в ультимативное письмо В. И. Ленину от 16 сентября 1920 г., где он заявил о прекращении всей своей офици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Я устал от бестолковщины»⁴). В качестве причины писатель указал не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дуктивной работы в условиях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неразберихи и личной неприязни со стороны некоторых ответстве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 частности заведующег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хозяйственной частью Госиздата С. М. Закса⁵). В черновом варианте письма содержались еще более резкие

3) О Петроградской КУБУ и деятельности Горького в ней см.: Король Л. Н. «Деятельность Петроградской комиссии по улучшению быта ученых в 1919–1923 гг.», *Вестник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А.А. Жданова. Серия истории,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2(1) (1983), С. 101-104; Минц З. Г. «А. М. Горький и КУБУ», *Ученые записки Тарту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Труды по русской и славянской филологии. 13: Горьковский сборник: к сто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1868–1968)* 217 (1968), С. 170-182; Евсеев М. М. «Горький, ПетроКУБУ и русские писатели», *Вопросы литературы* 7 (1984), С. 278-280; Исаков С. Г. «М. Горький, КУБУ и Финлянд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ский комитет помощи русским ученым», *Studia Slavica Finlandensia* 2 (1985), С. 49–80;

4) Горький М.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Письма: в 24 т. Т. 13: июнь 1919–1921* (М., 2007), С. 119.

5) Там же, С. 118-119.

оценки, где Горький напрямую связывал бесперспективность своей работы с протекционизмом и кумовством в совет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Теперь в угоду зависти или капризам т. Закс(а), за которым я знаю, пока, одно достоинство: он шурин Зиновьева⁶⁾, — теперь вся моя работа идет прахом.

Пусть так. Но — я уж достаточно стар, я имею пред родиной и революцией солидные заслуги, ценимые иначе, а не степенью родства или свойства с начальством, и достаточно стар для того, чтоб позволить и дальше издеваться надо мною, относясь к моей работе так небрежно и глупо. Ни разговаривать, ни работать с Заксом и подобными ему я не стану. Да и вообще я отказываюсь работать как в учреждениях, созданных моим трудом — во “Всемирной литературе”, Издательстве Гржебина, в “Экспертной комиссии”, в “Комиссии по улучшению быта ученых”, так и во всех других учреждениях, где работал до сего дня. — Я знаю, чем это грозит мне, но мое решение твердо. Довольно я терпел. Лучше издохнуть с голода...»⁷⁾

В письме к председателю Высшего совета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ВСНХ) РСФСР А.И. Рыкову от 26 сентября 1920 г. Горький выразился более сдержанно: «...кажется, мне нужно будет отойти в сторону от всех начинаний моих»⁸⁾. Мы привели лишь некоторые из самых ярких примеров раздражения писателя, вызванного его общением с советскими управленцами. За 1919–1921 гг. его полемических выпадов было значительно больше.

Конфликт с чиновниками подтолкнул писателя к созданию злободневной пьесы «Работяга Словотеков» (1920). Ее острая сатира стала отражением мрачных мыслей автора о тщетности его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работы. Текст опубликован в Полном собрании сочинений А. М. Горького⁹⁾.

6) Закс был женат на сестре главы Петрограда Г.Е. Зиновьева Лии Ароновне Радомысльской (1898-?).

7) Горький М.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Письма. Т. 13*, С. 437-438.

8) Цит. по: Быстрова О. В. “Издательский проект М. Горького «Всемирная литература»”, *М. Горький — издатель* (М., 2023), С. 204.

Анализ содержания и лексики в пьесе

Текст Горького правильнее назвать сценарием пьесы, ему не хватает нескольких ключевых структурных элементов, которые превращали бы его в законченное драматическ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готовое для постановки. Отсутствует четкое деление на акты и сцены. Нет развития характеров. Персонажи (кроме Словотекова) — это функциональные фигуры, призванные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его болтливость и бездеятельность. Они появляются, сообщают о проблеме и уходят. Сам Словотеков не меняется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текста, он — статичный, гротескный образ. Ремарки, важная часть пьесы, носят чисто литературный, а не сцен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например, «погружаясь в тяжкий сон»). Это скорее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ая проза, вставленная в драматическую форму.

Фактически перед нами эскиз одноактной сатирической пьесы. Он содержит в себе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режиссер и актеры могли поставить его на сцене: драматический диалог, развернутые ремарки как пожелания автора к сценическому действию, четко обозначенные персонажи. Каждое новое лицо представлено по имени или роли (Словотеков, милиционер, товарищ, баба-прачка), реплики отделены от других. Включена сцена преодоления «четвертой стены»: Словотеков взаимодействует с публикой (швыряет в нее будильником), что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чисто театральный прием, разрыв условности, который работает только на сцене. Горький не забывает и о аудиовизуальном сопровождении действия: треск будильника, падающая картина, разъезжающаяся кровать, сапог, раздувающий угли, — все это готовые мизансцены.

В своем тексте Горький раскритиковал пустословие и псевдо-революционную риторику чиновника, которая заменяла реальные

9) Горький М.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в 25 т. Т. 19.* (М., 1973), С. 179-183.

действия. Центральный персонаж, Словотеков, — карикатура на управленца, который вместо решения насущных проблем оперирует бесконечными газетными штампами о «коллектив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и «борьбе с разрухой».

Комната героя, «большая, очень загрязненная», с полуразрушенной мебелью, служит метафорой состояния страны, где вместо порядка — лишь декларации о нем¹⁰). Фразы Словотекова показывают, что Горький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овал актуальные газетные клише, буквально вкладывая их в уста и даже в мысли персонажа. Его призывы почти дословно совпадают с лозунгами из прессы 1919–1920 гг. Приведем для сравнения несколько цитат, для удобства объединим их в таблицу.

Таблица 1.

Горький	Газеты
«Долой лентяев и шкурников, дезертиров труда» ¹¹)	«Дезертир-враг рабочих и крестьян, помощник капиталистов и помещиков <...>. Трус и шкурники не имеют права на жизнь, ибо ныне жизнь там, где борьба» ¹²) «Долой лодырей, шкурников, дезертиров трудового фронта! Да здравствует пролетариат-строитель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¹³)...;
«Борьба с детской спекуляцией, товарищ, необходимейшее дело, очередная задача дня» ¹⁴)	«Необходима энергичная борьба с детской спекуляцией, а отделы просвещения должны заняться привлечением детей в школы и клубы» ¹⁵)
«Долой параллелизм!» ¹⁶)	«Параллелизм вызывает много

10) Там же, С. 179.

	отрицательных явлений: неравномерность распределения, отсутствие единой твердой политики...»¹⁷⁾ «Устраняя параллелизм в центре и на местах, центральная учетно-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ая комиссия положила начало организованности в дело распределения книжных запасов...»¹⁸⁾
--	--

Текст Горького разоблачал пустоту революционной риторики, показывая, как высокие идеи превращались в набор бессмысленных клише, за которыми нет реальных дел. Писатель показал, как «борцы за новый мир» оказались беспомощными болтунами. Словотеков — собирательный образ начальника, который верит в силу слов, но не способен на реальные поступки.

Беспомощность Словотекова показана, например, в кратком эпизоде разговора с прачкой, который показывает конфликт между идеологической риторикой и практическими нуждами населения.

11) Там же.

12) “Страничка красноармейца. Дезертир”, *Правда* 128 (1919), 15 июня, С. 3.

13) “Рабочая конференция Замоскворечья (Второй день)”, *Вечерние известия Московского Совета Рабочих и Красноармейских Депутатов* 464 (1920), 11 февраля, С. 4.

14) Горький М.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Т. 19, С. 181.

15) “Дети-спекулянты”, *Вечерние известия Московского Совета Рабочих и Красноармейских Депутатов* 137 (1918), 31 декабря, С. 2.

16) Горький М.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Т. 19, С. 181.

17) “Конференц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оюзов и фаб<рично>-заводских комитетов 3-й день”, *Вечерние известия Московского Совета Рабочих и Красноармейских Депутатов* 189 (1919), 8 марта, С. 2

18) “Хроника”, *Известия* 45 (1920), 28 февраля, С. 2.

Входит баба, сердитая.

— Товарищ, что же это? Вы нам обещали дать помещение для прачечной еще три месяца тому назад...

— Вы — прачка?

— Ну да, прачка.

— Товарищ! На вас лежит трудная обязанность борьбы за чистоту, чистота — необходимейшее условие народного здоровья. Что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прежде всего?

— Мыло.

— Организация.

— Организация у нас сделана, ты мыло давай.

— Нужна прежде всего коллегиальность.

— А я говорю — мыло.

— Организация, товарищи.

— Мыло.

— Организация.

— Тьфу, взбалмошный!

Ушла. Словотеков кадит сапогом вслед ей.

— Какая нервная. Сколько работы. На шестьсот лет работы...

А я еще чаю не пил...¹⁹⁾

Пустые слова чиновника сталкиваются с реальным запросом на конкретные действия (обеспечение прачечной мылом). Словотеков нивелирует требования абстрактными лозунгами («организация», «коллегиальность»), что отражает, по Горькому, типичную для складывающегося советского аппарата подмену ре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митаци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еуместное употребление клише периодической печати («борьба за чистоту», «необходимейшее условие народного здоровья») при полном игнорировании сути проблемы создает эффект абсурда.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й провал в диалоге (уход прачки с репликой «Тьфу, взбалмошный!») демонстрирует глубину разрыва между бюрократическими процессами и реальной жизнью.

Завершается сцена красноречивой репликой Словотекова («На шестьсот

19) Горький М.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Т. 19, С. 182.

лет работы...»), через которую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псевдонапряженность бюрокра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чиновник драматизирует загруженность, хотя сам бездельничает, предпочитая труду гедонистические радости («Я еще чаю не пил»). Персонаж спорит о «методах работы», но не решает насущных проблем.

«Тень Достоевского»

Вместе с тем заключительная фраза Словотекова про чай вызывает ассоциации с репликой, произнесенной персонажем Ф. М. Достоевского в «Записках из подполья» (1864): «Свету ли провалиться, или вот мне чаю не пить?»²⁰⁾ Сравнение реплик раскрывает принципиальную разницу в изображении человека и его отношения к миру в творчестве писателей. Несмотря на общий бытовой мотив, высказывания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два полюса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ной мысли: философско-индивидуалистический и социально-бытовой.

У Достоевского фраза о чае служит высшим выражением идеи личной свободы. Для его «подпольного героя» чай — не напиток, а символ собственной воли и права на каприз. Сознательно ставя мимолетное желание выше гипотетической гибели мира, он провозглашает бунт против любых внешних законов — будь то логика, разум или общественная польза. Его позиция — это трагическое самоутверждение личности, которая готова принять хаос, лишь бы сохранить за собой последнее право выбора. Этот вопрос является философским манифестом, исследующим глубины человеческого духа и его иррациональную потребность в свободе, даже ценой саморазрушения²¹⁾.

20) Достоевский Ф. М.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и писем: в 35 томах. Т. 5. Повести и рассказы. 1862–1866. Игрок. наброски и планы. 1864–1866* (СПб., 2016), С. 19; С. 111–200.

21) Касаткина Т. А. «Достоевский: образ пространства. «Записки из подполья» как срединное место», *Достоевский и мировая культура. Альманах* 33

В универсуме Горького чай оказывается лишен глубокого философского смысла. Фраза демонстрирует полный разрыв между словесной активностью героя и реальными действиями. Писатель обозначает «деятеля», который подменяет конкретную работу пустой риторикой, наполненной модными лозунгами («организация», «коллегиальность»). Пока вокруг него накапливаются ре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прорвало трубу, завалило трамвайный путь, мальчишки-спекулянты), Словотеков лишь произносит пламенные речи, но не способен на самые простые бытовые действия (найти сапог, мыло, одеться). Его жалоба — оправдание собственной несостоятельност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Горький высмеивает социальный тип болтуна и демагога, который в условиях разрухи и хаоса продолжает «бороться» только словами, оставаясь абсолютно бесполезным на практике. Эпизод с прачкой, как и сценарий в целом, мож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в качеств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репрезентации характерных речевых практик партийных функционеров и чиновников военного коммунизма.

Несмотря на разницу эпох и контекстов, персонажи Достоевского и Горького — яркие примеры антигероя, чья сущность проявляется в конфликте между сознанием и действием. И подпольный человек, и Словотеков абсолютно неспособны к продуктивному действию. Их энергия уходит не на изменение реальности, а на внутренние (или, в случае Словотекова, внешние) монологи, оправдывающие бездействие. Подпольный человек его выбирает сознательно, возводя в философский принцип. Его бездействие — это форма протеста против «разумного»

(2015), С. 88–105; Касаткина Т. А. ««Записки из подполья»: личные границы», *V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гресс «Русская словесность в мировом культурном контексте». Избранные доклады и тезисы, Т. 1* (М., 2015), С. 371–378; Касаткина Т. А. «Проблема доступа к философии и богословия писател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филологии. Аполлон и мышь в «Записках из подполья» Ф. М. Достоевского», *Новый мир* 9 (2017), С. 140–153; Волчек О. Е. «Подпольный человек между двойником и идиотом в критике психоанализа Жюль Делёза», *«Записки из подполья» Ф. М. Достоевского в культуре Европы и Америки* (М., 2021), С. 298–306.

мира. Словотеков же пытается действовать, но его попытки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словесную имитацию деятельности. Он не решает проблемы, а произносит речи о том, как бы их решить. Его бессилие не философский выбор, а следствие абсолютной неэффективности и погруженности в пустую риторику.

Героев можно развести по социальному признаку. Подпольный человек — маргинал, сознательно противопоставляющий себя обществу. Он исповедует крайний индивидуализм, страдает от этого, но не может и не хочет стать частью «общего муравейника». Его бунт — иррационален и личностен. Словотеков — напротив, пытается быть в самой гуще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Он постоянно апеллирует к коллективу («товарищи», «коллекгиально», «организуемся»). Однако его коллективизм — фальшив. За громкими словами нет реальной заботы о людях (ему плевать на детский приют без воды). Он использует коллективную риторику для маскировки собственной ничемности. Его трагедия (и комизм) в том, что он — антиколлективист, прикидывающийся его ярым сторонником.

Вместе с тем оба героя определяются через речь. У подпольного человека — это поток сознания, саморефлексия, исповедь, направленная внутрь себя и на условного слушателя. Она сложна, парадоксальна и философична. У Словотекова — это казенный, новоязовый поток клише, заимствованных из революционной пропаганды («организация», «концентрация», «борьба с разрухой», «долой параллелизм»). Его речь направлена вовне, но лишена смысла и цели. Она пародийна и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не саморефлексию, а «словесный мусор».

Образы героев позволяют определить два типа бездействия: подпольный человек — это трагедия бездействия, возведенного в принцип. Он страдает от своей неспособности быть «живым» человеком, но это страдание — единственно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о его острой, хоть и больной, сознательности. Словотеков —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фарс бездействия, замаскированного под бур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Он не рефлексит, а лишь реагирует на внешние раздражители (будильник, просители). Его сознание спит, а язык работает вхолостую. Он — сатирическое воплощение бюрократа-пустослова, для которого процесс говорения и есть конечная цел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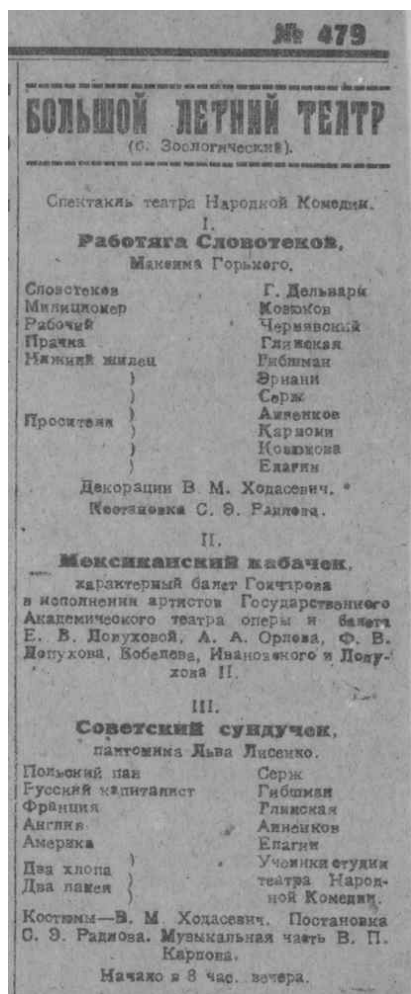


Рис. 1. Объявление премьерной постановки «Работага Словотекова». Режиссер — С. Э. Радлов (*Жизнь искусства* 479 (1920), 16 июня, С. 2).

Сценическая судьба «Работага Словотекова» оказалась краткой. Анонс о готовящейся постановке появился в апреле 1920 г.: «В этой

пьесе он (Горький. — Я. Ч.) осмеивает лень и тунеядство. Пьеса пойдет в петербургском театре “Народная Комедия”»²²⁾.

Сценарий, написанный Горьким для Театра народной комедии, был модифицирован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импровизационными принципами учреждения: в пьесе появились новые персонажи (нижний жилец, рабочий и четыре посетителя), изменилась концовка, прибавлен танцевальный номер («характерный балет», как значилось в перовой афише и повторено в последующих) «Мексиканский кабачок» и пантомима «Советский сундучок».

Премьера состоялась 16 июня²³⁾ (Рис. 1), всего прошло пять показов (16, 17, 19, 20 и 23 июня²⁴⁾), вскоре постановка была снята с репертуара Петроградским театральным отделением (ПТО)²⁵⁾. Реакция властей была предсказуема. Как отмечала художница, автор декораций и сценографии В. М. Ходасевич, на премьер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руководящие ленинградские товарищи», и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по ее мнению, «узнали себя в Словотекове и обиделись»²⁶⁾.

Исследователь К. Д. Муратова, вслед за Б. А. Бяликом и С. С. Даниловым, отметила, что «горьковская сатира <...> была неодобрительно встречена критикой»: режиссерская трактовка Сергея Эрнестовича Радлова исказила замысел, а сам сценарий признан выпадом против советской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поскольку Словотекову не был противопоставлен положительный персонаж, следовательно герой представлял собой типическое явление для первых лет революции²⁷⁾.

22) “Искусство”,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труд* 27 (1920), 23 апреля, С. 4.

23) О подготовке к постановке и отзывах о ней см.: Горький М.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Т. 19*, С. 533–535.

24) *Жизнь искусства* 480 (1920), 17 июня, С. 2; *Жизнь искусства* 482–483 (1920), 19–20 июня, С. 3; *Жизнь искусства* 485 (1920), 23 июня, С. 2.

25) “Театр”, *Красная газета* 135 (1920), 22 июня, С. 4.

26) Ходасевич В. “Таким я знала Горького”, *Новый мир* 3 (1968), С. 24.

27) Муратова К. Д. “Горький и советская сатира (1919–1936)”, *Вопросы совет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5 (М., Л., 1957), С. 110, 112–113.

Реакция провластной критики на постановку «Работяги Словотекова»

В «Красной газете» вышла критическая заметка В. Чадаева, которая невольно подтверждала точность горьковской сатиры²⁸). Далее в разборе статьи мы будем давать цитаты без ссылок на источник.

Большая часть отклика Чадаева посвящена не столько Словотекову, сколько критике обывателя, его взгляда на революцию и хозяйственную разруху: «Обыватель ошарашен. Он обезумел. Он обозлен. Его жалкий, узкий и тупой умишко не в силах разобраться во всей сложной и запутанной причинности происходящего. Он не может разглядеть сущность явления и тем более нащупать пути выхода».

Рецензия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типичный пример идеологически ангажированной критики. В ней прослеживается попытка нивелировать острую злободневность сатирического высказывания и перевести обсуждение в плоскость обвинения непричастного третьего лица — зрителя. Отклик больше походит на попытку защиты системы и обнажает принципы, по которым она ведется: подмена предмета обсуждения (переключение внимания на третьестепенные вещи), замена анализ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репрезентации политической демагогией, риторика стигматизации, моральные обвинения. Так, культур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ограниченность обывателя, позволявшая ему ликующе реагировать и «гоготать» над репликами прачки, не может служить оправданием «несознательности». По мнению автора, нужно быть благодарным «организации»,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й мы совершили немало чудес, не замерзли окончательно, и гогочущий над ней обыватель не подох с голоду,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й мы еще можем давать хотя бы те кусочки мыла, которые обыватель получает в бане».

Рецензент противопоставил сатирическому образу Словотекова тезис

28) Чадаев В. «Из-за деревьев леса невидящие (К постановке пьесы Горького «Работяга Словотеков»)», *Красная газета* 134 (1920), 20 июня, С. 3.

о системно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бюрократии («организации»). Игнорируя ключевую антитезу горьковского текста, сохраненную в постановке (разрыв между революционной риторикой и бытовой реальностью), он трактовал поступки героя как отражение обывательс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на послереволюционные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Далее в тексте — нарушение логики аргументации:

«Да и сам-то Словотеков — это не случайная бездарность, прилизавшийся бездельник, случайно выплеснутый наверх гребнем революционной волны и пока еще к прискорбию не отмеченный в сторону; это не болячка, не нарыв на здоровом теле, нет, не даром в пьесе не указывается конкретно, кто и что такое Словотеков, он не председатель домкомбеда, он не деятель участкового бюро, он не исполком. Он неизвестно кто, в частности, он имя нарицательное (курсив наш. — Я. Ч.). Он безусловно нечто противное и в то же время нечто общее».

Изначально герой был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н как отражение образа чиновника в глазах обывателя, т.е. как нечто локальное, отражающе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пределенной социальной группы, в цитате же он универсальный персонаж, собирательный тип бюрократа. В результате взявший на себя роль адвоката В. Чадаев сам невольно подтвердил правоту сатиры: отрицая типичность Словотекова (чтобы снять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с «организации»), он признал обобщающий характер образа (чтобы объяснить зрительскую реакцию). Если перед нами «имя нарицательное», значит, проблема бюрократи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уществовала.

Выбранные рецензентом приемы «защиты» (подмена тезиса, обесценивание оппонента, ложные дихотомии, моральный шантаж) лишь подтверждали силу горьковского текста: если так болезненно н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разоблачение реагирует корреспондент «Красной газеты» — издания Петроградского совета рабочих и красноармейских депутатов — значит, оно попало в цель. Вместо того чтобы отрицать проблемы, Чадаев предпочел обвинить в них тех, кто их увидел —

зрителей. Его статья невольно доказывала, что Словотеков — не вымысел, а отражение реальности.

В историографии сложилась гипотеза,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й прототипом Словотекова был Г.Е. Зиновьев, а причиной снятия постановки со сцены — его личная обида²⁹⁾. Однако этот тезис несостоятелен по нескольким причинам. Во-первых, Зиновьев физически не мог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на ключевых показах: он находился в Москве с 15 июня, вернулся в Петроград только 20 июня³⁰⁾, когда скандал уже разразился, и был занят подготовкой к важным политическим мероприятиям³¹⁾. Во-вторых, и это главное, риторика Зиновьева, при всей ее патетичности, была функциональна — она служила эффектив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мобилизации масс. Приведем несколько примеров:

В течение двух лет наша партия льет кровь лучших своих сынов за дело рабочих и крестьян, и чем больше покушений за членов нашей партии, чем гнуснее. подлее эти покушения, тем ближе становится наша партия всему сему народу, рабочим и крестьянам. И последнее подлое покушение белогвардейцев, жертвой которого пали 10 лучших наших товарищей, сделают нашу партию еще роднее сердцам всего борющегося за счастье народа³²⁾

29) Геллер М. “Клоун и комиссар, Одна или две русских литературы?”, *Международ. симп., созв. Фак. словесности Женев. ун-та и Швейц. акад. славистики, Женева, 13–14 апр. 1978* (Lausanne, 1981). С. 217–225; Огнев А. В. *М. Горький о русском национальном характере* (Тверь, 1992), С. 109–110; Никитин Е. Н. “О «Работяге Словотекове». Новаторство жанра”, *Драматургия М. Горького в историко-функциональном аспекте: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М., 2017), С. 231–282.

30) “Из Москвы по телефону. Итальянская делегация в Москве”, *Красная газета* 130 (1920), 16 июня, С. 1; “Хроника”, *Красная газета* 135 (1920), 22 июня, С. 3.

31) “Заседание Исполкома”, *Красная газета* 136 (1920), 23 июня, С. 2; “Перевыборы в Петроградский совет”, *Красная газета* 137 (1920), 24 июня, С. 3.

32) “Похороны жертв белогвардейского заговора”, *Вечерние известия Московского Совета Рабочих и Красноармейских Депутатов* 354 (1919), 29 сентября, С. 2.

Вперед! — закончил свою речь тов. Зиновьев, — будем твердо стоять на постах. Да здравствуют мобилизованные товарищи! Да здравствует наш великий город Красный Петроград!³³⁾

Товарищи, — сказал тов. Зиновьев. — на фронте вы должны вести себя так, чтобы каждый польский рабочий, каждый польский крестьянин понял, что русский пролетариат пришел н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угнетать, 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мочь в их борьбе против угнетателей³⁴⁾.

Речи Зиновьева, насыщенные революционной патетикой и агитационными лозунгами, безусловно, содержали элементы, которые Горький мог высмеивать, — многословие, пафос, склонность к абстрактным декларациям. Однако ключевое отличие заключалось в функциональности этой риторики: Зиновьев, как опытный трибун, мастерски использовал подобные приемы для конкрет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задач: мобилизации масс, легитимации власти большевиков через демонизацию врагов и упрощение сложных вопросов до бинарных схем борьбы с «подлыми угнетателями». На его фоне Словотеков — бесплодный резонер, чье сознание полностью подменено механическим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ом пустых лозунгов. Его трагикомизм в искренней вере, что «коллегальностью» можно заменить мыло, а «опытом рабочего движения» — заткнуть прорванную трубу.

Пьеса «Работяга Словотеков» стала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реакцией Горького на столкновение с бюрократическим аппаратом. Ее быстрый запрет и болезненная реакция критики доказывают, что сатира писателя попала в цель, метко обозначив реальную проблему раннесовет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азрыв между революционной фразой и практическим делом. Словотеков — это не портрет Зиновьева, а собирательный образ болтуна-управленца, рожденного самой эпохой

33) «На защиту революции», *Правда* 222 (1919), 5 октября, С. 2.

34) «На польский фронт», *Правда* 97 (1920), 7 мая, С. 1.

«военного коммунизма».

Создав универсальный сатирический тип болтуна-бюрократа, Горький не расстался с этим образом и впоследствии. Показательно, что спустя восемь лет после написания пьесы, писатель вновь вернулся к этой знаковой фамилии.

В 1928 году он использовал псевдоним «Самокритик Словотеков» для публикации в сатирическом журнале «Чудак» (Рис. 2). Этот факт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том, что проблема, описанная Горьким в «героический» период революции, не утратила остроты в конце нэпа, перед годом «великого перелома». Писатель вновь увидел в этом образе мощный сатир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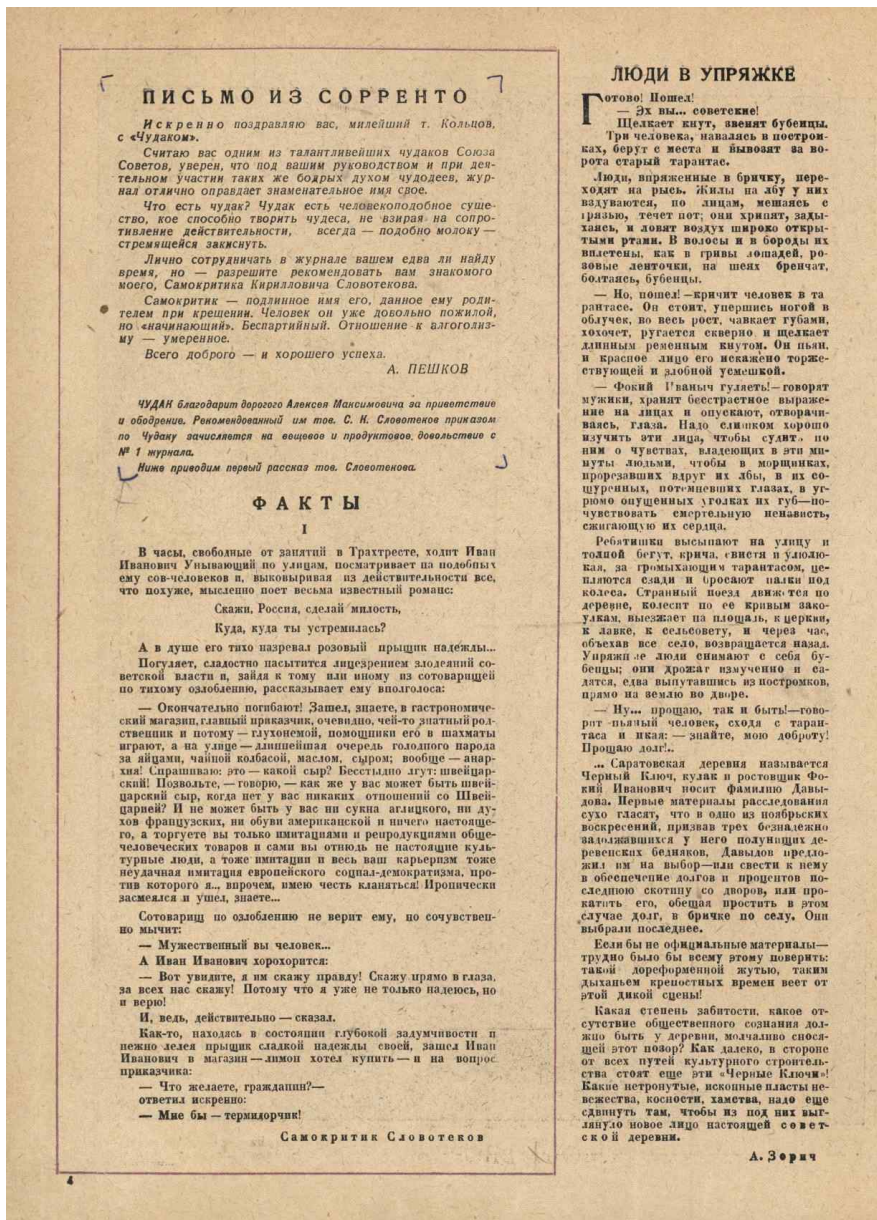


Рис. 2. Обложка и страница, где Горький использует псевдоним «Самокритик Словотеков» (Чудак 1 (1928), Декабрь, С. 4).

Более того, по наблюдениям С. Д. Балухатого, Горький ввел фамилию «Словотеков» в свой фундаментальный роман «Жизнь Клима Самгина». Главный герой, Клима Самгин, присваивает ее одному из профессоров, наряду с другими «глумливыми псевдонимами» — Словолюбов и Скукотворцев. Это прямо отсылает к центральной идее пьесы: высмеиванию людей, подменяющих суть и реальные дела пустым, бессмысленным словоблудием. Более того, Самгин раскрыл опасный потенциал от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такими людьми: «Ему очень нравились кратки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людей, пытавшихся более или менее усердно сделать из него человека такого же, как они»³⁵).

35) Цит. по: Балухатый С. Д. *Литературная работа М. Горького: Список первопечатных текстов и авторизованных изданий 1892–1934* (М., Л., 1936). С. 316.

참고문헌

1. Балухатый С. Д. *Литературная работа М. Горького: Список первопечатных текстов и авторизованных изданий 1892–1934*, М., Л., 1936.
2. Быстрова О. В. “Издательский проект М. Горького «Всемирная литература»”, *М. Горький — издатель*, М., 2023.
3. Волчек О. Е. “Подпольный человек между двойником и идиотом в критике психоанализа Жиля Делёза”, *«Записки из подполья» Ф. М. Достоевского в культуре Европы и Америки*, М., 2021.
4. Геллер М. “Клоун и комиссар, Одна или две русских литературы?”, *Междунар. симп., созв. Фак. словесности Женев. ун-та и Швейц. акад. славистики, Женева, 13–14 апр. 1978*, Lausanne, 1981
5. Горький М.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Письма: в 24 т. Т. 13: июнь 1919–1921*, М., 2007.
6. Горький М.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в 25 т. Т. 19*, М., 1973.
7. “Дети-спекулянты”, *Вечерние известия Московского Совета Рабочих и Красноармейских Депутатов*, 137, 1918, 31 декабря.
8. Достоевский Ф. М.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и писем: в 35 томах. Т. 5. Повести и рассказы. 1862–1866. Игрок. Наброски и планы. 1864–1866*, СПб., 2016.
9. Евсеев М. М. “Горький, ПетроКУБУ и русские писатели”, *Вопросы литературы* 7, 1984.
10. *Жизнь искусства* 480, 1920, 17 июня.
11. *Жизнь искусства* 482–483, 1920, 19–20 июня.
12. *Жизнь искусства* 485, 1920, 23 июня.
13. *Заседание Исполкома, Красная газета* 136, 1920, 23 июня.
14. “Из Москвы по телефону. Итальянская делегация в Москве”, *Красная газета* 130, 1920, 16 июня.
15. Исаков С. Г. “М. Горький, КУБУ и Финлянд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ский комитет помощи русским ученым”, *Studia Slavica Finlandensia* 2, 1985.

16. *Искусство,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труд* 27, 1920, 23 апреля.
17. Касаткина Т. А. “«Записки из подполья»: личностные границы”, *V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гресс «Русская словесность в мировом культурном контексте». Избранные доклады и тезисы. Т. 1*, М., 2015.
18. _____ “Достоевский: образ пространства. «Записки из подполья» как срединное место”, *Достоевский и мировая культура. Альманах* 33, 2015.
19. _____ “Проблема доступа к философии и богословия писателя. Неизбежность филологии. Аполлон и мышь в «Записках из подполья» Ф.М. Достоевского”, *Новый мир* 9, 2017.
20. “Конференц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оюзов и фабр<ично>-заводских комитетов 3-й день”, *Вечерние известия Московского Совета Рабочих и Красноармейских Депутатов* 189, 1919, 8 марта.
21. Король Л. Н. “Деятельность Петроградской комиссии по улучшению быта ученых в 1919–1923 гг.”, *Вестник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А. А. Жданова. Серия истории,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2.1, 1983.
22. Минц З. Г. “А. М. Горький и КУБУ”, *Ученые записки Тарту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Труды по русской и славянской филологии. 13: Горьковский сборник: к сто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1868–1968)* 217, 1968.
23. Муратова К. Д. “Горький и советская сатира (1919–1936)”, *Вопросы совет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5, М., Л., 1957.
24. *На защиту революции, Правда* 222, 1919, 5 октября.
25. *На польский фронт, Правда* 97, 1920, 7 мая.
26. Никитин Е. Н. “О «Работяге Словотекове». Новаторство жанра”, *Драматургия М. Горького в историко-функциональном аспекте: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М., 2017.
27. Огнев А. В. *М. Горький о русском национальном характере*, Тверь, 1992.
28. “Перевыборы в Петроградский совет”, *Красная газета* 137, 1920, 24 июня.

29. “Похороны жертв белогвардейского заговора”, *Вечерние известия Московского Совета Рабочих и Красноармейских Депутатов* 354, 1919, 29 сентября.
30. “Рабочая конференция Замоскворечья (Второй день)”, *Вечерние известия Московского Совета Рабочих и Красноармейских Депутатов* 464, 1920, 11 февраля.
31. “Страничка красноармейца. Дезертир”, *Правда* 128, 1919, 15 июня.
32. “Театр”, *Красная газета* 135, 1920, 22 июня.
33. Ходасевич В. “Таким я знала Горького”, *Новый мир* 3, 1968.
34. “Хроника”, *Известия* 45, 1920, 28 февраля.
35. “Хроника”, *Красная газета* 135, 1920, 22 июня.
36. Чадаев В. “Из-за деревьев леса невидящие (К постановке пьесы Горького «Работяга Словотеков»)”, *Красная газета* 134, 1920, 20 июня.
37. Чечнёв Я. Д. “Частушка о смене кадров в издательстве А. М. Горького «Всемирная литература»: «домашнее творчество» как зеркало социокультурных изменений ранней советской культуры”, *Russian & Eurasian Studies* 13, 2025.

Abstract

**M. Gorky's Satirical Play *The Workman Slovotekov* (1920):
The Chattering Bureaucrat as a Hero
of the "War Communism" Era**

Chechnev, Ya. D.

(Gorky Institute of World Literature)

The article is devoted to Maxim Gorky's satirical play *Rabotyaga Slovotekov* (*The Hard-Working Slovotekov*, 1920) as an artistic response to the bureaucratism of the War Communism era. After 1917, Gorky held numerous positions in cultural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created new institutes and publications, and sought to involve the intelligentsia in cooperation with the new regime. By the autumn of 1920, administrative red tape and opposition had led to the writer's disillusionment, which manifested itself in his doubts about the expediency of official activity. The article identifies the sources of the speech characteristics of the main character—the official Slovotekov — whose discourse is built on direct borrowings of clichés from the periodical press of 1919–1920. A comparison is drawn between the hero's lines and the utterances of the Underground Man in Fyodor Dostoevsky's *Notes from Underground*, which reveals a typological difference between forms of inaction: individualistic rebellion versus socially conditioned imitation of activity. The stage history of the play is examined (the production by S. E. Radlov in June 1920) along with the reaction of official criticism, which interpreted the absence of a positive hero as an attack on the system. The image of Slovotekov is presented as a collective type of the empty-talking bureaucrat, a figure that retained its relevance in Gorky's later work (the 1928 pseudonym and the novel *The Life of Klim Samgin*).

Key words : Slovotekov, Gorky, War Communism, Bureaucracy, Satire

Влияние идеологии милитаризма на создание нарратива корейских драм (1937-1945 гг.)

А. О. Демихов*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중일전쟁 시기(1937-1945) 이데올로기의 도구이자 문화적 저항의 한 형태로서 기능했던 조선 영화를 고찰한다. 또한 '문화 동화' 정책, 검열, 선전의 영향 아래에서 영화 제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한다. 영화의 구조적 분석에는 V. A. 포도로가의 '프레임(frame)'과 '도주(escape)' 개념이 활용된다. 그리고 조선의 신과 드라마 장르의 하위 장르와 구분하기 위해 '전쟁 드라마'와 '사회 드라마' 개념을 도입한다.

<군용열차>(1938), <지원병>(1941), <학비>(1940), <집 없는 천사>(1941), <반도의 봄>(1941), <망루의 결사대>(1943) 등의 작품을 사례로 하여, 제국에 충성하는 '이상적 영웅'의 구축, 역사적 내러티브의 활용 등 선전 요소를 밝혀낸다.

결론적으로, 검열하에서도 조선 감독들이 민족적 정체성의 요소들을 작품에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과, 1945년 이후에는 '해방'의 주제가 남북한 영화 모두에서 지배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조선총독부, 영화, 제2차 세계대전, 이데올로기

* 쿠반국립대학교 해외지역학·동방학과 석사과정, i24tonny@gmail.com

В современн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историографии дискурс о прояпонских 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ах стал изменяться вследствие работы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архива и обнаруженными фильмами, произведенными во время оккупации. Изначально проблему за производство «антинациональных» лент возлагали только на режиссёров, но сейчас историки кино пытаются уйти от пустых размышлений и узнать, что способствовало появлению таких фильмов вместо клеймения определённых индивидов. Роли персонажей были продиктованы социальной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ю культурного общения Японии с колониями. Фильмы должны были утвердить правильность намерений и интересов Японской империи,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противореч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¹⁾. Наравне с политическим нарративом были показаны соци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 частности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мужчиной и женщиной, зажиточными корейскими буржуа и готовыми сражаться за империю корейцами. Также было жанровое направление, которое игнорировало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е идеология–общество и пыталось выстроить свой отрешенный от реальности мир.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систематически упорядочить выбранную подборку фильмов в жанре драма, поэтому предложено разделение на «военную» и «социальную» драму. Стоит отметить общие элементы у этих поджанров: символы императорской пропаганды (плакаты, лозунги, песни, отсылки на «божественный ветер» во время вторжения монголов), отображение главного героя как примера для подражания, социальная прослойка корейских землевладельцев/арендаторов жилья отображалась как бездушные и эгоистичные. Главным нарративом военной драмы является фокусирование сюжета кинолент на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й нарратив, связанный с построением строгой вертикали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японцем или корейским коллаборационистом и

1) Rhee Jooyeon, "Manifestation of 'Japanese Spirit' in Wartime Japan: Focusing on Images of Women in Films, The New Earth and the Suicide Troops of the Watchtower",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5 (2008), p. 2-4.

корейцем, где первый принимает роль отца/наставника, а второй – сына/ученика. Также на первый план выходит патетическое отображение элементов японской власти и военных. Определение «социальной» драмы не так однозначно, но оно имеет важное отличие – большая часть нарратива строится вокруг трудного положения корейцев. Для принятия в прокат фильмы имели перечисленные выше символы власти, однако на первый план выходили остросоци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а именно разрыв между бедными и богатыми, положение бедного населения и проблема «плохого детства (сиротство). Ещё одной отличительной чертой является отображение прояпонских корейцев. Если в военной драме это бескорыстные и честные люди, то в социальной драме они одеты по западному стилю, высокомерные, их можно поставить в один ряд с арендаторами.

Также была использована методология, предложенная В. А. Подорога, для рассмотрения фильмов в качестве продолжения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пропаганды. В ней выделяется рамка как главное средство передачи нарративов, в то время, когда экран отходит на второй план. Рамка – это жанр, который сковывает экран, однако авторское кино использует весь экран, уделяя наименьшую роль рамке²⁾. Выбранные фильмы являются чисто жанровым кино, поэтому выход за рамку везде отсутствует. Одними из инструментов для анализа фильмов являются высший и низший уровень, а также отображение бегства/спасения. Высший уровень состоит в цельности нарратива фильма, который, например, связан с операторской работой, а низший уровень – работает на уровне восприятия образов, символов и является миметической реакцией на них.³⁾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спасении, то, например, авторское кино может показать, что выхода из ситуации нет, что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аргументов против наличия

2) Подорога В. А. *Кинематограф. Сновидение. Психоанализ. Курс лекций для МШНК* (М.: Москов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зд. Das Esseintes Press, 2025), С. 134-135.

3) Там же, С. 43-44.

пропаганды в кино. В рамках данной статьи в выбранных фильмах всегда есть элемент спасения, так как все проблемы разрешаются и всё заканчивается счастливо.

При анализе фильмов нужно изучить общий социополитический контекст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ства Кореи, а именно — определить становлени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механизмов для контроля корейской киноиндустрии, выделить популярные жанры корейского кинематографа до начала японо-китайской войны.

Во время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Кореи независимые фильмы были рефлексией о потере страны и дальнейшей судьбе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йцы приходили посмотреть на «независимых», волевых персонажей, смеялись и плакали вместе с ними. Корейские режиссёры пытались преобразить мрачную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 через яркие, вдохновляющие реплики главных героев и истории о несправедливых судьбах людей, где в конце концов побеждает «корейский» дух. Поэтому самым популярным жанром была мелодрама — симпха. Всего с выхода первого полнометраж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фильма в 1923 г. по 1939 г. было снято 84 мелодрам-симпах из 128 выпущенных кинолент, что составляет 65,6% от всех произведенных фильмов. По опросу газеты «Чосон Ильбо» 1938 г. лучшими немymi фильмами считались «Ариран» (1926 г.), «Паром без паромщика» (1930 г.), «Течение жизни» (1937 г.), «Весенний ветерок» (1937 г.), «Рассвет» (1927 г.) и другие.⁴⁾

В Корее и на Тайване,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ство планировало обучать и просвещать население через фильмы. Однако в частном секторе кинопроизводство было намного сильнее стимулировано, в 1924 году японцы основали «Тёсэн кинэма», чт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спровоцировало рост корейских независимых кинокомпаний. Интенсивное создание кино считается первым золотым веком корейского кинематографа.⁵⁾ Японское

4) Min Eungjun, Joe Jinsook, and Han Ju Kwak, *Korean Film. History, Resistance, and Democratic Imagination* (L.: Praeger, 2003), p. 32-33.

5) Yomota Inuhiko, *Nihon Eiga Shi 110 Nen [History of Japanese cinema in 110 years]* (Tokyo, 2014), p. 117.

правительство через подконтро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Кино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ства Кореи пыталось регулировать импорт и экспорт фильмов, так как для корейской, как и японской аудитории популярностью пользовались американские киноленты. Также это отделение стремилось выпускать ленты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дкрепляющее японское политическое самосознание, однако получило обратный эффект, когда корейская аудитория переживала за ярко выраженного «врага» японского народа, а не за героя. Можно также рассмотреть косвенное влияние Японии на кинопроизводство: некоторые корейские режиссеры, например, создатель первой полнометражной ленты «Клятва, сделанная под луной» Юн Пэкнам, ездили в Японию на обучение. Кроме того, японские материальные инвестиции, как денежные, так и технические, поступали в корейские киностудии.⁶⁾ Однако независимым корейским сценаристам или режиссерам, стремившимся закрепиться в киноиндустрии, было невозможно пробиться на творческие руководящие должности. Также из-за подав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самосознания в кинематографе не поднимались темы корейской истории, что стало следствием развития жанра корейской драмы.

Для японского оккупаци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драма заняла центральное место в культуре и медиа страны, а также он использовался в качестве инструмента идеологии. По мнению исследователя Ан Ни, на оккупирован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от кино ожидали, что оно станет культурной «пулей» для передачи политических идей, и оно в какой-то степени оправдало эти ожидания.⁷⁾ По версии Ёмота Инухико, влияние японского жанра симпа на корейское кинопроизводство проходило вместе с изменением официального языка с корейского на «вэсэку» 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6) Michael B. *The Attractive Empire: Transnational Film Culture in Imperial Japan*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8), p. 23.

7) An Ni, *Senjika Nihon Eiga Koushou Shi [History of Japanese cinema in discussions during the War.]* (Tokyo, 2010), p. 3.

уровне. Однако,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языковые реформы не прижились в обществе. Наоборот, устное народное творчество эпохи Чосон, такие как традиционные народные песни и легенды, были способом сохранения корейск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Именно такие национальные элементы станут частью независимой корейской мелодрамы.⁸⁾

Другие фильмы, использующие формулу симпа, были трагедиями о бедных и слабых против богатых и сильных. Под слабыми, очевидно, подразумевались угнетённые корейцы, а под сильными — прояпонские корейцы и сами японцы. Главными героями выступали бродяги, отражающие национальный дух независимой Кореи, особенно тех, кто эмигрировал.

После захвата Маньчжурии в 1932 г. началось ужесточ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Японии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оккупированных колоний.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 Кореи Угаки Кадзусигэ, который подчинялся на прямую премьер-министру, предпринял первую попытку контроля выпуска и дистрибуции кино. В 1933 г. вышел его указ № 66,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фильмы в Корею должны импортироваться только из Японии. В 1934 г. выходит закон Корей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 контроле кино в продолжении указа. После принятия данного закона импорт иностранных фильмов из Европы и Америки сократился, потому что для показа в кинотеатрах они проходили двойную цензуру. Первая была на порте въезда (вещественная), а вторая (идеологическая) проходила через японское бюро цензуры.⁹⁾ В это же самое время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 поручил занять освободившуюся долю рынка домашними (японскими и корейскими) кинолентами (кокусан эйга). Фильмы распространяли с учётом квот, а также национальной спецификой кинотеатров Кореи. Тогда функционировали два вида кинотеатров: японские, которые показывали в основном

8) Yomota Inuhiko, Op. cit., p. 116.

9) Yecies Brian M. and Shim Ae-Gyung, "Lost Memories of Korean Cinema: Film Policy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1919-1937", *Asian Cinema*, 14(2) (2003), pp. 75-90.

японское и иностранное кино, и корейские, где показывали исключительно иностранное кино. Несмотря на ограничение западных, американских фильмов, корейской аудитории показывали больше в кинотеатрах иностранное кино. К 1937 г. реализация указа № 66 привела к тому, что доля иностранных картин, демонстрируемых в кинотеатрах, составила менее половины. Корея не была актор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орговли, поэтому двойное налогообложение Японии, а также торговые правила и повышение цен на фильмы усложняли корейским кинопрокатчикам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показа голливудских кинолент, так полюбившихся за последние десятилетия кинозрителям¹⁰). Отечественная кинопродукция должна была представлять «правильный» продукт — поднимающий боевой, национальный дух наррати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олитике Японской империи.

На заключительном этапе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ов производилось мало. После 1939 г. власти установили строгий контроль над национальным кинопроизводством и встроили его в подконтрольные компании. За пять лет (1940-1945 гг.) свет увидели всего пять корейских мелодрам; экраны заполнили японские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е фильмы, прославлявшие идею «Восемь углов мира под одной крышей», что означало претензию Японии на господство в Азии¹¹). В 1940 г. вышел закон о корейском кино, который узаконивал неравноправное положение корейцев в киноиндустрии. Те, кто сильно хотел стать режиссёром выражали свои мысли в фильмах о детском мире, уходя от взрослого мира цензуры. Одним из таких режиссеров был Чхве Ингю.¹²) В 1942 году все кинокомпании были закрыты, и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 создал новую единственную корейскую

10) Lee Hwajin, “Struggles over foreign films and film culture in wartime colonial Seoul (1937–1941)”, *Journal of Japanese and Korean Cinema* 11 (2018), p. 2-4.

11) Смертин Ю. Г. и Янг Сун Ен, “Становл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инематографа в Корее (начало 1920-х – середина 1930-х гг.)”, *Исторические, философск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и юридические науки, культурология и искусствоведение. Вопросы теории и практики* 4(90) (2018), С. 66.

12) Yomota Inuhiko, *Op. cit.*, p. 119.

кинокомпанию «Тёсон эйга», впоследствии сокращённое название «Тёэй». Из «внутренних провинций» один за другим приезжали японские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ы. Они снимал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фильмы о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используя корейцев в качестве местного штата актёров и помощников. Например, в фильме Тоёда Сиро «Молодая форма» (1943 г.) в качестве продолжения 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восхвалялись корейские школьники, которые уходили на фронт.

Основной контекст был передан, теперь перейдём к анализу фильмов. Во время полномасштабной войны отношения Японии и её колоний остаётся в политике и культуре как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старшим братом и младшим, но в условиях войны 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мобилизации населения на экране показываются примеры героев-корейцев, которых направляет японец. То есть главное противоречие в рамках поднят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японского духа нивелируется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главного героя, кореец тоже может быть военным – вот один из главных нарративов того времени. Перед рассмотрением фильмов поджанра военной драмы нужно охарактеризовать «идеального» героя, который бы совпадал с полити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интоизма, главным нарративом политики Японской империи. В одной из своих статей историк-японист Александр Мещеряков выделяет несколько характеристик, присущих образу такого героя: мужчина, японец, беспартийный, кадровый военный, уроженец деревни или маленького города, выходец из полной семьи, обладатель высоких моральных качеств, основные из которых — преданность императору/родине и готовность к смерти.¹³⁾ Многие черты такого типа персонажа были использованы и в совместном, японо-корейском фильме «Отряд смертников на дозорной вышке».

В фильме «Военный поезд»¹⁴⁾(1938г.) показана жизнь корейского

13) Мещеряков А. Н. “Образ «героя» в Японии во врем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Ежегодник Японии* 49 (2020), С. 273-275.

14) Военный поезд / режиссёр Гвандже Сео. – 1938 г. – Изображение (движущееся; двухмерное): видео.

машиниста в небольшом городе,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важным транспортным узлом в Корее, соединяющий Азию с полуостровом. Фильм снят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стью на корейском, японские реплики звучат лишь в двух последовательных сценах — обращение японского начальника к бригаде машинистов и личное интервью между главным героем Чомён Ким и главой машинистов. Патетические японские речи про пренебрежение эгоизма в пользу японского народа (нихон кокумин) и про важность миссии, возложенной Японской империей на их бригаду, поддерживают настрой вер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машинист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фильма на правой стороне экрана находятся японские субтитры, однако в нескольких диалогах они передают краткую суть разговора, опуская детали. Можно выделить двух персонажей: Ким Чомёна, сторонника японского режима, и сожителя Вонджина, который решает помочь партизанскому движению передать время ночной отправки военного поезда. Вонджин влюбляется в сестру Чомёна Ёнсин, которая работает гейшой, чтобы оплатить обучение старшего брата в Сеуле. После встречи с Вонджином Ёнсин понимает, что она больше не может работать как прежде, но, чтобы уволиться, ей нужно заплатить неподъёмную сумму в 2000 йен. Вонджин встречается с одноклассником, который стал зажиточным землевладельцем и готов помочь старому другу дать нужную сумму безвозвратно. Этому очень рад Вонджин, о чём он делится Чомён с Ёнсин. Но на самом деле его школьный друг — корейский шпион, который согласился дать деньги лишь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онджин передаст сведения о военных поездах. Вонджин крадёт дневник у главного героя, пока тот спит, и передаёт всё шпиону. После такого поступка Вонджина начинает терзать совесть. Вдобавок, главный герой во время уборки рабочего стола в их доме решает прочесть дневник Вонджина, и у Чомёна возникают сомнения. В ночь диверсии Вонджин сознаётся во всём главному герою, и машинисту удаётся предотвратить последствия отчаянного поступка его друга. В конце фильма Чомён должен доставить

необходимые ресурсы на военном поезде, но под него бросается Вонджин. Он оставляет лишь посмертную записку, в которой сожалеет о его проступке и желает, чтобы его дух вечно охранял поезд и все ближайшие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е пути.

Один из главных образов картины – чёрный поезд, который всегда движется. Так как главный герой – патриот Японской империи, а главный управляющий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ного узла,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поезд является олицетворением индустриализованной островной Японии. Этот образ не противопоставляется корейскому пейзажу – он служит вдохновением для светлого будущего корейцев, что будет дальше, если все сплотятся в один такой поезд ради единой цели. Ещё два образа-антипода присутствуют в картине – корейский шпион, который везде преследует главного героя, и верный поданный Японской империи Чомён. Шпион показан в классическом западном костюме, с коварными усами в стиле «карандаш». Такой образ перекликается с образом антагониста из голливудских картин. Чомён же обладает такими чертами, которые 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хотело бы видеть во всех гражданах Кореи: прислушивающийся к японскому начальству, преданный своему делу и империи. Однако это не говорит о проработанном «низшем уровне» фильма, наоборот, корейские образы и символы полностью отсутствуют, всё заменено иностранными заимствованиями. Некоторые элементы, характерные для военного героя описанные выше, есть и у главного героя. Например, он беспартийный мужчина из маленького города, законопослушный и преданный государству. Можно назвать его косвенно военным, так как он постоянно ходит в одной форме, на него в конце становится возложена важная миссия по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е груза для военных нужд, хотя Чомён не участвует в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ях и не служилый. Это важный подход к построению героя, которому могут правда сопереживать жители полуострова – хотя главным героем выбран этнический кореец, с 1910 г. население Кореи считается поданными, гражданами Японии.

Мотив «спасения» в этом фильме присутствует, но он чрезмерно патетичен. Как будто было недостаточно раскаяния Вонджина, нужно было показать, что он «символично» жертвует собой ради защиты железных дорог. Такой конец звучит крайне экстремально, но совпадает с политическим нарративом государства.

В фильме «Волонтёр»¹⁵⁾(1941г.) главный герой Чунху–молодой корейский фермер. Он планировал получить права на поле после смерти землевладельца, но новый управляющий решил передать их другому землевладельцу. Отчаявшись, Чунху отправляется в Кэйдзё (современный Сеул). В столице он видит воодушевляющие лозунги на знамёнах на улицах. Впечатлённый увиденным, оставшись без перспектив в своём небольшом городке, главный герой хочет поехать на войну. Приехав домой, он решает навестить своего японского приятеля. Там Чунху узнаёт из газеты, что начинает действовать система добровольцев для корейцев. Обрадованный этой новостью, он сообщает своей жене о своём решении. Она, смущённая и озадаченная его желанием уехать в начале, поддерживает своего мужа. Чунху садится на поезд и уезжает в горизонте, наполненный решимостью.

Фильм явно был нацелен на аудиторию молодых и несостоявшихся корейцев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на службу. Отображение расслоения общества, где богатые непатриотичные корейцы управляют в городе, а молодые работники и крестьяне не могут найти своего места и им приходится распрощаться с амбициями. Персонаж Чунху показан потерянными в начале, но по ходу сюжета становится радостным и облегченным. Он лоялен стране, выходец из провинциальной семьи, беспартийный. Главный герой, как и в фильме «Военный поезд», не является фактическим отображением всей молодёжи, но больше образом, которым его хочет видеть Японская империя. В итоге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для 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ов на военную тематику

15) Волонтёр / режиссёр Согён Ан. – 1941 г. – Изображение (движущееся; двухмерное): видео.

характерен национально обезличенный герой, который готов посвятить себя службе страны. Цельность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ого нарратива была сохранена, однако символический фон полностью отсутствует – всё сводится к длинным сценам диалога главного героя, его переживания никак не отображаются. Образ «злодеев», корейских зажиточных арендаторов, плоский и фиктивный. «Спасение» можно охарактеризовать в возможности главного героя вырваться из корейского окружения и делать то, что он действительно хочет. Счастливого конца бы не было, если б он решил всё-таки остаться вместе со своей женой и обрабатывать участок земли, выплачивая с него аренду.

Фильм «Отряд смертников на дозорной вышке»¹⁶⁾(1943г.) режиссёра Имаи Тадаси в духе голливудских вестернов повествует о пограничниках, которые служат в горах на границе между Маньчжурией и Кореей. Разбойничья шайка, оторвавшаяся от карательного маньчжурского отряда, планирует захватить поселение с японскими пограничниками и корейскими жителями. Сначала показывается, как все вместе трудятся, чтобы построить стены полицейского участка, а затем вечером отмечают прибытие курсанта на замену. Главные герои – четыре полицейских офицера и начальник Такацу. Примечательна одна из первых сцен, где в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одежде Такацу – зритель ещё не знает, что он является начальником, – вместе с офицерами, вернувшимся со стройки стены полицейского участка, заходит в кабинет. Новоприбывший курсант Асано заходит и докладывает офицеру Кумадзава о своём прибытии. На что офицер, улыбаясь, указал на настоящего начальника, который был одет в необычную для японского военного одежду. Впоследствии, показаны многие моменты адаптации японских офицеров к окружающей корейской среде: офицер Сугияма выучил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для облегчения общения с местным населением, на вечернем пикнике

16) Отряд смертников на дозорной вышке / режиссёр Тадаси Имаи. – 1943 г. – Изображение (движущееся; двухмерное): видео.

офицеры, наслаждаясь корейскими народными песнями, подмечают, что исполнителя не отличить от японца, и т.д. Важным моментом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японцами и корейцами в фильме является смерть корейского офицера Кин от рук китайского бандита. Никто не делает акцент на его происхождении – он был,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оенным, преданным Японским империи. Образ японского военного совпадает с образом корейского военного, так как их идеалы и предыстории совпадают.

Одним из моментов, противоречащим политике культурной ассимиляции, является сцена отдыха главных героев у полицейского участка. Пограничники, корейцы по происхождению, начинают исполнять традиционный танец под овации японских военных. Такая сцена была немыслима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производства, однако режиссёр имел творческую свободу и авторитет. Возможно, в рамках общего посыла – японцы и корейцы как один народ – эта сцена смотрелась органично. Мотив «спасения» в данном фильме присутствует, несмотря на смерть большинства героев, потому что он совпадает с общим посылом о самопожертвовании и благородному служению родине. «Спасение» не было экстремальным, как в фильме «Волонтёр», но японские войска пришли на подмогу в самый важный момент, а деревня была спасена.

Теперь перейдём к рассмотрению фильмов поджанра социальной драмы.

«Плата за обучение»¹⁷⁾ 1940г. был снят режиссёрами Чхве Ингю и Пан Ханджун на киностудии «Горё». Сценарий фильма, написанный Ясутари Яги, является адаптацией рассказа учащегося из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Ву Суёнга из Кванджу, который выиграл приз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ства Тёсэн за лучшую историю.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в Японии годом ранее был снят фильм «Таносики Кэмпэй-кун» режиссёра Ацури Тэруо о жизни школьников. Наивный, но при этом поднимающий важную тему издевательства (идзимэ) был тепло воспринят зрителями Японии, что

17) Плата за обучение / режиссёр Чхве Ингю. – 1940 г. – Изображение (движущееся; двухмерное): видео.

своего рода заложило основу для создания целого жанра, просуществовавшего несколько лет из-за ужесточения цензуры. Фильм «Плата за обучение» можно причислить к этому жанру, так как через отображение жизни детей поднимаются остросоциальные темы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По словам режиссёра Чхве Ингю он пытался показать тяжелое положение населения полуострова вне города, в частности высокую плату за обучение, но глава производства дал точку зрения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а на эту проблему.¹⁸⁾ Сюжет можно разделить на несколько сюжетных веток, но для разбора идеологическ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остановимся на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главным героем и школой.

Фильм начинается во дворе школы, где ученик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Ёндаль затевает разборку с одноклассницей Чонхи, но тут начинается занятие, и они возвращаются в школу. Общение школьников между собой и с учителем происходит полностью на японском, однако за пределами школы они говорят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Ёндаль живёт с бабушкой, собирающей мусор, очень бедно. Они уже просрочили плату за обучение на 6 месяцев, потому что письмо от его родителей до сих пор не приходило. Но кроме этого у бабушки не хватает денег заплатить арендатору за хижину, в которой они живут. Однако Ёндаль всегда полон энергии и открыт к новым знаниям. За его смекалку в классе считают умным, можно даже сказать достойным обучения, примером для подражания. Но вот срок оплаты проходит, а письма, как и денег нет. Даже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он не может посещать занятия, Ёндаль продолжает заниматься по учебнику. Одноклассники во главе с Чонхи решают собрать денег для своего друга. Одновременно с этим обеспокоенный японский учитель навещает жилище Ёндаля и решает пожертвовать деньги слёгшей в постели из-за изнурительной работы бабушке. По пути в школу для оплаты обучения обрадованный школьник встречает арендатора и решает отдать эти деньги ему.

18) «Плата за обучение», Архив 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ов. URL: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142>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1.10.2025)

Оставшись опять без денег, кажется, Ёндаль уже не сможет пойти в школу, однако бабушка поручает своему внуку поехать за деньгами к тётке в Пхёнтхэк. Из Сувона, где живёт главный герой, Ёндаль отправляется в долгое пешее путешествие, но он пытается не унывать, полон решимости. Когда он всё-таки добирается в Пхёнтхэк, его тётка даёт ему денег не только на обучение, но и на дорогу, а также мешок риса. Ёндаль возвращается домой, и тут приходит письмо от родителей, что с ними теперь всё хорошо, и они передают деньги. В конце фильма сами родители приезжают в Сувон, счастливый конец.

При изучении фильма важно отметить «визитные карточки» японского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ого кино: история о неудачном вторжении монголов или нарратив «камикадзе» и военные песни. Так, например, Ёндаль, находясь на вынужденном самообучении, выразительно читает текст о том, как войны Кюсю и Сикоку собираются в городе Хаката, чтобы отразить высадку монгол. А потом, во время путешествия в Пхёнтэк он напевает об отважном солдате и его лошади. Во время обучения в школе есть сцена «научного» класса, где дети выходят на поле и делают заметки о созревании огурцов. Примечательна одна реплика из уст учителя: «Цветок огурца поддерживает себя, чтобы не упасть». Относительно событий фильма, эта метафора отсылает к невероятной заботе со стороны учителя и одноклассников Ёндаля, которые решают жертвовать в «Коробку дружбы» деньги для учеников, родители которых не могут вовремя заплатить. Образ японского учителя не отражает самодовольного, властного японск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напротив, вне своей школы ему неудобно находится в окружении корейцев, ведь он сам не знает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Он выглядит немного смущённым и отчуждённым, но при этом добросердечным и понимающим, эмпатичным. В таком контексте японец выглядит человечным и слабым, чем знающим, как нужно всё делать, и сильным. Возможно, поэтому в картине есть пара сцен, где учитель гуляет со старшей сестрой одного из своих учеников – явная

романтическая линия, которая не раскрывается. Несмотря на политику «культурной ассимиляции» в конце фильма присутствует сцена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в традиционн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стюмах, поэтому в фильме, несмотря на очевидные идеологические элементы, есть «корейское» содержание – показаны реальные соци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на селе, такие как бедность и голод, важность родственных уз, традиционная корейская одежда в деревне, танцы – по правилам производства япо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артина действует внутри рамки, сохраняя драматизм на уровне характерного для мелодрам жанра с счастливым концом. Если анализировать высший и низший уровень, то можно выделить цельность социального нарратива аккуратно до его встречи с тётёй. С техничес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тяжел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такую архивную работу объективно, можно сказать о статичном построении сцен без частых пролётов камеры. Есть несколько общих планов, которые запоминаются положением актёров в кадре, например, сцена мытья белья корейкам, рядом с которыми проходит бабушка Ёндаля. Но фильм не ставит целью поставить запоминающийся визуальный ряд. Можно говорить о таком же ярком «спасении» в этом фильме, как и в «Волонтёре», когда не просто ситуация решается сама собой, так она ещё доводится до крайности – родители, целые и здоровые, приезжают встречать Ёндаля.

Фильм «Бездомный ангел»¹⁹(1941г.) режиссёра Чхве Ингю продолжает развивать тему ребёнка из бедных слоёв. Теперь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режиссёра были сироты. Однако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фильма внимание всё же смещается на учителя Мана, который организует приют-интернат. Сначала история повествует о беспризорники-корейце Рёкити из столицы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ства Кореи Кэйдзё, который вместе со своей старшей сестрой продаёт на разнос букеты цветов.

19) Бездомный ангел / режиссёр Чхве Ингю. – 1941 г. – Изображение (движущееся; двухмерное): видео.

Они зашли в ресторан, однако никто не замечает детей кроме пьяного врача, который решает дать денег сиротам, но не требует ничего взамен. Характерно, что за соседним столиком говорят корейцы в костюмах на японском, осуждая доктора за пьянство и детей, однако наглая девушка с этого столика на выходе забрала букет, ведь его оплатили. Рёкити по дороге домой за эти деньги покупает у уличного продавца вещь, не понятно, что именно из-за урезанной сцены. Дети, вернувшись домой, встретили местную мафию, которая решает наказать Рёкити и отчитывает старшую сестру. Её брат сбегает и на улице, избитый другими ребятами, его встречает учитель Ман. Он приводит его к себе домой и знакомит с другими сиротами.

Учитель потом идёт договариваться к своему брату, врачу по профессии, чтобы тот выделил место для приюта, так как дома у него мало места. Тогда брат предлагает ему амбар у озера, который должны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достроить, хотя и настороженно относиться к идее приюта, так как беспризорники вели маргинальную жизнь, и он не верит, что их получится перевоспитать. Его сомнения оправдываются, когда один из сирот Мана крадёт его туфли, однако полицейский приводит и отчитывает ребёнка, который уже практически договорился продать обувь. После заселения в амбаре все ребята дружно трудятся, чтобы обустроить место для жизни, однако не все считают, что приют учителя хорошее место, и двое ребят планируют вернуться в столицу, чтобы продолжить уличную жизнь. Здесь проявляется «ангельская» натура Рёкити, который пытается их остановить: двое ребят отплывают на лодке, но Рёкити, пытаясь удержать её у берега, тонет у побережья. Его бывшие друзья достают его из воды и остаются в приюте. Состояние здоровья Рёкити критическое, он не приходит в сознание, из-за чего учитель решает обратиться за помощью к брату.

Оказывается, что пьяный врач в начале фильма является братом учителя. Сестра Рёкити пыталась найти своего брата, но тщетно. Тогда в один из дней, пытаясь продать цветы в ресторане, она опять

встретила врача, который предложил ей работать медсестрой у себя, пока она не найдёт своего брата. После вызова за помощью врач берёт с собой и её, однако за ними увязывается местная мафия, которая недовольна уходом сестры Рёкити из криминального подполья. Врач спасает Рёкити, сестра соединяется с братом, а члены банды нападают на приют учителя. У них не получается забрать насильно сестру – деревянный мост, по которому они пытаются сбежать, ломается, и они падают, получая увечья. Врач помогает забинтовать их ушибы, но они всё ещё не хотят уходить без своего. В это же время было построение всех ребят у флагштока с развивающимся японским флагом, где ребята маршируют и выкрикивают «устав» своего приюта. Затем на фоне флага врач пафосно рассказывает о своём выдающемся брате учителе Ман, который смог «правильно» воспитать подрастающее поколение, и он понял, что зря сомневался в нём. От такой речи бандиты жертвуют деньги приюту и уплывают на лодке.

О последней сцене фильма было неизвестно, так как в косвенных материалах (обзорах, плакатах и т. д.) она не была упомянута. Только в 2004 г. удалось обнаружить киноленту.²⁰⁾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заключительной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сцены, события картины отображают действите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дел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проблема сирот, пытающихся выжить на улице, усиление местных городских банд. Пафосные речи и заигрывание с идеологией скорее пытаются подчеркнуть в конце картины оторванность реальности от того, что желают видеть в государстве. Фильм соответствует своей жанров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окончательное мнение режиссёра скрывается за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концовкой фильма. Высший уровень тяжело оценить из-за плохого качества киноленты, а основываясь на том, что есть, можно сказать о неплохой операторской работе, и связным нарративом картины кроме счастливого конца. В фильме Чхве Ингю присутствует

20) “Бездомный ангел”, Архив 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ов. URL: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148>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1.10.2025)

нарочитый мотив «спасения», который выбивается из общего повествования картины.

Фильм «Весн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²¹⁾ 1941 г. является дебютной лентой Ли Ёныля про эпизод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евушки Ким Чжунхи, которая хочет устроиться в киноиндустрию. Её советует друг брата Ли Ёныль продюсеру, из-за чего она получает должность секретарши. Описываем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контекст кинопроизводства в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стве Кореи в научных работах, приведенных выше, противоположен всему, что показано в этом фильме. Открывающая сцена фильм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фрагмент из исторической драмы, где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янбан заходит к девушке, играющей на музыкальном инструменте. Съёмка такого фильма была бы невозможна, так как фильм апеллировал к национальной истории Чосона, а не Японии. Но вот камера отдаляется и оказывается, что это эпизод из съёмочного процесса, а не историческая драма. Так фильм переходит к главному повествованию о девушке Ким, которая заменяет своенравную актрису Анну во время съёмок исторической драмы. Режиссёру требуются ещё деньги для завершения фильма, но продюсер, кореец в деловом костюме, отказывается давать больше. Поэтому Ли Ёныль, один из друзей режиссёра, решает занять большую сумму денег, не рассчитывая её вернуть. Его ловит полиция и здесь разворачивается любовный треугольник. Ким Чёнхи и Анна влюблены в него. В то время как Ким переживает за него, но не решается получить денег от злодея-продюсера в обмен на женитьбу с ним, Анна платит залог в полицию и Ли отпускают. После выхода из полицейского участка Анна настаивает, чтобы заболевший в камере Ли остался у неё в доме, пока не выздоровеет, на что он соглашается. Не оповестив никого из друзей, он гостит у неё до премьеры фильма, где Ким исполняет главную роль. Когда она увидела его вместе с Анной в

21) Весн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режиссёр Ли Ёныль. – 1941 г. – Изображение (движущееся; двухмерное): видео.

зале, то после исполнения корейской песни, он теряет сознание и её относят в личную комнату. Туда же подходят Ли и Анна. В итоге, Ли выбирает Ким и уезжает с ней на поезде, а Анна, хотя и ревнуя, рада за счастливый выбор своего возлюбленного.

Отображение жизни творческ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и, например, любовные интриги и тяжелый рабочий процесс, считаются редакторами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архива правдоподобными, ведь до обнаружение данной картины в 2005 г. информация о быте членов кинопроизводства была косвенной²²). Например, в комнате у Ли висит свиток с иероглифами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а с другой – шкаф, наполненный книжками. Сожительница Ким вешает над стеной икону Божией Матери, а во время отдыха съёмочной команды дома у режиссёра висят плакаты американских и немецких фильмов. Стоит выделить лишь заседание для образования новой киностудии, где японски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говорит о едином корейском и японском народе.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фильм не является авторским и там присутствует элемент спасения, «визитные карточки» милитаризма также отсутствуют. Среди всей подборки фильмов этот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близким к мелодрамам симпха из-за своей любовной линии.

Влияние колон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Японии стало ощутимо действовать во всех сферах общества, включая кинематограф, после захвата Маньчжурии в 1932 г. Несмотря на оккупацию, в корейском кино были режиссёры, стремившиеся отразить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рейский дух. Однако уже в 1930-е гг. начался контроль за дистрибуцией киноплёнок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начались притеснения деятелей, которые были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олуострова. Уже к концу 1930-х гг. активно стало внедряться японо-корейск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а темы войны и долга настоящего поданного империи.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правления в 1945 году в Корее сразу же возобновилось

22) “Весн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Архив 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ов. URL: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151>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1.10.2025)

кинопроизводство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Чхве Ингю выпустил фильм «Да здравствует свобода» (1946 г.) в честь первой годовщины освобождения страны, после чего последовала длинная череда антияпонских фильмов. В оккупированной советскими войскам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ервым снятым фильмом была "Моя родина" Кан Хонсику (1948 г.). Южная Корея долгое время существовала как одна из немногих стран в мире, где официально не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сь японские фильмы (запрет был снят в 1998 г.). Влияние японских фильмов по-прежнему проникает во все аспекты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а количеству ремейков нет конца. Напротив, в японской киноиндустрии корейцы, живущие в Японии, составляют удивительно большую долю актеров и звезд, и через их образы японцы определяли стандарты красоты того времен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военного века.

참고문헌

1. “Бездомный ангел”, Архив 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ов. URL: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148>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1.10.2025).
2. Бездомный ангел / режиссёр Чхве Ингю. – 1941 г. – Изображение (движущееся; двухмерное): видео.
3. “Весн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Архив 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ов. URL: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151>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1.10.2025).
4. Весн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режиссёр Ли Бёньль. – 1941 г. – Изображение (движущееся; двухмерное): видео.
5. Военный поезд / режиссёр Гвандже Сео. – 1938 г. – Изображение (движущееся; двухмерное): видео.
6. Волонтер / режиссёр Согён Ан. – 1941 г. – Изображение (движущееся; двухмерное): видео.
7. Мещеряков А. Н. “Образ «героя» в Японии во врем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Ежегодник Японии*, 49, 2020.
8. Отряд смертников на дозорной вышке / режиссёр Тадаси Иман. – 1943 г. – Изображение (движущееся; двухмерное): видео.
9. “Плата за обучение”, Архив 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ов. URL: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142> (Дата обращения: 01.10.2025).
10. Плата за обучение / режиссёр Чхве Ингю. – 1940 г. – Изображение (движущееся; двухмерное): видео.
11. Подорога В. А. *Кинематограф. Сновидение. Психоанализ. Курс лекций для МШНК*, М: Москов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зд. Das Esseintes Press, 2025.
12. Смертин Ю. Г. и Янг Сун Ен, “Становл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инематографа в Корее (начало 1920-х – середина 1930-х гг.)”, *Исторические, философск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и юридические науки, культурология и искусствоведение. Вопросы теории и практики*, 4(90), 2018.

13. An Ni, *Senjika Nihon Eiga Koushou Shi [History of Japanese cinema in discussions during the War]*, Tokyo, 2010.
14. Baskett M. *The Attractive Empire: Transnational Film Culture in Imperial Japan*,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8.
15. Lee Hwajin, "Struggles over foreign films and film culture in wartime colonial Seoul (1937–1941)", *Journal of Japanese and Korean Cinema* 11, 2018.
16. Min Eungjun, Joe Jinsook, and Han Ju Kwak, *Korean Film. History, Resistance, and Democratic Imagination*, L.: Praeger, 2003.
17. Rhee Jooyeon, "Manifestation of 'Japanese Spirit' in Wartime Japan: Focusing on Images of Women in Films, The New Earth and the Suicide Troops of the Watchtower",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5, 2008.
18. Yecies Brian M. and Shim Ae-Gyung, "Lost Memories of Korean Cinema: Film Policy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1919-1937", *Asian Cinema* 14(2), 2003.
19. Yomota Inuhiko, *Nihon Eiga Shi 110 Nen [History of Japanese Cinema in 110 years]*, Tokyo, 2014.

Abstract**The Influence of the Militarism Ideology on the
Narrative of Korean Dramas (1937-1945)**

Demikhov, A. O.
(Kuban State University)

The article examines the Korean cinema of the period of the Sino-Japanese War (1937-1945) as an instrument of ideological influence and a form of cultural resistance. The article analyzes the transformation of film production under the influence of the policy of “cultural assimilation”, censorship and propaganda. Structural analysis of films consists of V. A. Podoroga’s concepts of “frame” and “escape”. The concepts of “war drama” and “social drama” are introduced to separate the subgenres of the Korean drama “simpkha”. Using the example of the films *Military Train* (1938), *Volunteer* (1941), *Tuition* (1940), *Homeless Angel* (1941), *Spring on the Korean Peninsula* (1941), *Suicide Squad on the Watchtower* (1943), propaganda elements are revealed,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an “ideal hero” loyal to the empire, and the use of historical narratives. In summary,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even under censorship, Korean directors retained elements of national identity, and after 1945, the theme of liberation became dominant in the cinema of both parts of Korea.

Key words : Chosen, Cinema, World War II, Ideology

Русск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и олимпийская дипломатия

А. Н. Измайлова*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외교와 '소프트 파워'의 일환으로서 올림픽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러시아와 대한민국 간 협력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포츠 경기들은, 다른 경우라면 공통점이 거의 없었을 국가 대표자들 간의 더 긴밀한 접촉을 가능하게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소련과 대한민국 사이에 외교 관계가 수립된 사실을 들 수 있다. 양국 모두 양극체제 하에서 국가 간 접촉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올림픽 참가를 대외정책 수행의 한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과 러시아 문화의 상호작용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대화를 바탕으로 러시아와 대한민국은 협력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창출하기 시작했다. 양국 협력에는 더 활성화된 시기와 침체가 교차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특히 소치 동계올림픽(2014)에서 평창 동계올림픽(2018)까지의 올림픽 사이 기간에 교류가 크게 고조되었다. 대한민국이 러시아 선수들의 중립 신분 참가를 지지하고,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사실은 양국 간 관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주제어 : 올림픽, 대한민국, 러시아, 소프트 파워, 국제관계
2014 소치 동계올림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 쿠반국립대학교 해외지역학·동방학과 강사, izmaylova_nast@mail.ru

I. Введение

«Быстрее, выше, сильнее – вместе» – обновленный лозунг, в полной мере отражающий роль олимпи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Объединяющая миссия олимпизма реализовывалась с самого возрождения традиции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1896 г., однако в XXI в. на передний план вышли новые трудности. Если в XX в. Олимпиады становились факторами кооперации стран вне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то в 2020 г. олимпизм столкнулся с новым испытанием – пандемия вируса COVID-19.

Олимпийское движение выступает частью спортивной дипломатии и «мягкой силы». Согласно труду Дж. Ная-младшего¹⁾ – специалиста в област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 она выражается через возможность достигать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целей путем непрямого воздействия, через экономическое, культурное и социаль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том числе через спорт.

Спортивная дипломатия является действен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литике, которая помогает урегулировать конфликты, дает выход агрессии и представляет так называемую «войну без стрельбы». Благодаря спорту смягчаются конфликты внутри социальных групп и между ними, а также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противоречия. Примечательная и другая функция спорта: соревнования способствуют более тесному контакту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зных государств, которые в ином случае имели бы мало общего.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дипломатии – использование атлетов для продвижения полит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и культурных ценностей, поскольку известные спортсмены имеют кредит доверия и могут выступать в роли миротворцев²⁾.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стязаниях государства, не имевшие прямых

1) Nye J. S.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Affairs, 2004), p. 191

2) Gargalianos D. "Sport Diplomacy", Naskou-Perraki P.(ed.) *Contemporary Diplomatic and Consular Relations* (Springer, 2025), p. 167–168.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контактов, могли выстраивать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вне политического контекста, что повышает уровень доверия и содействует дальнейшему построению конструктивны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Именно в контексте «мягкой силы» мы можем провести глубокий анализ значимости олимпизма как средства установл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Так мы можем проследить зарожден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связей между государствами, истоки которых восходят к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в ходе Олимпиад. Этот феномен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уникальную модель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политическ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диалога на глобальном уровне. Показательный пример – становл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ССР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сле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1988 г.: в силу различ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систем, государства фактически не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ли. Лишь после участия сборной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Сеульской Олимпиаде начались переговоры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государств мы можем отметить более активные периоды и спады, однако с 1990 г. Россия и Южная Корея поддерживают официальны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Рассмотрев политический фон, проекты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фере,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а также инициативы лидеров правительств, мы раскроем значимость олимпийского фактора в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II. Спортивный курс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России

Дл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портивная дипломатия – сформировавшаяся система, призванная к содействию изменениям во внутренней 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Так называемая «спортивная республика» периода правления Чон Духвана (1980–1988 гг.) использовала спорт и достижения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как способ поднят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духа³⁾, в то время как основоположником современного

спорта Южной Кореи можно считать Пак Чонхи (1963–1979гг.), его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а.

В настоящий период МИД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ыделяет спортивную дипломатию как средство установления и укрепления дружественных контактов и повыш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авторитета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⁴). Спортивная дипломатия реализуется через широкую сеть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портивных обменов и проведение крупных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Из видов спорта, отмеченных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ак вносящих особый вклад в укрепление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имиджа государства и обладающих потенциалом дл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одвижения, выделяют тхэквондо как национальное боевое искусство, хоккей и киберспорт.

Спорт является объединяющим механизмом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народа России, равно как и средством предст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диалоге. В советский период спортивные победы страны были напрямую связаны с ее положением на мировой арене, поскольку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едставлялись способом вести «войну без стрельбы» между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ими 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В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документе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⁵) спортивные достижения страны обозначены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факторов «мягкой силы», помогающим устанавливать и укреплять международ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ыражать дружественный посыл России и формировать её позитивный образ в мировом сообществе.

В стратегии О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России от 2022 г. кроме

3) Бриджес Б.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в Сеул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чудо встречает мир», Кузнецова З. М. (общ. ред.) *Наследие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М.: ФЛИНТА, 2014), С. 143.

4) “Sport Public diplomac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URL: https://www.mofa.go.kr/eng/wpge/m_22828/contents.do (Accessed 18.09.2025).

5)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ерждена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В. Путиным 31 марта 2023г.)”,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URL: <https://www.mid.ru/ru/detail-material-page/1860586/>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6.09.2025).

устоявшихся положений о миротворческой силе спорта и следования олимпийским идеалам дружбы, уважения и стремления к совершенству, а также соблюдения принципов честной игры в условиях меняющегося спортивного мира, представлен ряд трудностей, с которыми столкнулся спорт высших достижений в стране.⁶⁾ Следует выделить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е любым формам дискримин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атлетов, более тес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вопросах правовой поддержки, защиту прав атлетов и реализацию спортивных достижений, несмотря на строгие санкции.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этапе для обоих государств спортивная дипломатия служит средство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позитивного влияния на мировой арене. Популяризируется массовый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спорт, национальные сборные имеют весомо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стязаниях. Однако атлеты из России подверглись ограничениям на участие в чемпионатах ввиду допингового скандала, в связи с чем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 спортивной политике уделяется обеспечению участия спортсменов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III Присоединение к олимпийскому движению и Олимпиада в Москве 1980 г.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Кореей и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ей были установлены в XIXв. Вскоре контакты были прерваны. Со стороны России, это было связано с поражением в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е 1904–1905 гг. и слож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ой начала XX в. Со стороны Кореи – ее аннексии Японией. По итогам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страны не восстановил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связей: образованный СССР был сконцентрирован на решении внутренних проблем, а Корея

6) *Стратегия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союза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Олимпийский комитет России» до 2028 года* (М., 2022). URL: <https://olympic.ru/wp-content/uploads/2023/09/2022-12-07-Strategiya-2028-UTVERZHDENO.pdf>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8.09.2025).

не являлась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находясь под контролем Японии. Посл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 последовавшей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1950–1953 гг. между Севером и Югом, территория Севера, где образовалась КНДР, оказалась под контролем СССР, Юг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 США и Японии. Так следующие годы страны развивались независимо и не поддерживали политических контактов ввиду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и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х ценностей.

Многие ученые одной из причин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ССР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ыделяют взаимную экономическую выгоду. Тем не менее, нельзя не отметить, что отношения с Южной Кореей заметно изменились после Лет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Сеуле 1988 г. Именно тогда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как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страны, впервые «узнали» Корею, которая долгое время оставалась закрытой.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как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впервые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олимпийском движении в 1948 г., в то время как в послевоенный период СССР принял участие только в Играх 1952 г. В случае обоих государств участие в Олимпиадах являлось одним из способов проведения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в силу ограниченности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нтактов в условиях биполярного мира. По той же причине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е посетила Московскую Олимпиаду 1980 г.

Время показало, что бойкот Игр 1980 г., как и ответный бойкот Игр 1984 г., не оказали воздействия на полит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СССР не вывел войска из Афганистана,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идеологий лишь усилилось. Эти события считаются показательным примером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в период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и, вне сомнений, негативным наследием Олимпиады. Но к чему это привело? Томас Бах, покинувший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МОК летом 2025 г., в 1980 г. был одним из немецких атлетов, которые не смогли участвовать в олимпиаде. Из его интервью к 40-летию после Игр в Москве:

«Бойкот Московской Олимпиады не привел ни к чему. И это

признали позже многие участники. <...> В результате мы имеем два поколения атлетов, которые тренировались много лет, но упустили свою олимпийскую мечту. Они подверглись наказанию за то, к чему не имели отношения, и что они никогда бы не поддержали. Поэтому все те, кто рассматривают бойкотирование Игр, должны усвоить исторический урок: спортивный бойкот не дает ничего. Он лишь вредит атлетам, вредит и населению страны, поскольку они теряют радость, которую могут разделить, и гордость за успех олимпийской команды». ⁷⁾

Вследствие различных идеологий и доминирования биполярной системы Олимпиада в Москве не стала связующим фактором для установления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их контактов. В противовес контактам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СССР поддерживал отношения с КНДР, которая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Играх 1980 г. Однако к концу 1980-х годов устоявшаяся система стала претерпевать изменения, что открыло возможности к расширению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связей как СССР, так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IV. Олимпиада в Сеуле 1988 г. и установление контактов

Игры 1988 г.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тали первыми, проведенными вне политических рамок: в ответ на бойкоты Игр 1980 г. и 1984 г. Международный олимпийский комитет (МОК) выбрал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Южную Корею, в которой активно шли процессы демократизации. ⁸⁾ После ряда политических переворотов накануне

7) "IOC President Thomas Bach reflects on the boycott of the Olympic Games Moscow 1980 40 years later",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17 July 2020. URL: <https://www.olympics.com/ioc/news/ioc-president-thomas-bach-reflects-on-the-boycott-of-the-olympic-games-moscow-1980-40-years-later> (Accessed 14.06.2025).

8) Duckworth A. *International Security and the Olympic Games, 1972–2020* (Cham: Palgrave Macmillan, 2022), p. 104.

Олимпиады была основана Шестая республика, характеризующаяся выбор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властью, она существует до сих пор.

После немногочислен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стран на предшествующих Играх и парад олимпийцев, и совместное участие в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тия подчеркивали снятие противоречий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Олимпиада «вне барьеров» запомнилась как символ единства стран и достижения олимпийского духа, она объединила государства через идеи олимпизма: мир, дружба и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Всеобщие ценности получили отражения в спортивных достижениях, установлении меж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начал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атлетами и други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государств. Политически верное решение МОК послужило способом снятия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Так МОК доказал, что олимпизм способен выступить инструментом преодоления разногласий и стабилизации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рошедших Игр дал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выхода из 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акуума: в постолимпийский период правительство заключило множество договоров об экономическом и полит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К их числу относится переосмысл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Советским Союзом и дальнейшее установлен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связей в 1990 г. Расширение сети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нтактов повысило уровень политическ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и статус Шестой Республики.

После ухода от сложившейся в послевоенный период практики разделения контактов по политическим соображениям, паттерн, где СССР сотрудничал только с КНДР в противовес альянсу США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ыл изменен. Это связано с интересами двух стран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х кризисов,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экологических катастроф. Перестройка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последовала за уходом от позиций биполярного мира и переходом к современной многополюсной дипломатии. Становлен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государств совпадает с общей перестройкой системы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тактов: СССР, а в последствии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модифицировал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е курсы вне устоявшихся стереотипов.

В течение времени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корейской и российской культур было достаточно активным.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диалогу Россия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тали продуктивно налажи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оздавать совместные проекты. Знакомство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ной традицией в ходе олимпий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ткрыло больше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Продолжение политики на сближение относится ко времени президентства Ким Дэчжуна (1998–2003).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В. В. Путина (2000–2008) стремилась наладить баланс в отношениях с Корейским полуостровом: от норма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с Пхеньяном в период перестройки в СССР до заключения новых контактов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Обе страны проводили мирны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курс, российская сторона поддерживала принцип невмешательства в межкорейский диалог и выступала за безъядерный статус полуострова.⁹⁾

В 2010 г. страны отмечали 20-лети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честь чего впервые был проведен открытый форум гражданских обществ «Диалог Россия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ДРПК)¹⁰⁾ для обсуждения текущих вопросов и реализации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диалога. Инициатором выступил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Мёнбак (2008–2013): такой формат благоприятствовал расширению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К 2025 г. деятельность форума охватывает политическую и экономическую тематику, содействует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у обмену и совместным научным программам. Основной же деятельностью остается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ов в культурной сфере.

9) Ланцова И. С. “Эволюция отношен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т первых контактов к интеграционным проектам”, *Евразийская интеграция: экономика, право, политика* 18 (2015), С. 142.

10) “О форуме”, Диалог Россия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URL: <https://drk.ru/o-forume/>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6.09.2025).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пик продуктив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контактов на рубеже XX в. и XXI в. Главы правительств стремились к расширени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риоритеты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заметно отличаются: от поддержки КНДР до установления многосторонних связей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 свою очередь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тошло от приоритетности американ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к установлению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контактов с друг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Этому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Сеульские игры, которые заложили основу разносторонних договоров со странами-участниками Олимпиады, в том числе – с СССР, а затем и с Россией.

V. Олимпиады в Сочи 2014 г. и Пхёнчхане 2018 г.

Вторыми Олимпийскими играми для обеих стран стали Зимние Игры, что накладывало определенные трудности. Вопреки сложностям проведения, Игры в Сочи 2014 г. и Пхёнчхане 2018 г. доказали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развития государств.

В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предолимпийский период мы можем охарактеризовать как период охлаждения контактов. Причиной этому являлись последствия миров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кризиса.

Дл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воевание права проведения Олимпиады 2014 г. в Сочи отождествлялось с возвращением страны в число ведущих держав. Репрезентативность Сочинской олимпиады доказала состоятельность российской политики в вопросах экономики,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Безупреч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толь масштабного события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компетентный подход ко всем сферам внутренней 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от развития городской и спортив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решения вопросов экологии до многопланов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¹¹⁾. Несмотря на

11) Воинов Д. Е. “Мягкая сила» Игр «Сочи-2014» и зарубежные медиа: анализ

провоцируемые конфликты и попытки бойкота, Игры состоялись, что показало уровень «мягкой силы» олимпи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и устойчивый позитивный имидж страны.

На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тия Сочинской олимпиады Россия передала эстафету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Если при организации Игр в 1988 г. корейцы обращали внимание на опыт Олимпиады в Токио–1964, то в этот раз они равнялись на Зимние игры в Сочи. Потребовалис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усилия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ы в виду меньшей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сти эт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в стране. Традиционные спортивные дисциплины, в которых доминируют атлет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большей части относятся к программе Летних игр¹²⁾. Кроме того, Игры в Сочи установили высокую планку. В рамках олимпизма Игры в Соч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уровень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т поддержки при организации до передачи опыта реализации зимних состязаний.

При организации Игр в Сочи планировалось превратить город в многопрофильный курорт. Благоприятный климат региона позволил реализовать амбициозные планы по созданию современного горноклиматического и бальнеолог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Успешное проведение Олимпиады открыло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звития города. Уже в 2015 г. Сочи принял этап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Формулы-1»¹³⁾, что стало важным шагом в диверсификации спортивного календаря города. Пхёнчхан уже становился площадкой дл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обновленные к Играм спортивные комплексы привлекли большее внимание туристов.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преимуществом региона стало богатое 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в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находятся

политико-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фона 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Вестник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рия 25.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и мировая политика* 2 (2015), С. 179.

12) Талызов С. Н. “Корейская модель управления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спортом”, *Физ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Спорт. Туризм. Двигательная рекреация* 4 (2016), С. 102.

13) ГАКК. Ф. Р-1950. Оп. 4. Д. 273. С. 12–16.

знаменитые буддийские храмы,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ляют интерес для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ба города сумели выйти за рамки исключительно спортивной специализации и создать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е условия для развития различных видов туризма.

Ким Джинсун, глава оргкомитета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 Пара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Пхёнчхане, в интервью для Вестника Россий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лимпий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отметил уникальный посыл России: на Играх 2014 г. она позиционировала себя и как Европу, и как Азию. Он особо отметил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готовности России к проведению мероприятия такого грандиозного масштаба. В свою очередь Ким Джинсун добавил, что Пхёнчхан будет стремиться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потенциал Азии, открытой для новых возможностей»¹⁴⁾ и выдвинуть на первый план вопросы береж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е и продвижения высоких гуманистических ценностей во имя мира. Здесь мы наблюдаем преемственность концепций двух Олимпиад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так как Игры в Сеуле позиционировались международным сообществом как Олимпиада «вне границ» деления на капитализм и социализм.

Игры в Пхёнчхане обсуждались и на Восточ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ме 2017 г., где традиционно встречаю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резидент Мун Джэин лично пригласил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В. Путина на открытие Олимпиады.¹⁵⁾ Однако накануне соревнований спортивный мир захлестнул допинговый скандал: начиная с отстранения от участия в Играх и друг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части титулованных российских атлетов до запрета российской сборной выступать под национальным флагом.

14) Ким Ч. “Организация работы над столь масштабным проектом, как Сочи-2014, впечатляет”, *Вестник Россий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лимпий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2-3 (2013) С. 35.

15) “Заявления для прессы по итогам переговоров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ом”,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6 сентября 2017 г. URL: <http://kremlin.ru/catalog/countries/KR/events/55541>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9.09.2025).

Последствия скандала оказались разрушительными для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ситуации. Для спортсменов, годами готовившихся к главному старту своей карьеры, это стало настоящей трагедией, разрушив их олимпийские мечты. Авторитет МОК серьёзно пошатнулся, поскольку решение о допуске российских атлетов в нейтральном статусе вызвало резкую критику и несогласие со стороны ряда национальных олимпийских комитетов¹⁶). Для о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России (ОКР) измененный состав сборной не позволил побороться за большее число медалей, что могло послужить неким укреплением статуса на фоне показательной антидопинговой политики со стороны Всемирного антидопингового агентства (ВАД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атлеты из России могут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участие в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 качестве нейтраль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и при соблюдении целого ряда строгих условий.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российские атлеты были вынуждены выступать на Олимпиаде-2018 под нейтральным флагом, организаторы Игр проявил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подход и выразили твёрдую уверенность в том, что спортивные состязания послужат важным мостом для развития друже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Россией¹⁷). Пхёнчханские Игры стали не просто спортивным событием, но и площадкой дл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иалога, где превалировала атмосфера взаимоуважения и стремления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чёркивали, что олимпийские принципы единства и мира должны превалировать над политическими разногласиями, а спорт остается той сферой, где страны могут находить общий язык и укреплять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вязи.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вместно с

16) Вайцеховская Е. С.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Очень личное* (М., 2018), С. 459–462.

17) Рахновская К. “«Сеул уважает и приветствует позицию Москвы»: Южная Корея призвала росси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приехать на Олимпиаду”, RT на русском. 7 декабря 2017 г. URL: <https://russian.rt.com/sport/article/457350-yuzhnaya-koreya-rossiya-sportsmeny>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8.09.2025).

Союзом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ов РФ в рамках «Года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в России» организовал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кино в поддержку росси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на Олимпиаде в Пхёнчхане. В программ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4 фильма, все они были показаны на языке оригинала с русскими субтитрами.¹⁸⁾ Поскольку дубляж фильмов менее популярен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российская сторона решила последовать традиционному для Кореи показу иностранных фильмов с субтитрами. Ответной акцией стала неделя российского кино в Сеуле в сентябре 2018 г.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8 кинолент XX–XXI вв., в том числе – детская анимация.

Создание национальных «домов» стран-участниц – относительно новая практика на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позволяющая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часть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всем странам, принимающим участие в Играх. Олимпиады, как феномен глобального масштаба, традиционно выступают в роли катализатора кросс-культурного диалога и обмена, что особенно ярко проявляется в контексте орган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ных павильонов.

Организац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домов» позволяет не тольк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уникальность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каждой страны-участницы, но и способствует формированию более глубокого понимания и уважения к многообразию мировых культур. Этот процесс мож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важный элемент культурной дипломатии, способствующий укреплению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вязей 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на глобальном уровне. Выступление атлетов России под флагом МОК не позволило организовать «Русский дом» в олимпийской деревне. Тем не менее, благодаря фонду поддержки олимпийцев, в Пхёнчхане был открыт «Дом спорта» вместо «Русского дома»¹⁹⁾, что доказывает

18) «Корейское спортивное кино покажут в поддержку россиян на Олимпиаде 2018», Киноафиша. 24 января 2018 г. URL: <https://www.kinoafisha.info/news/koreyskoe-sportivnoe-kino-pokazhut-v-podderzhku-rossiyan-na-olimpiade-2018/>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2.09.2025).

19) Симонов Д. «Посол России в Корею: «Открытие дома спорта доказало, как много

содействие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российским спортсменам, несмотря на санкции со стороны МОК.

Для поддержки олимпийских атлетов из России в Пхёнчхане были созданы особые группы поддержки, которые посещали соревнования и болели за российскую сборную, используя экипировку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символикой. Эту идею выдвинула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в рамках визита их лидера в Москву перед Олимпиадой²⁰). Было отмечено, что жител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олели за олимпийских атлетов из России в популярных в государстве видах спорта, как, например, в фигурном катании, хоккее и лыжном спорте.

Межолимпийский период можно охарактеризовать взаимной поддержкой государств. Передача олимпийской эстафеты от России к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углубила спортивные контакты. Несмотря на допинговый скандал с российскими атлетами накануне Игр в Пхёнчхане,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оказала поддержку атлетов.

VI. Постолимпийский период

В июне 2018 г. Мун Джэин снова посетил Россию, по итогам саммита было подписано множество двусторонних соглашений в сферах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судостроен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Это подтвердило курс государств на конструктивно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проекте «девяти мостов»²¹) в рамках «Новой северной

людей готовы поддерживать Россию», Спорт-экспресс. 9 февраля 2018 г. URL: <https://www.sport-express.ru/olympics/pyeongchang2018/news/posol-rossii-v-koree-otkrytie-doma-sporta-dokazalo-kak-mnogo-lyudey-gotovy-podderzhivat-rossiyu-1369518/>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8.09.2025).

20) Кирьянов О.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 Мы всегда рады видеть россиян»,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18 февраля 2018 г. URL: <https://rg.ru/2018/02/18/gubernator-provincii-kanvon-my-vsegda-rady-videt-rossiiian.html>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9.09.2025).

21) Лукин А. Л. «Инициатива «девяти мостов»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 Ина: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итоги для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олитики» для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контактов государств в приоритетных областях экономики и развития совместных програм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контексте глобальн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искурса, следует отдельно подчеркнуть продолжение миротворческой миссии МОК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ажнейшим политическим событием начала 2018 г. стало совместное реше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НДР выступить на Олимпиаде под единым флагом. Инициаторами выступил Мун Джэин при поддержке о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В этом контексте ва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Россия выступает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стабилизаторов меж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возобновлен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контактов стало импульсом для расширения связей с обоими странами полуострова. Кроме того, Россия участвует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и форумах, где обсуждаются вопросы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стремит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своё влияние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стабильности в регионе. Следовательно, оживление меж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активизировало 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После Игр КНДР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ыступали совместно на нескольк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сборная женская команда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Чемпионате мира по настольному теннису и турнире “Korea Open”; выступали на XVIII Азиатских играх под флагом объединения; в XXVI Чемпионате мира по гандболу.²²⁾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в ходе соревнований не было завоевано медалей высшей пробы, это продолжило традиционную спортивную дипломатию, мо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такого актив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е наблюдалось с конца 1990-х гг. и периода «солнечного тепла».

В постолимпийский период государства полуострова поддерживали мирны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и принимали совместное участие в

отношений”,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4.48 (2020), С. 62–63.

22) Поленова А. Л. “Межкорейское культурно-гуманитар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этапе”, *Восточная Азия: факты и аналитика* 2 (2022), С. 47–55.

соревнованиях. Однако всего через один олимпийский цикл, проблемы, которые были столь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до Пхёнчхана, возникли вновь. В конце 2022 г.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пустила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на фоне слухов об очередном раунде испытаний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За этим последовало прекращение контактов с Югом. К настоящему моменту диалог не поддерживается ввиду несовпадающ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установок лидеров стран.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й курс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взвешенный подход к международным отношениям. Являясь союзником СШ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не присоединяться к антироссийским санкциям, сохранив нейтральную позицию в данном вопросе. Тако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маневр не только позволил сохранить существующе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о и открыл новые перспективы для развит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Связи с Россией представили стране больше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диалога с КНДР, поскольку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уравниванию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исутствия в регионе, не допуская гегемонии.

VII. Заключени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можно характеризовать основные итоги дву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 точки зрения изменения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с Россией. Олимпиада–1988 была первым шагом к установлению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ССР, а в дальнейшем –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Благоприятн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обстановка, связанная с общей перестройкой политических ориентиров и поиском новых партнеров, позволила олимпийским принципам мира и дружбы стать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ими при построени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курсов государств.

Во время Игр в Пхёнчхане уже не шло речи о конфронтации

сторон, наоборот, Олимпиада только укрепила установленные связи и создала прочную основу для новых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Произошло расширение контактов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девяти мостов», «Диалог Россия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олучил планомерное развитие после инициативных олимпийских проектов.

Однако после активного периода переговоров и согласования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в различных отраслях в 2017 – 2019 гг. контакты стран сократились. Это было вызвано экономической нестабильностью, что привело к пересмотру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в том числе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COVID-19. После ввиду смены 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иоритет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онфликта на Украине встречи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были приостановлены.

Тем не менее, мы не можем утверждать, чт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государств было прекращен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ран ведут переговоры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встреч, например, в ходе Генер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и ООН, а также сохраняются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с 2017 г. делегац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и разу не отказалась от участия в Восточ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следовательно, 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продолжают работать в России. В рамках «Диалога Россия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действует дискуссионный клуб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Полит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продолжаются открытые лекции о культуре и современных реалиях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Так даже на фоне общего снижения двусторонне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Россия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одолжают искать новые точки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참고문헌

1. Бриджес Б.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в Сеул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чудо встречает мир”, Кузнецова З. М. (общ. ред.) *Наследие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М.: ФЛИНТА, 2014.
2. Вайцеховская Е. С.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Очень личное*, М., 2018.
3. Воинов Д. Е. “«Мягкая сила» Игр «Сочи-2014» и зарубежные медиа: анализ политико-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фона 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Вестник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рия 25.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и мировая политика* 2, 2015.
4.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ГАКК). Ф. Р-1950. Оп. 4. Д. 273.
5. “Заявления для прессы по итогам переговоров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ом”,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6 сентября 2017 г. URL: <http://kremlin.ru/catalog/countries/KR/events/55541>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9.09.2025).
6. Ким Ч. “Организация работы над столь масштабным проектом, как Сочи-2014, впечатляет”, *Вестник Россий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лимпий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2-3, 2013.
7. Кирьянов О.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 Мы всегда рады видеть россиян”,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18 февраля 2018 г. URL: <https://rg.ru/2018/02/18/gubernator-provincii-kanvon-my-vsegda-rady-videt-rossiian.html>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9.09.2025).
8.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ерждена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В. Путиным 31 марта 2023г.)”,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URL: <https://www.mid.ru/ru/detail-material-page/1860586/>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6.09.2025).
9. “Корейское спортивное кино покажут в поддержку россиян на Олимпиаде 2018”, Киноафиша. 24 января 2018 г. URL: <https://www.kinoafisha.info/news/koreyskoe-sportivnoe-kino-pokazhut-v-podderzhku-rossiyan-na-olimpiade-2018/>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2.09.2025).

10. Ланцова И. С. “Эволюция отношен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т первых контактов к интеграционным проектам”, *Евразийская интеграция: экономика, право, политика*, 18, 2015.
11. Лукин А. Л. “Инициатива «девяти мостов»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 Ина: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итоги для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4.48, 2020.
12. “О форуме”, Диалог Россия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URL: <https://drk.ru/o-forume/>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6.09.2025).
13. Поленова А. Л. “Межкорейское культурно-гуманитар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этапе”, *Восточная Азия: факты и аналитика* 2, 2022.
14. Рахновская К. “«Сеул уважает и приветствует позицию Москвы»: Южная Корея призвала росси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приехать на Олимпиаду”, RT на русском. 7 декабря 2017 г. URL: <https://russian.rt.com/sport/article/457350-yuzhnaya-koreya-rossiya-sportsmeny>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8.09.2025).
15. Симонов Д. “Посол России в Корее: «Открытие дома спорта доказало, как много людей готовы поддерживать Россию»”, Спорт-экспресс. 9 февраля 2018 г. URL: <https://www.sport-express.ru/olympics/pyeongchang2018/news/posol-rossii-v-koree-otkrytie-doma-sporta-dokazalo-kak-mnogo-lyudey-gotovy-podderzhivat-rossiyu-1369518/>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8.09.2025).
16. *Стратегия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союза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Олимпийский комитет России» до 2028 года*, М., 2022. URL: <https://olympic.ru/wp-content/uploads/2023/09/2022-12-07-Strategiya-2028-UTVERZHDENO.pdf>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8.09.2025).
17. Талызов С. Н. “Корейская модель управления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спортом”, *Физ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Спорт. Туризм. Двигательная рекреация* 4, 2016.
18. Duckworth A. *International Security and the Olympic Games, 1972–2020*, Cham: Palgrave Macmillan, 2022.
19. Gargalianos D. “Sport Diplomacy”, Naskou-Perraki P.(ed.) *Contemporary Diplomatic and Consular Relations*, Springer, 2025.

20. “IOC President Thomas Bach reflects on the boycott of the Olympic Games Moscow 1980 40 years later”,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17 July 2020. URL: <https://www.olympics.com/ioc/news/ioc-president-thomas-bach-reflects-on-the-boycott-of-the-olympic-games-moscow-1980-40-years-later> (Accessed 14.06.2025).
21. Nye J. S.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Affairs, 2004.
22. “Sport Public diplomac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URL: https://www.mofa.go.kr/eng/wpge/m_22828/contents.do (Accessed 18.09.2025).

Abstract**Russian-Korean Relations and Olympic Diplomacy**

Izmaylova, A. N.
(Kuban State University)

In this article we're going to analyze the experience of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terms of Olympic movement, which is a part of sports diplomacy and "soft power". Sports competitions promote closer contact between representatives of different countries, who otherwise would have little in common. An illustrative example is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contacts between the USSR and Republic of Korea after the 1988 Seoul Olympics. For both countries, participation in the Olympics was one of the ways to pursue a foreign policy course due to the limited interstate contacts in a bipolar world. For a long time, the interaction of Korean and Russian cultures was quite active. Thanks to this dialogue, Russia and Republic of Korea began to establish cooperation and create joint projects. We can highlight active periods and recessions in the cooperation of the states. The rise of contacts during the inter-Olympic period stands out: from the Sochi 2014 Games to the Pyeongchang 2018 Olympics. The Republic of Korea's support for the participation of Russian athletes in a neutral status and its refusal to join US sanctions proved the stability of Russian-Korean relations.

Key words : Olympic Games, South Korea, Russia, "Soft Power", International Relations, Sochi 2014, Pyeongchang 2018

China in World War I: the Revival of National Identity

Smertin, Yuri G.*

국문 초록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여파는 중국 근현대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시기는 중국의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동시에 중국이 처음으로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국제관계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때이다. 나아가 중국은 국제연맹의 창설 과정에도 참여하였다.

본 논문은 러시아 역사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했던 중국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 문제와 그 다면적 결과를 탐구한다. 이를 위해 당시 국내외 정치 상황, 중국의 참전을 유도한 요인들, 유럽 내 중국 노동자들의 활동, 승전국의 베르사유 회의에 중국의 참여,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중국 사회의 반응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이 중국에 미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영향들을 함께 검토한다. 종합하면, 제1차 세계대전은 중국이 고도화된 국민 의식을 갖춘 근대 국가로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결론에 이른다.

주제어 : 중국, 제1차 세계대전, 위안스카이, 협약, 중국 노동자,
베르사유 회의, 민족주의

* 쿠반국립대학교 해외지역학·동방학과 교수, my@jusmertin.ru

I. Introduction

The Xinhai Revolution of 1912, which put an end to the rule of the Manchurian dynasty in China and proclaimed 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opened up new horizons for the country. China has sincerely tried to adopt the experience of the West in state-building, economics, military affairs, and education. But his efforts to create and develop a modern state were hampered by difficult relations with European powers, which imposed unequal treaties, indemnities, and unprofitable loans on the Chinese. At the same time, the post-revolutionary years were a time of instability and acute political struggle between various political and social forces. The first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China was General Yuan Shikai, an influential politician backed by the powerful Beiyang Army. His candidacy was supported by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He established a military dictatorship and crushed his main political opponents, primarily the Kuomintang Party, the first political party in China, founded in 1912 by Sun Yat-sen.¹⁾

The founder of the Republic of China and its first president, Sun Yatsen, was forced to cede his post to Yuan Shikai in 1913 and went into exile in Japan, where he had previously spent much time engaged in anti-Qing political activity.

II. From neutrality to entry into the war

After the outbreak of World War I in August 1914, the Chinese government declared its neutrality. The war between the imperialist countries, which had oppressed and humiliated the country for a long time, seemed far away and even to some extent favorable for the country, since

1) Бокщанин А. А., Непомнин О. Е., Степугина Т. В. *История Китая: древность, средневековье, новое время* (Москва: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2010), С. 462.

it diverted their attention from China. Besides, it was difficult to determine the winner in this war at that stage.

Yuan Shikai's ambitions grew, and, with the support of monarchist supporters and some of the generals, he decided to restore the monarchy and become Emperor of the Celestial Empire. On November 20, 1915, Yuan convened a special representative assembly, where he was unanimously elected the next Emperor of China. In December, Yuan established a constitutional monarchy and the Chinese Empire. He was sworn in as Emperor on December 12, 1915. Because the Chinese Empire was about to establish a new constitutional monarchy, Yuan renamed the Presidential Palace the Xinhua (New China) Palace. New regulations for members of the royal family were promulgated, including the abolition of the eunuch system and the system of offering gifts.²⁾ However, this new constitutional monarchy was opposed by various warlords from southern China, who rebelled one after another.

At the same time, the Entente powers began negotiations with China regarding its entry into the war. Yuan Shikai set recognition of his imperial status as a condition. But unexpectedly, Japan became active, declaring war on Germany and, under this pretext, attacking German concessions in Shandong Province.

Japan gained a vast sphere of influence in northern China and Manchuria through its victories in the First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and thus joined the European imperialist powers in their struggle to establish political and economic dominance over Imperial China under the Qing Dynasty. Following the overthrow of the Qing Dynasty in the Xinhai Revolution and the subsequent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Japan saw an opportunity to further expand its influence in Chin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was powerless to prevent this. China, however, rightly believed that its troops should be used to fight

2) Fu Zhengyuan. *Autocratic Tradition and Chinese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p. 153–154.

Germany on its own territory. Yuan Shikai approached England with a proposal to work together to expel the Germans from the peninsula, but the British agreed with Japan's expanding presence on Chinese soil. In January 1915, Japan presented China with its famous ultimatum, known as the "Twenty-One Demands." Negoti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China and Japan, based on Japan's "Twenty-One Demands," lasted from February 2 to May 7, 1915. Finally, on May 8, 1915, Yuan Shikai accepted Japan's demands. The Twenty-One Demands were divided into five groups.³⁾

Group 1 (four demands) confirmed Japan's recent seizure of German ports and operations in Shandong Province, and expanded Japan's sphere of influence over the railways, coasts and major cities of the province.

Group 2 (seven demands) pertained to Japan's South Manchuria Railway Zone, extending the leasehold over the territory for 99 years, and expanding Japan's sphere of influence in southern Manchuria and eastern Inner Mongolia, to include rights of settlement and extraterritoriality, appointment of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officials to the government and priority for Japanese investments in those areas. Japan demanded access to Inner Mongolia for raw materials, as a manufacturing site, and as a strategic buffer against Russian encroachment in Korea.

Group 3 (two demands) gave Japan control of the Han-Ye-Ping (Hanyang, Daye, and Pingxiang) mining and metallurgical complex in central China; it was deep in debt to Japan.

Group 4 (one demand) barred China from giving any further coastal or island concessions to foreign powers.

Group 5 (seven demands) was the most aggressive. China was to hire Japanese advisors who could take effective control of China's finance and police. Japan would be empowered to build three major railways, and also Buddhist temples and schools. Japan would gain effective control of Fujian,

3) "Japan's Revised Demands on China, twenty-one in all, presented April 26, 1915", Office of the Historian. URL: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15/d154> (Accessed 17.06.2025).

across the Taiwan Strait from Taiwan, which had been ceded to Japan in 1895.

The demands posed the biggest challenge yet to China's survival and desire to become a fully-fledged nation-state, moreover. Given this, the republican government now realized that only by joining the war might China gain leeway to resist and recover their national sovereignty.

In response to the Japanese ultimatum, anti-Japanese rallies were held in China, a boycott of Japanese goods began, and Chinese workers went on strike at Japanese enterprises. But Yuan Shihkai, having not received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France, agreed to accept these demands, although he corrected some positions. May 9, 1915 became the "day of national shame."

Yuan Shihkai's popularity was rapidly declining, and a movement in defense of the republic was growing in the country, to which some of the militarists of the north joined. On December 25, 1915, General Cai E and General Tang Jiyao declared their disagreement with Yuan Shikai's policies. They were followed by generals from Guizhou and Guangxi provinces. The Entente powers and Japan also did not support Yuan Shikai's monarchical plans. In March of the following year, Yuan Shikai was forced to abolish the new empire and restore the republic, thus serving as emperor for three months.⁴⁾ Depressed, he fell ill in May 1916 and died of uremia at the age of 57 on June 6, 1916.

The former Vice President, General Li Yuanhong, became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China, and the militarist Duan Qirui, who previously held the post of Minister of War, became the Prime minister. However, the parliament was split by an irreconcilable struggle between representatives of the Guomindang Party, which expressed the interests of the national bourgeoisie of Eastern and Southern China, and henchmen of the militarists, who supported the comprador bourgeoisie and large landowners in the North of the country.

4) Spence J. D. *The Search for Modern China*.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99), p. 282.

By this time, the World War in Europe had reached its most critical stage, and the Republic of China had to determine its attitude to this phenomenon. China had never played an active role in global events before in its history, but Duan Qirui decided to open a new era in the country's foreign policy. He and his advisers decided to join France and Britain in their struggle against Germany, believing that if the Germans were defeated, the German concessions in Shandong Province would again be ceded to China. Duan Qirui was also pushed to take action by external forces. One of them was the United States, which in early 1917 was preparing to enter the war in response to attacks by German submarines against neutral ships in the Atlantic Ocean. The other was the Japanese, who encouraged separatist regimes in Manchuria, Mongolia, and Southern China. They decided to bribe the Beijing regime and gain recognition of the Japanese presence in Northern China. In January 1917, Japan provided the Chinese government with a loan of 5 million yen. In March, Duan convinced parliament to sever diplomatic relations with Germany, but his desire to formally declare war was rebuffed by Chinese authorities; President Lee Yuanhong and parliament believed that they, and not the prime minister, should make such a decision. The parliament demanded the resignation of Duan Qirui's government, and he was stripped of his post.

An outspoken monarchist, General Zhang Xun, intervened in the power struggle in Beijing. On June 8, 1917, he and his troops arrived in the capital, announced the dissolution of parliament and the restoration of power to the Qing Dynasty. He himself turned into the dictator and sole ruler of China, and the last emperor of the Manchu dynasty, Pu Yi, who lived in the Forbidden City, was given the role of a puppet.⁵⁾ In this situation, Duan Qirui became the center of resistance to the monarchical restoration; pro-republic generals and militarists united around him, seeing Zhang Xiong as the new Yuan Shihkai. The second restoration of the monarchical system lasted just over ten days. The coup was suppressed by

5) Непомнин О. Е. *История Китая: XX век* (Москва: Крафт+, 2011), С. 154.

the troops of Duan Qirui, who regained the post of prime minister, forced Li Yuanhung to resign and dissolved parliament. The duties of the president were assigned to General Feng Guozhang. Zhang Xun took refuge in the Dutch diplomatic mission, and no longer took part in political life.

In August 1917 Duan announced the formal entry of China into the World War on the side of the Entente. China was also pushed to do this by Japan, which lent another 140 million yen. Many militarists supported this decision, as they voluntarily or out of necessity worked closely with foreign powers: with the British in Shanghai, the Japanese in Manchuria and the French in southwest China. By entering the war, Duan hoped to reverse many of the indemnities and concessions China had been forced to sign in the past with its current allies. He also hoped that China would gain international prestige by participating in the “Great War.”⁶⁾

The enlightened public also showed interest in the World War. The new ideology of nationalism that gave rise to the Xinhai Revolution and the processes of internal renewal was based on China's desire to become a modern nation-state and a strong country. Although the Chinese people suffered from political chaos, economic turmoil, and poverty during the World War, it was also a time of public excitement, high expectations, and social optimism. The clash of ideas, political theories, and recipes for creating a national identity created an atmosphere of intellectual creativity and generated a powerful desire for change. New ideological doctrines, unconventional interpretations of history and reactions to the development of events in the World War were widely presented in print media throughout the country.⁷⁾

At no other time in modern Chinese history has the mobilization of public opinion, its social and intellectual resources played such a decisive role in determining political, cultural and social perspectives. Never before

6) Gray J. *Rebellions and Revolutions: China from the 1800s to 200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 171-172.

7) Waldron A. “War and the Rise of Nationalism in Twentieth-century China”, Swope K. (ed.) *Warfare in China since 1600* (Aldershot: Burlington, 2005), p. 295-314.

had the Chinese society shown such a great interest in international affairs; there was hope to create a new diplomacy designed to prepare the state for entering the world stage. The Chinese were ready to abandon the old isolationist worldview. The European War seemed to provide a great opportunity to join the emerging new world order.

III Laborers in the place of soldiers

Chinese military power was insignificant compared to the European belligerent countries or the United States, which entered the war on the side of Britain and France in April 1917, but China had an important potential that the allied powers did not have – almost inexhaustible human resources. Back in 1915, when the issue of China's entry into the Great War was far from being resolved, France and Britain, together with the Chinese government, developed the project “Workers as Soldiers.” It provided for sending Chinese peasants to Europe to perform heavy physical labor related to the maintenance of the Allied army. The idea of the West was that the Chinese would work in the docks and on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facilities in Western Europe; this would free up tens of thousands of Europeans for use at the front. The Chinese government, for its part, demanded that the contracts for the employment of compatriots be checked and approved by the authorities of both sides, which was supposed to provide them with acceptable living conditions abroad.

By the time China entered the war, the British and French had suffered huge losses in Europe. In the Battle of the Somme River alone in 1916, 624,000 people were killed and wounded. The following year, in the battle of Ypres (Belgium), where German troops used chemical weapons for the first time, the Allies lost 448 thousand people.⁸⁾

8) *История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1914–1918 гг.* Под ред. И.И. Ростунова. Т. 2. (Москва: Наука, 1975), С. 165-184.

The British government developed a plan according to which several thousand Chinese workers were supposed to arrive in England, but trade union leaders protested this decision, saying that the appearance of a large number of Asians would have “detrimental consequences for the standard of living” of the British.⁹⁾ It was decided to use the Chinese in maintenance work for the British army on European territory. In October 1916, the former railway engineer T. Baume, who had previously worked in China for 28 years, arrived at the British military base in Weihaiwei (Shandong Province) with instructions to create, in agreement with the Chinese authorities, an infrastructure for recruiting Chinese workers.¹⁰⁾ The first sea transport with 1,088 Chinese on board left Weihaiwei for Le Havre on January 18, 1917. They became the first group of more than 100,000 Chinese who were contracted by Britain during the war years. They were joined in Europe by 40,000 people recruited by France. Thus, tens of thousands of Chinese peasants, attracted by the promised high wages, ended up in Europe. They traveled a long way across the Pacific Ocean to Canada, and then, accompanied by anti-submarine ships, crossed the Atlantic Ocean. Most of them ended up in Northern France and Flanders after a three-month trip. The British united the Chinese into the so-called Chinese Labor Corps under the command of British officers. By the end of the war, 96 thousand The Chinese organized in this way worked in France, and during the war years 140 thousand people passed through the workers’ corps.¹¹⁾ The same formations with military discipline were created by the British from Egyptians in the Middle East, Indians and South Africans in British East Africa.

The Chinese worked as longshoremen in ports, built barracks and hospitals, dug trenches, worked in mines, repaired highways and railways,

9) Fawcett B. C. “The Chinese Labour Corps in France, 1917-1921”,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Hong Kong Branch* 40 (2000), p. 35.

10) Xu Guoqi. *Strangers on the Western Front. Chinese Workers in the Great Patriotic Wa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p. 27.

11) *Ibid.*, p. 229.

working 10 hours a day seven days a week. Sometimes they staged riots against their French and English employers or robbed local restaurants in search of food. Chinese workers have experienced all the delights of racial discrimination, especially from the British. They lived in camps surrounded by barbed wire fences, which were forbidden to leave even after hours. There were such common phrases in the English-Chinese phrasebook for officers: "Why don't you eat this food?", "This tent is not very clean", "You need to wash tomorrow", "This toilet is for Europeans, the Chinese are not allowed here."¹² However, the British took care of the creation of well-maintained cemeteries for the deceased Chinese and organized a hospital for the living with X-ray equipment, well-equipped operating rooms and doctors who were well-versed in Chinese.¹³ The French did not have such high-quality services.

Activists of the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YMCA),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worked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in prisoner-of-war camps during the war, tried to alleviate the difficult living conditions of the Chinese. The Chinese workers were not prisoners of war, but their situation was not much better, which is probably why they became the target of YMCA activities.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concentrated their activity on the elimination of illiteracy among the Chinese, for which they published special dictionaries and created special teaching methods. James Yen has done a lot of work in this area. He was born in China, studied in Hong Kong, and then graduated from Yale University in the USA in 1918. J. Yen initiated the creation of a dictionary for Chinese workers of thousands of Chinese characters, knowledge of which was necessary to read simple texts, he published the weekly newspaper *Chinese Worker* using only these characters, wrote letters to the homeland of hundreds of workers. One of these surviving letters began like

12) Spence J. D. *In Search of Modern China*. (New York: W.W. Norton&Company, 1991), P. 292.

13) Xu Guoqi, Op. cit., P. 118.

this: “For my older brother. I have traveled many tens of thousands of li since the last time I saw you. I'm fine, don't worry about me. I earn 3 francs a day, but since life is expensive here, I couldn't send much money home. Forget about the quarrel between us back in Yaowan, before I left! I was wrong. Please take care of our parents. When I return in a few years, I will bring so much money that they will have enough for the rest of their lives.”¹⁴⁾

Although the Chinese worked far from the front lines, their lives were constantly in danger. Some of their camps were bombed by German airplanes and shelled by artillery, and when the opportunity arose, the Chinese avenged their murdered comrades by killing German prisoners of war. Workers died from unexploded mines and shells while clearing battlefields or digging trenches, many died from unusual food, dampness and cold. Almost 2,000 Chinese workers were buried in France and Flanders.¹⁵⁾

It wasn't just the Western Allies who exploited the labor of Chinese workers. During the war years, Russia also attracted the Chinese for laying railways, coal mining, logging, etc. According to Russian data, from January 1915 to April 1917, 159,972 workers were taken out of China by rail.¹⁶⁾ Their recruitment was carried out by intermediary companies on the basis of contracts that had to comply with Chinese laws and the “Rules for Hiring and Transporting Yellow Race Workers” developed in Russia, which included monetary remuneration, accommodation in comfortable barracks, medical care, food, clothing and footwear. However, the real life of contract workers in Russia, as in Europe, was difficult, and not only because of the working conditions. They faced arbitrary authority and discrimination, which caused unrest, strikes, and clashes with the police and

14) Summerskill M. *China on the Western Front: Britain's Chinese Work Force in the First World War*. (London, 1982), p. 102.

15) “A Strange Meeting”, *The Economist*, April 24, 2010. URL: <https://www.economist.com/asia/2010/04/22/strange-meeting> (Accessed 03.08.2025).

16) Архив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Фонд Китайский стол. Опись 487. Дело 1060. Лист 157, 192.

Cossacks. Many Chinese fled their jobs, and so-called wandering Chinese appeared, who earned their living by small-scale trade and odd jobs. After the October Revolution of 1917 and the outbreak of the Civil War, many Chinese workers joined the Red Army and participated in military operations. To a large extent, this was facilitated by the propaganda and organizational work of the Bolsheviks. In 1918, a headquarters for the formation of Chinese detachments was created in Moscow, one of the main goals of which was to agitate for communism among the Chinese population. In the army, propaganda activities were carried out by special structural units.¹⁷⁾ Later, returning to their homeland, they became supporters of the socialist transformation of Chinese society.

IV. The Versailles Conference and its implications for China

After the end of the World War in December 1918, tens of thousands of Chinese workers returned to their homeland. They had seen the world, they had some money, which they had carefully saved all these years, and the rudiments of education. These people had every opportunity to play an active role in Chinese politics, and the socialist revolutionaries would rely on them.

China, as an ally of the Entente, took part in the Versailles Conference of the Victorious Powers on the post-war world order, held in 1919. However, China experienced both expectations and disappointment at the Peace Conference. China was much deeper since it had pinned so many hopes on the war and the post-war world. At the Peace Conference China was regarded as a “third-rank nation,” having two seats for its delegation while Japan had five. Japan’s superior position at Versailles automatically meant failure for China. Nevertheless, China took full advantage of their opportunity and managed to inject substantially new content and

17) Murphy B. *Rostov in the Russian Civil War, 1917-1920: The Key to Victory* (New York: Routledge, 2005), pp. 154-155.

perspectives into the Peace Conference discussions and the emerging new world order.¹⁸⁾

The Chinese government developed a list of its wishes for the peace conference, which provided for the return of the former colonial possessions of the powers and their abandonment of former spheres of influence, th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stationed in China, the granting of customs independence, etc. The labor and sacrifices of illiterate Chinese peasants were supposed to serve as a decisive argument in China's desire to become an equal participa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hinese delegation, consisting of 62 people, was immediately put in place. The head of the Japanese delegation stated that as early as 1917, Japan had signed a secret treaty with Britain, France and Italy, according to which these countries, for the help provided by the Japanese navy in the fight against Germany, pledged to support Japan's claims to Shandong after the war.¹⁹⁾ In addition, the Japanese claimed that in September 1918 they had concluded a secret agreement with Premier Duan Qirui, which gave the Japanese the right to deploy police forces and military garrisons in Jinan and Qingdao. It also guaranteed all income from the two railways that the Japanese planned to build in Shandong Province, due to partial repayment of Japanese loans to the Chinese government. The Chinese delegates were unaware of these humiliating agreement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oodrow Wilson, British Prime Minister David Lloyd George and French Prime Minister Georges Clemenceau, the host of the conference, agreed to transfer the rights to Shandong to Japan.

When the news reached China, the Chinese public reacted more violently than ever. Chinese delegates at Versailles were inundated with petitions and protests from political parties, commercial associations, overseas Chinese communities, and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the West. On May 1, 1919,

18) Xu Guoqi, *Asia and the Great War: A Shared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 153-161.

19) Chow Tse-tsung, *The May Fourth Movement: Intellectual Revolution in Moder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p. 86.

it became known in Beijing that the Chinese delegation had recognized all these secret agreements. This news sparked mass protests in the capital, which began on May 4. 3,000 students from 13 local colleges and universities gathered for a protest rally in Tiananmen Square at the Gates of Heavenly Tranquility. They beat up an official known for his pro-Japanese sympathies and burned down the house of one of the ministers.²⁰⁾ The government of Duan Qirui beat up demonstrators, several hundred students were arrested, which further inflamed the situation in the country. Student demonstrations have begun in cities across China. The students were supported by their teachers, merchants and businessmen. There have been strikes in solidarity with students at many factories and plants. This was a new phenomenon in China's political life.

Xu Guoqi, Professor of Globalization History at the University of Hong Kong, noted that the direct outcome of the Versailles peace negotiations that ended the Great War disillusioned China with the West. Despite China's contributions to the Entente's efforts, instead of returning sovereign authority over German concessions in Shandong to China, the Treaty of Versailles acceded the concessions' transfer to Japan. As highly as Chinese people thought of Woodrow Wilson before the Treaty, Xu said, so deep was their disappointment in Wilson and his principles afterwards. "The result of World War I and the Treaty were directly connected with the founding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May 4th movement," said Xu. "It was the cornerstone of China's communist revolution."²¹⁾

The events of May 4th greatly frightened the government, and the pressure on the Versailles delegates was increasing. The Chinese president finally sent a telegram to the head of the delegation to Versailles, in which he demanded not to sign the treaty. But he hesitated too long; the telegram

20) Spence J. D. *In Search of Modern China* (New York: W.W.Norton & Company, 1991), p. 293.

21) "'Workers in the Place of Soldiers': the Forgotten Story of China and the Great War", New York University Shanghai. URL: <https://shanghai.nyu.edu/is/workers-place-soldiers-forgotten-story-china-and-great-war> (Accessed 11.08.2025)

arrived after July 28, the date before which the terms could be discussed. However, Chinese students and other demonstrators besieged the Paris hotel where the Chinese delegation was staying and prevented them from attending the signing ceremony of the Versailles Peace Treaty. In this situation, Duan Qirui officially refused to sign the agreement and announced the resignation of pro-Japanese members of his cabinet. These events showed that a new generation was entering the political arena with a new understanding of nationalism and new methods of action. The day of May 4, 1919 became legendary. He gave the name to a new movement in China that combined nationalism and cultural identity. A new era has begun in China's political and intellectual history.

Despite the collapse of many expectations from the Versailles Conference, China did not lose out, although the acquisitions were not as large as Chinese leaders had hoped. The Republic of China has regained some of its national sovereignty and rid itself of some aspects of past national humiliation, such as the indemnities of Germany and Austria for the Boxer Rebellion. China had the opportunity to attend the post-war peace conference, making it a platform from which it proclaimed its own ideas for creating a new world order. Chinese diplomacy partially destroyed the old system of unequal treaties: Germany signed the first equal treaty with China immediately after the war. By refusing to recognize the Treaty of Versailles, China opposed the West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Opium War.

V. Conclusion

During World War I, China and its people suffered from political chaos, economic weakness, and social hardship. However, it was also a time of excitement, high expectations, optimism, and new dreams. The clash of ideas, political theories, and the rebirth of national identity—all sparked by China's wartime experience—inspired many Chinese and instilled in them a

strong determination to implement change to solve China's problem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intelligentsia was convinced that China's very existence was under threat and that only cultural enlightenment and a completely new beginning could save China. Calls for a new culture, a new social order, and ultimately a "new man" paved the way for socialist revolution, which soon seemed the only possible solution to the crisis caused by World War I.

The war and postwar years were a period of relative economic prosperity for China. A decline in European exports expanded the opportunities of the domestic market amid a shortage of goods. During the war, the number of national enterprises increased by 2.5 times, and factory capital by 1.5 times.²²⁾ Chinese exports to Europe, which needed Chinese raw materials and industrial products, particularly cotton fabrics, increased sharply. China was becoming an important player in the international market. Thus, World War I should be considered a turning point in the creation of the modern Chinese state and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As in Europe, the consequences of World War I also contributed to a radical change in China's foreign and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While the leading European powers gradually retreated during the war, focusing on the European theater of operations, emerging power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quickly consolidated their influence in China. Japan was able to expand its position as a result of the world war and establish itself as the dominant imperial power. As for the United States, its increasingly significant trade with China and influential educational activitie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its political and cultural presence in China. At the same time, the experience of the Treaty of Versailles convinced China of the need to seek new partners outside the imperialist world. For radical and revolutionary forces, the Soviet Union was a source of inspiration, although there were more liberal and pragmatic politicians who looked to the United States.

22) Непомнин О. Е. Указ. соч., С. 171.

참고문헌

1. Архив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Фонд Китайский стол. Оп. 487. Д. 1060.
2. Бокщанин А. А., Непомнин О. Е., Степугина Т. В. *История Кумая: древность, средневековье, новое время*. М.: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2010.
3. Ростунова И. И. (ред), *История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1914–1918 гг.* Т. 2, Москва: Наука, 1975.
4. Непомнин О. Е. *История Кумая: XX век*. Москва: Крафт+, 2011.
5. “A Strange Meeting”, *The Economist*. April 24, 2010. URL: <https://www.economist.com/asia/2010/04/22/strange-meeting> (Accessed 03.08.2025).
6. Chow Tse-tsung, *The May Fourth Movement: Intellectual Revolution in Modern China*.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7. Fawcett B. C. “The Chinese Labour Corps in France, 1917-1921”,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Hong Kong Branch*, 40, 2000.
8. Fu Zhengyuan, *Autocratic Tradition and Chinese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9. Gray J. *Rebellions and Revolutions: China from the 1800s to 200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10. “Japan’s Revised Demands on China, twenty-one in all, presented April 26, 1915”, Office of the Historian. URL: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15/d154> (Accessed 17.06.2025).
11. Murphy B. *Rostov in the Russian Civil War, 1917-1920: The Key to Victory*, New York: Routledge, 2005.
12. Spence J. D. *The Search for Modern China*.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99.
13. Summerskill M. *China on the Western Front: Britain's Chinese work force in the First World War*, London, 1982.
14. Waldron A. “War and the Rise of Nationalism in Twentieth-century China”, Swope K.(ed.) *Warfare in China since 1600*, Aldershot: Burlington, 2005.
15. ““Workers in the Place of Soldiers”: the Forgotten Story of China and the

- Great War”, New York University Shanghai. URL: <https://shanghai.nyu.edu/is/workers-place-soldiers-forgotten-story-china-and-great-war> (Accessed 11.08.2025).
16. Xu Guoqi, *Asia and the Great War: A Shared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17. _____, *Strangers on the Western Front. Chinese Workers in the Great Patriotic Wa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Abstract

**China in World War I:
the Revival of National Identity**

Smertin, Yuri G.
(Kuban State University)

The events of World War I and its aftermath marked a turning point in China's modern history. It was a time of national consciousness formation. At the same time, they marked a significant change in China's rel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as China became an activ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first time. Moreover, China was also involved in the creation of the League of Nations. The article explores the issue of China's participation in the First World War, which has been understudied in Russian historiography, and its multifaceted consequences for the country. It analyzes the foreign and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the factors that prompted the Republic of China to enter the war, the activities of Chinese workers in Europe, China's participation in the Versailles Conference of the victorious powers, and the Chinese public's reaction to its outcomes. The article also examines the multifaceted consequences of the war for China. It is concluded that the First World War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transformation of China into a modern state with a developed national consciousness.

Key words : China, First World War, Yuan Shikai, Entente, Chinese Workers, Versailles Conference, Nationalism.

한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에서 다의 양상 및 사전적 의미 배열*

가파로바 말로하트**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본 연구는 한국어·러시아어·우즈베크어에서 다의 양상 및 의미 간의 연관성을 분석할 목적으로 한다. 범위는 신체 어휘로 하여, 이론적 틀로 Pustejovsky(1995)의 QUALIA 이론과 Heine et al.(1991)의 문법화 개념 영역 위계(사람 > 대상 > 행위 > 공간 > 시간 > 질)를 통합하였다. 신체 어휘의 중심 의미가 인접성·유사성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으로부터 추상적인 영역으로 확장되는 보편적 경로를 예문 대조로 확인하였다.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형식의 동일성’이 아니라 ‘의미적 연관성’의 유무로 엄밀히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QUALIA 개념을 ‘국면 구조’라고 하며 이를 적용해 핵심 표제어의 정의에서 위치·기능·구성·기원 정보를 통합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세 언어 사전의 배열 관행을 검토한 결과, 어원·빈도 위주 배열은 인지적 처리와 학습 효율 측면에서 한계를 지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다의 배열은 ‘구체→추상’의 인지 경로를 반영해 사람 > 대상 > 행위 > 공간 > 시간 > 질 순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같은 범주 안에서도 더 구체적 의미를 먼저, 추상적 의미를 뒤에 배치하는 미시 원칙을 도출하였다. 국면 구조 기반의 중심 의미 기술과 위계 기반의 배열을 결합하면 의미망의 층위와 연계를 일관되게 드러낼 수 있다. 한국어 사전은 상대적으로 체계적이나, 러시아어·우즈베크어 사전은 일부 표제어에서 배열·정의의 일관성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는 표제어 정의의 과잉 단순화를 피하고, 다의 생성·선택의 문맥 의존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술 틀을 제공한다.

주제어 : 국면 구조, 문법화, 중심 의미, 주변 의미, 인접성, 유사성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가파로바 말로하트, 「한국어-러시아어-우즈베크어 신체 어휘 다의성 비교 및 사전적 의미 배열: ‘머리’, ‘눈’, ‘손’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박사 졸업, malohat.gafforova@mail.ru

I. 서론

I.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¹⁾ 다의 양상을 비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어휘 범위는 신체 어휘로 잡고 하나의 어휘가 어떻게 서로 관련 있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모색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첫째, 어휘의 형식(form)과 의미(meaning)를 기술할 때 어떤 원리로 그 의미를 풍부하게 묘사할 수 있는가?

둘째, 신체의 중심 의미가 어떤 원리에 따라 여러 주변 의미로 확장되는가?

셋째, 중심 의미로부터 확장된 주변 의미들은 어떠한 인지적·의미적 원리에 따라 서로 연관되어 있는가?

넷째, 중심 의미는 어떻게 하면 보다 정교하고 타당하게 기술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세 언어에서 나타나는 다의어의 해석을 더욱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고 다의어의 의미 계층을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해 준다.

본 연구는 사전적 배열 원칙을 인지적이고 정합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데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이러한 목적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에 의해 출발하였다.

첫째, 다의성 기술에 관해서 기존 사전·연구는 다의어를 ‘여러 뜻’의 나열로 제시하는 경향이 강해, 의미들 사이의 연결 원리와 문맥적 선택 메커니즘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Pustejovsky(1995)의 *Qualia Structure*(국면 구조)를 중심 의미 기술의 표준틀로 도입하여 신체 어휘의 다층적 의미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한다.

1) 본 연구는 한국어·러시아어·우즈베크어의 신체 어휘 의미 확장 양상을 비교 및 다의어 배열을 제안하는 목적으로 한다. 세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를 체계적으로 밝히고, 언어·인지·문화 간의 상호 관련성을 탐색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러시아어는 구조적 특이성을, 우즈베크어는 한국어와의 형식적 유사성과 문화적 차이를, 한국어는 유교적 전통과 현대적 언어 접촉의 특징을 보여준다. 세 언어는 계통적으로 다르지만, 신체 어휘의 의미 확장에서 공통된 인지적 메커니즘과 문화적 변이를 드러내어 비교 연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둘째, 사전에서 다의어 배열 원칙의 인지적 재정립이 요구된다. 어원·빈도 우선 배열은 사용자의 인지 처리·검색 효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Heine et al.(1991)의 개념 영역 위계(사람 > 대상 > 행위 > 공간 > 시간 > 질)를 적용해 ‘구체→추상’의 확장 경로를 반영하는 배열 원칙을 제안함으로써, 다의어 배열의 일관성을 높인다.

셋째, 대조 언어학적 타당성이 크다. 한국어·러시아어·우즈베크어는 계통·문법이 상이하지만, 신체 어휘 의미 확장에서 공통된 인지 메커니즘과 언어별 변이가 함께 드러난다. 세 언어의 대조를 통해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밝히고자 한다.

넷째, 방법론의 재현성과 확장성을 제공한다. 중심 의미를 국면 구조로 기술하고, 주변 의미를 개념 영역 위계에 따라 배열하는 본 연구의 절차는 더 체계적인 범주 확장 연구를 가능케 한다.

II. 의미 확장의 원리

II.1. 의미 확장의 방향과 모형

어휘의 의미를 기술할 때,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콘’을 ‘아이스크림을 담은 과자’로만 정의하는 것은 그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어휘의 의미는 단일한 속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형태, 구성, 용도 등 다양한 속성을 내포한 복합적인 언어 단위이다. 이러한 복합성을 지닌 어휘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해당 어휘가 지닌 모든 속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요구된다.²⁾ 이러한 효과적이고도 통합적 기술은 Pustejovsky(1995)의 국면 구조(Qualia Structure)³⁾를 통해 가능하다. Pustejovsky(1995)의 국면 구조

2) 『표준국어대사전』(1999:4050)에서 ‘아이스크림콘’의 의미가 ‘아이스크림을 담은 원뿔 모양의 과자. 또는 그것에 아이스크림을 담은 것. 곡식의 가루로 만든다’로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서 아이스크림콘의 모양, 용도, 구성 성분 등의 속성은 복합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사물의 의미를 기술할 때는 단지 표면적인 정의나 기능만을 기술하지 않고 그 사물이 지닌 모든 속성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 사물을 잘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3) Quale(복수형: Qualia)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어떤 종류의 것인가(of what kind of thing)’를 뜻하며, 생성 어휘부 이론에서는 철학에서 차용된 용어이다. 이는 단어가 표현하는 개념과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다른 개념 사이의 관계를 바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이티아(Aitia) 이론, 즉 네 가지 원인⁴⁾ 개념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창의적인 언어 사용과 문맥에 따른 의미 생성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의 생성 어휘부 이론은 의미 구조의 합성성 원칙을 기반으로 다의성의 문제와 더불어 추상화, 은유, 환유 등의 인지적 기제를 통해 의미가 확장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미 생성의 생성적 기제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아래 예문을 보자.

(1)

ㄱ. They walked through the door. (그들은 문을 통해 걸어 들어갔다.)

ㄴ. He will paint the door red. (그는 그 문을 빨강에 칠할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 동일한 단어 ‘door’는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ㄱ)에서는 ‘door’가 통과와 공간적 경로로 쓰이며, 이는 ‘통과를 위한 공간’이라는 목적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ㄴ)에서는 물리적 대상으로 해석되며, 문이라는 물리적 대상, 즉 페인트칠 가능한 객체의 형상 및 구성 요소에 의

바탕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개(dog)’라는 명사가 활성화할 수 있는 개념적 관계에는 ‘동물’, ‘털이 있음’, ‘짖음’, ‘꼬리를 흔들’, ‘할음’ 등이 있다. Qualia는 인간의 경험을 통해 대상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포함하여, 그 대상 의미의 여러 측면을 부호화한다(Pustejovsky and Jezek, 2016:3).

‘Qualia’는 한국어로 번역될 때 학자에 따라 ‘특질’, ‘속성’, 혹은 ‘국면’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초기 연구에서는 ‘속성’이라는 용어가 개체의 본질적 성질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비교적 직역에 가까워 널리 사용되었으나, 이후 Pustejovsky의 의미 생성 이론(Generative Lexicon Theory)이 어휘의 내적 의미 구조를 동적인 관계망으로 파악한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국면 구조(Qualia Structure)’라는 번역이 점차 확립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신체 어휘’의 다의적 의미가 고정된 속성의 나열이 아니라 개념적 확장과 인식적 전이의 국면적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기술하고자 ‘국면 구조’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 4)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인을 제시하였다. 첫째, 물질적 원인은 물체를 구성하는 재료를 말한다. 예를 들어, 청동은 동상을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로서 물질적 원인이다. 둘째, 형식적 원인은 사물을 그 사물답게 만드는 본질적인 구조나 형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동상의 구체적인 형태는 그것이 ‘동상’이라는 범주에 속하게 하는 형식적 원인이다. 셋째, 운동인 원인은 사물의 생성이나 변화를 일으키는 주된 행위나 행위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조각가의 조각 행위는 동상을 만들어낸 작용적 원인이다. 넷째, 목적적 원인은 사물이 존재하거나 만들어지는 목적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동상의 목적은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목적적 원인이다(이영환, 2014:4-9).

해 결정된다. 이처럼 어휘는 문맥에 따라 의미가 결정되는데 이 과정을 설명하는 틀은 바로 ‘국면 구조’이다. 국면 구조는 어휘의 내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탁월하며, 특히 단어 의미의 다층적 구조와 문맥 내 의미 선택을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Pustejovsky(1995)는 기존의 어휘 의미 기술 방식이 정적인 의미 목록을 나열하는 데 그쳐, 다의어의 의미 생성 과정이나 맥락에 따른 유연한 의미 변화 등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그는 생성 어휘부 이론의 국면 구조를 제시하여 어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속성에 의해 구조화한다고 하였다. 형식 속성(Formal Qualia)은 지시 대상의 형식적 특성을 나타내고, 구성 속성(Constitutive Qualia)은 지시 대상이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설명한다. 기능 속성(Telic Qualia)은 대상이 왜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며, 수단 속성(Agentive Qualia)은 대상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과 변화하는 배경을 나타낸다(Pustejovsky and Jezek, 2016:4-8). 이 네 가지 속성은 서로 연결되어 대상의 복합적인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대상의 원형 의미를 나타낸다. 이 국면 구조는 어휘의 모든 속성을 포함한 복합적인 의미 기술 및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 간의 구조적 연관성을 기술하는 데에 설명력이 높아서⁵⁾ 기존 다의어 의미 기술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되었다.⁶⁾

또한 본 연구는 다의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의미가 확장되며, 그 과정에서 어떤 문법적 특징을 획득하게 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또 하나의 이론적 틀을 적용하고자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 5) 예를 들어, 볼펜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의미를 찾아보면 ‘펜 끝의 작은 공철 알이 펜의 움직임에 따라 돌면서 오일 잉크를 내어 쓰도록 된 필기도구’라는 해석은 볼펜의 의미를 풍부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게 도와준다. 볼펜의 형식, 구성 구조, 기능과 수단 구조는 볼펜의 의미를 잘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2.4에서 다룰 것이다.
- 6) 남혜현(2006b:6)은 러시아어 신체 어휘의 의미 확장을 분석하면서, Pustejovsky(1995)의 국면 구조 이론이 의미 확장의 배경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 이론이 제시하는 네 가지 국면 형태, 위치, 기능, 구성면이 신체 어휘의 의미 확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러한 신체적 특성이 인접성과 유사성의 기제로 의미 확장의 인지적 기반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2)

한:

ㄱ. 내 뒤에 앉아 있는 사람 누구지? (<연세 한국어 균형말뭉치>)

ㄴ.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고정희의 시).

러:

ㄱ. Прохожих двое шло дорогою одною. Оставили пути уже много за спиной. (“Двое прохожих и клад”, Майков(1765:135))

두 사람은 한 길을 함께 걸었다. 벌써 많은 길을 뒤에 남겼다.

ㄴ. А когда жить захотелось, оглянулся, то за моей спиной уже 50лет стояло. (НКРЯ)⁷⁾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뒤돌아보니, 내 뒤에는 이미 50년이 지나갔네.

우:

ㄱ. Chinnigul darvozada orqasiga qaradi. (S. Zunnunova, “Ko‘k chiroq”)

치니굴은 대문 앞에 가서 뒤를 돌아봤다.

ㄴ. Hammasi orqada qoldi. (O‘.Hoshimov, “Ikki eshik orasi”)

모든 일은 지나갔다. (직역: 뒤(과거)에 남았다.)

위 예문에서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한국어 ‘뒤’는 ‘향하고 있는 방향과 반대되는 쪽이나 곳’(표준국어대사전, 1999:1544)을 러시아어 ‘спина(등)’는 ‘Часть туловища от шеи до крестца(목에서 엉치까지의 몸통 부분)’(Кузнецов, 2000:1348)을, 우즈베크어 ‘orqa(등)’은 ‘Gavdaning qoringa nisbatan ters tomoni, bo‘yindan dumg‘azagacha bo‘lgan qism(몸통에서 배의 반대쪽에 해당하는 부분, 목부터 엉치까지의 부분)’(O‘zbek tilining izohli lug‘ati II jild, 2020:226)이라는 뜻을 의미한다. 한국어의 경우 반드시 신체의 뒷부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맥락에 따라 사람의 몸의 뒷부분을 의미하는 경향도 있다.⁸⁾ 각 언어에서 예문 (ㄱ)은 공간적 개념을, 예문 (ㄴ)은 시간적 개념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신체 어휘가 인지적 확장을 통해 비물리적 의미로 전이되었음을 보여준다. 예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체

7)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국립언어코퍼스(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рпу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를 “НКРЯ”로 표시한다.

8) 예: ‘학생 뒤에 뭐가 묻었다.’

부위를 지칭하는 어휘가 본래의 구체적인 신체 의미에서 출발하여 공간, 시간 등 다른 개념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위 예문 (2)에서 보듯이, 하나의 어휘가 여러 개념으로 확장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우즈베크어 *orqa*(등)는 ‘신체’에서 출발하여 ‘공간’, 나아가 ‘시간’ 등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의미가 확장되었으며, 이는 ‘신체: 무엇? > 공간: 어디? > 과거: 언제?’라는 변화를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의미가 점차 추상적인 의미로 변하는 과정은 언어의 자연스러운 발전 양상이며, 이러한 변화는 서로 연관성을 지닌 채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하나의 어휘가 의미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점차 의미가 약화되거나, 구체적인 의미에서 보다 추상적인 의미로 변화해 가는 과정은 인간의 인지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휘 기능의 변화와 인지 과정 간의 상관성을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분야가 문법화론(Grammaticalization Theory)이며, 어휘의 의미가 약화되거나 다른 개념으로 전이되어 문법적 기능이 변하는 과정을 문법화(Grammaticalization)라고 한다. 문법화에 대한 연구는 어휘의 의미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학문적 탐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⁹⁾ 다음 표를 보자.

9) 최초로 1912년 프랑스 언어학자 Antoine Meillet의 논문 “L'évolution des formes grammaticales” (문법적 형식의 진화)에서 문법 형식의 생성 과정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기존 표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법 형식의 창출이며, 하나는 독립적 어휘가 점차 문법적 요소로 전환되는 과정이다(Antoine Meillet, 1912:131). 이후 문법화 발전에 기여한 주요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Jerzy Kurylowicz는 *The Evolution of Grammatical Categories* (문법 범주의 진화, 1975)를 통해 역사언어학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Christian Lehmann는 *Thoughts on Grammaticalization* (문법화에 대한 고찰, 1982)을 통해 문법화 과정을 체계화하였고, 이후 핵심 연구자로 자리매김하였다. Bernd Heine와 Mechthild Reh는 *Grammaticalization and Reanalysis in African Languages* (아프리카 언어에서의 문법화와 재분석, 1984)을 통해 언어 유형론적 연구를 심화시켰다. Bernd Heine, Ulrike Claudi, Friederike Hünemeyer의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문법화의 개념적 틀, 1991)는 문법화 과정을 체계화하였고 문법화의 원인과 그 위계를 제시하였다. Paul J. Hopper와 Elizabeth Traugott의 *Grammaticalization* (문법화, 1993)는 이론과 실제 언어 자료를 통합한 대표적인 저서로, 이후 문법화 연구의 표준적 참고문헌이 되었다.

<표-1> 문법화 개념 영역의 정의

범주 (Category)	어휘 유형 (Word Type)	구성소 유형 (Constituent Type)
PERSON (사람)	인명 명사 (Human noun)	명사구 (Noun phrase)
OBJECT (사물)	구체 명사 (Concrete noun)	명사구 (Noun phrase)
ACTIVITY (행위)	동적 동사 (Dynamic verb)	동사구 (Verb phrase)
SPACE (공간)	부사, 전치사 (Adverb, Adposition)	부사구 (Adverbial phrase)
TIME (시간)	부사, 전치사 (Adverb, Adposition)	부사구 (Adverbial phrase)
QUALITY (성질)	형용사, 상태동사, 부사 (Adjective, adverb)	수식어 (Modifier)

Heine et al.(1991)이 위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의 개념 범주는 언어 내 어휘 항목을 포괄하며, 의미 전이가 발생하는 방향과 그 유형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축을 이룬다. 이들 범주는 의미 구조의 구체성에서 추상성으로 이어지는 인지적 위계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문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은유적 전이나 재범주화 현상 역시 이 위계 안에서 설명될 수 있다. 위 범주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개념 영역의 뜻풀이

개념 영역	뜻풀이	의미적 특성
사람	누구	인간
대상	무엇	동물·생물·사물
행위	어찌하다	동작·과정·사건
공간	어디	공간적 관계
시간	언제	시간적 관계
질	어떻게	상태·태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은유적 의미 확장은 개념 간 위계를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각 범주는 특정한 언어적 표현 유형과 대응 관계를 맺는다. 예를 들어, <사람(PERSON)> 영역으로의 확장은 본래 다른 개념 영역에

속한 어휘가 인간 명사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확장되는 경우이다. <대상(OBJECT)> 영역은 동물, 생물, 사물 등 비인간 존재나 물체를 지칭하는 어휘로 구성되며, <행위(ACTIVITY)> 영역은 동작, 과정, 사건 등 동사 중심의 어휘를 포함한다. <공간(SPACE)> 영역은 사물 간의 위치 관계나 방향성을 나타내는 공간적 표현으로, <시간(TIME)> 영역은 사건의 시점이나 지속성 등 시간적 개념을 포함하는 어휘로 확장된다. 마지막으로 <질(QUALITY)> 영역은 상태, 태도, 성질 등과 관련된 추상적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류, 상태동사, 부사 등의 어휘로 구성된다.

이처럼 Heine et al.(1991)이 제시한 위계 개념은 한 개념 범주에 속한 어휘가 다른 범주로 확장되는 경로를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서 본 연구의 중요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아래 예문을 보자.

(3)

ㄱ. <사람> U bizning firmamizning yuzi. 그는 우리 회사의 얼굴이다.

ㄴ. <대상> 그러니 북서쪽 뱃머리 부분에서 큰물이 쏟아져 내린다면 남원의 침수는 불을 보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ㄷ. <행위> 그녀는 항상 머리하다 화상을 입었다.

ㄹ. <공간> Он находился в голове поезда. 그는 기차의 앞쪽에 있었다.

ㅁ. <시간> 풋머리를 캔다는 것은 그만큼 수확량이 줄게 되니 손해라든 이만저만이 아니다.(김춘복, 『쌈짓골』)

ㅎ. <질> 돈각 부처의 분야별 예산안을 살펴볼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 수박 겉핥기식 베타치기 심의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위 예문 (ㄱ)에서 신체 어휘를 구성으로 한 ‘얼굴’은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 영역에 해당하며, (ㄴ)에서 합성어 ‘뱃머리’는 배의 앞부분을 나타내기에 <대상> 영역의 특성을 나타낸다. (ㄷ)에서 ‘머리하다’에서 ‘머리’는 머리카락을 다루는 행위를 나타내어 <행위> 영역에 해당한다. (ㄹ)에서 ‘в голове поезда’는 기차의 가장 앞쪽 부분을 나타내어 <공간> 영역에 해당한다. (ㅁ)에서 파생어 ‘풋머리’는 곡식이 만물이나 햇길이 나올 무렵을 의미하므로 <시간> 영역에 해당한다. (ㅎ)에서 ‘턱없이’는 상태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질> 영역에 해당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어휘의 의미 확장은 인지적 연상과 언어 내 구조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변화 과정이다. Pustejovsky(1995)의 국면 구조 이론은 어휘의 내적 의미가 형식·구성·기능·수단의 측면에서 어떻게 상호 작용하며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다의어의 복합적 의미 구조를 통합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한다. 또한 Heine et al(1991)의 문법화 개념 영역 위계는 구체적인 신체 개념에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어지는 의미 확장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의미 확장의 인지적 경로를 명확히 보여 준다.

II.1. 개념의 정의

인간은 유사성이나 인접성의 원리를 통해 기존의 개념들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인지적 능력을 발휘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다의어를 활용하게 된다. Heine et al.(1991:27)는 문법화의 관점에서 새로운 어휘에 대한 욕구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은 문장에서 새로운 기능을 위한 기존 수단의 활용 원리를 기반’으로 새로운 어휘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킨다고 하였다. 언어 사용자들은 새로운 개념이나 지시 대상을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첫째, 새로운 어휘를 창조한다. 즉, 임의적인 음성 결합을 통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

둘째, 다른 언어 또는 방언으로부터 차용한다.

셋째, 의성어와 같은 상징적인 표현을 만들어낸다.

넷째, 기존에 존재하는 어휘적 혹은 문법적 형태로부터 새로운 표현을 구성하고 또는 파생시킨다.

다섯째, 기존 형태를 활용하여 유추, 전이, 환유, 은유 등의 인지적 원리에 따라 기존 의미를 확장하여 사용한다.

이 가운데 다섯 번째 항목은 다의어 생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Heine et al(1991)는 이 현상을 설명하며, 언어생활에서 구체성이 낮은 개념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할 때, 인간은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념을 확장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다의어는 인지언어학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학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그 개념에 대한 정의는 여전히 연구자들마다 상의하게 규정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다의어 개념의 이론적 정의에 기여하

고자 다의어의 개념을 일관된 방식으로 정립해 보고자 한다.

한국어의 다의어 현상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관련된 여러 의미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다의’, ‘다의 관계’, ‘여러 뜻 지님’, ‘뜻이 여럿’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한국어 다의어 개념은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그리고 신개념 온라인 사전인 『우리말샘』 등 주요 한국어 사전들에서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낱말’ 정도로만 기술되어 있으며, 의미 간 연관성이나 동음이의어와의 구별 특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의어의 이와 같은 사전적 정의는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구분하는 데 있어 언어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언어 교육이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Большой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에서 다의어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적으로 연관된 의미를 가지는 현상”¹⁰⁾이라고 정의된다. 반면, 우즈베크어의 *O'zbek tilining izohli lug'ati 5jild*는 다의어를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현상’¹¹⁾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는 의미 간 관련성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 동음이의어도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면에서 이 정의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두 언어에서 제시된 정의는 모두 다의어의 핵심 특징인 ‘의미 간의 연관성’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한 단어가 동시에 두 가지 서로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를 동음이의어(омоним)라고 하는데 이 두 개념은 ‘관련성’의 유무 여부로 구분된다.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의미 체계상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어휘 현상이다. 이 둘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형식적 동일성과 의미적 연관성의 유무이다.

동음이의어는 음운 형태가 동일한 두 개 이상의 어휘 항목이지만, 이들 사이에는 의미적 연관성이나 개념적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

10) ‘Наличие у одного слова нескольких связанных по смыслу значений.’ Кузнецов (2000: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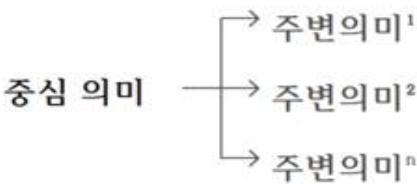
11) ‘Bir so'z yoki belgining bir necha ma'noga ega bo'lishi.’ *O'zbek tilining izohli lug'ati 5jild*(2020:89).

분은 형태적으로 동일한 어휘라도 그 의미 확장의 인지적 경로와 개념적 공유 구조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명확히 판별된다. 즉, 동음이의어는 역사적으로 외래어 차용, 음운 변화 등의 결과로 동일한 형태를 가지게 된 비연관적 항목들이며, 다의어는 언어 사용자의 인지적 범주화 과정에서 중심 의미가 점차 확장되며 파생된 의미적 연속체이다(음지룡, 2022:441). 이 두 가지 개념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도식화

다의어의 구조	동음이의어의 구조
중심 의미에서 확장	우연히 형태만 동일
의미망 형성	의미적 연관성 없음
기능적/개념적 유사성	별개의 개념 체계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는 형태가 모두 동일하다는 점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다의어는 의미들 간의 연관성의 특징이 있고 동음이의어는 연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구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의어는 사전에 하나의 표제어로 기술될 수 있지만, 동음이의어는 별도 표제어로 기술된다.



<그림 1> 다의어의 의미 구조

그림에서 중심 의미를 기반으로 확장된 ‘주변의미¹’, ‘주변의미²’, ‘주변의미ⁿ’은 서로 다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 단어들 간의 관계는 다의어가 동음이의어와 구별되는 핵심 특징인 의미적 관련성에 의해 정의된다. 즉, 확장된 각각의 의미는 기본 의미로부터 확장된 것으로, 이러한 의미 변화 과정에서 중심 의미와의 개념적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연관된 의미들 간에 다의 관계가 형성되며, 이러한 구조적 관계를 기반으로 다의어가 하나의

의미망을 이룬다. 의미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중심의미’와 ‘주변의미’의 구분이다.¹²⁾

II.2.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

중심의미는 단어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의미로, 다의어의 출발점이자 의미 확장의 기반이 된다. 주변의미는 중심의미를 바탕으로 다양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파생적 의미이다.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를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중심 의미: 통사론적 및 문법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으며, 근원을 이루는 원형 의미.

주변 의미: 통사론적 및 문법적으로 제약을 받으며, 주어진 문맥 내에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비원형 의미.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자.¹³⁾

(4)

ㄱ.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얼굴을 씻었다.

ㄴ. 그는 이 사소한 잘못 때문에 친구 얼굴을 더럽힐 것을 몰랐다.

ㄷ. 돌, 바람, 여자는 제주도의 얼굴이다.

예문 (4)에서는 신체 어휘 얼굴의 다양한 의미가 제시되어 있다. (ㄱ)은 중심의미, 즉 사람 신체를 가리키며, (ㄴ)은 ‘체면’, (ㄷ)은 ‘대표적인 표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예문에서 신체 어휘 얼굴의 의미는 ‘사람의 신체’라는 중심의미에서 인접성과 유사성을 통해 확장된 의미이다. (ㄴ)과 (ㄷ)은 비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신체 어휘들의 중심의미는 여전히 그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상으로, 다의 관계를 형성하는 자질 및 조건을 이해함으로써 다의어의

12) 다의 관계에서 대표적인 의미는 일반적으로 ‘중심의미’, ‘원형의미’, ‘기본의미’로 불리며, 이를 바탕으로 확장된 의미는 ‘주변의미’, ‘파생의미’, ‘확장의미’ 등으로 명명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용어들 중 ‘중심의미’와 ‘주변의미’를 사용하여 다의어의 의미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13) 예문 (4)는 국립국어원이 구축한 <모두의 말뭉치>를 검색 결과 예문이다.

개념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차이를 구별하고, 다의 관계를 이루는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에서 나타나는 다의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유사하게 기술할 수 있다.

한국어: 중심 의미로부터 관련성을 기반으로 확장된 주변 의미를 가진 일련의 낱말을 다의어라고 한다.

러시아어: Многозначное слово – это слово, имеющее ряд значений, расширенных на основе их связи с центральным значением (다의어는 중심 의미로부터 관련성을 기반으로 확장된 일련의 의미를 가진 낱말이다.)

우즈베크어: Ko‘p ma’noli so‘z – asosiy ma’nodan bog‘liqlik asosida ma’nosi kengaygan so‘zlar majmuasidir (다의어는 중심 의미로부터 관련성을 기반으로 확장된 일련의 의미를 가진 낱말이다).

앞서 한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에서 세 언어 모두 다의어를 ‘하나의 단어가 서로 관련된 다수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서로 관련이 있다’는 점이 하나의 중심 의미를 기반으로 발생한다는 핵심적인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다의어의 의미 확장은 무작위적인 연관이 아닌 중심 의미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거나 확장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III. 다의어 배열 체계에 대한 원칙과 제안

이 장에서는 다의어 배열의 원칙을 재검토하고, 특히 신체 어휘의 다의어 배열 원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사전에서의 배열 방식, 현대 국어에서의 사용 빈도, 그리고 사전의 뜻풀이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의어 배열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1. 다의어의 뜻풀이 기술

사전에서 다의어 배열 방식은 어휘의 의미 관계를 명확하게 반영하는 중

요한 요소로,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적절한 다의어 배열은 단어의 의미 확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 주며, 사용자가 어휘의 다양한 용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미 간의 논리적 연결성을 강화하여 언어 학습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고, 사전의 실용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만약 다의어 배열이 체계적이지 않거나 논리적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단어의 의미 변화를 혼동하거나 잘못 이해할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사전에서 다의어의 배열 방식에는 의미 확장 원리와 중심 의미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구성이 필요하다.

뜻풀이 방식을 기준으로 사전은 크게 ‘언어 사전’과 ‘백과사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언어 사전은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낱말들을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로 낱말 자체의 의미를 중심으로 풀이한다. 반면, 백과사전은 사물이나 사실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상세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각 항목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즉, 언어 사전은 의미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백과사전은 해당 단어에 대한 심층적이고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두 사전 중 언어 사전은 하나의 어휘가 다수의 의미를 가질 경우 이를 계층적으로 기술하여 다의어 배열을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핵심 의미를 먼저 제시하고, 이후에 점차 확장되거나 변형된 의미를 순차적으로 배열하는 방식을 따른다. 이러한 언어 사전은 의미를 기술할 때 일정한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의미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전에서 어휘 의미 배열 원칙은 아래와 같다(이상섭, 1998:11).

첫째, 해당 사물의 우연적인 속성이 아닌 본질적이거나 기본적인 속성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해당 사물이 속하는 범주와 그 자체의 특수성을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셋째, 동의어를 사용하여 정의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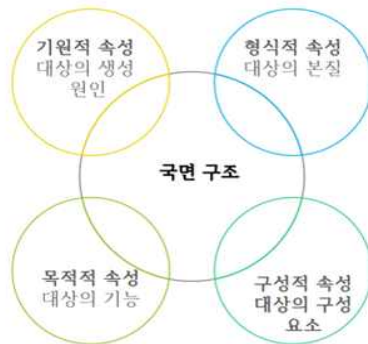
넷째, 정의는 간결해야 한다.

다섯째,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부정적이거나 상관적 개념을 이용하여 정의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사전 항목은 체계적으로 기술되며, 특히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를 갖는 다의 현상을 설명할 때, 중심 의미를 선정하는 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어휘의 의미는 단일한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그 의미의 다층적이고 풍부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틀이 필요하다.

어휘의 의미를 보다 깊이 있고 풍부하게 기술하기 위해, Pustejovsky (1995)가 제시한 생성 어휘부 이론의 국면 구조 개념은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이 이론의 주요 개념인 국면 구조는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휘의 의미를 보다 체계적이고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 개념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 어휘의 의미 구조

이 도식은 대상의 네 가지 속성이 대상의 종합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는 데, 특히 사전 편찬에 이 이론을 고려하면, 어휘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필’, ‘карандаш(연필)’, ‘qalam (연필)’의 사전적 의미를 분석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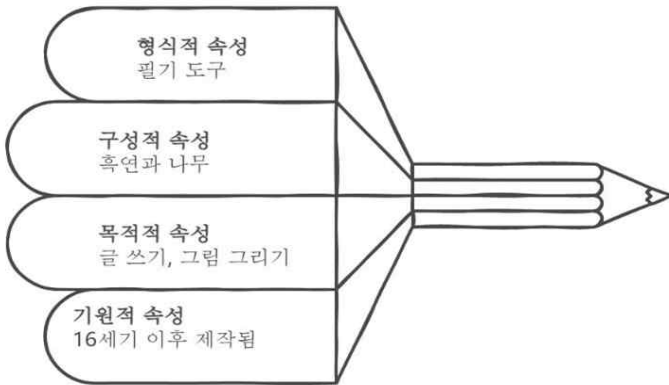
한: 필기도구의 하나. 흑연과 점토의 혼합물을 구워 만든 가는 다란 심을 속에 넣고, 겉은 나무로 둘러싸서 만든다. 1565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 (『표준국어대사전』, 2000:134)

러: Письменная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 деревянная палочка со стержнем из смеси глинистой массы с графитом.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Ожегова, 2018:233) 필기도구로 점토 성분이 섞인 흑연 심이 들어 있는 나무 막대.

우: xat yozish, rasm solish, uchun ishlatiladigan chizmachilik quroli; yog‘och yoki metall qobiq ichiga olingan material (ko‘mir, qo‘rg‘oshin, grafitdan qilingan o‘zak). (*O‘zbek tilining izohli lug‘ati*, 2020:187) 글쓰기, 그림 그리기, 도면 제작에 사용되는 도구. 나무나 금속 껍질 안에 숯, 흑연, 건조한 물감으로 만들어진 심이 들어 있는 도구.

세 언어의 사전에서 연필의 뜻풀이를 살펴보면, 연필의 본질, 구성, 목적적 속성, 기원적 속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연필의 사전에서의 의미를 국면 구조를 통해 도식화한다면 아래와 같다.



<그림 3> 연필의 국면 구조

위 도식을 보면 연필의 네 가지 속성은 연필의 종합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데에 가장 합리적인 틀을 제공하는데 이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형식적 속성은 ‘연필이 필기도구’이다.

둘째, 구성적 속성은 ‘나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외피와 흑연 심으로 구성된다’이다.

셋째, 목적적 속성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된다’이다.

넷째, 기원적 속성은 ‘흑연과 점토의 혼합물로 제작되며, 16세기

이후 발전하여 현재의 형태를 갖추었다'이다.

이처럼 국면 구조 이론을 활용하면 어휘의 의미를 보다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사전 편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중심 의미가 여러 관련 의미를 가질 경우, 다의어 배열 방식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사전 편찬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사전 편찬자에 따라 어휘의 다의 양상을 배열할 때 서로 다른 원칙을 따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어원적으로 가까운 의미나 빈도가 높은 의미에서 출발하여 점차 특수한 의미로 나아가는 순서를 취한다. 예를 들어, 『국어대사전』(1982)은 어휘의 뜻이 여럿일 경우, 어원에 가까운 의미부터 시작하여 ①, ②, ③의 순으로 배열하였다. 또한 『새 우리말 큰 사전』(1991)은 기본 뜻을 앞세우고 의미 확장의 차례로 ①, ②, ③ 등의 순서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배열 방식은 어휘의 의미 확장을 역사적으로 발전해 가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하거나,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를 먼저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익환(1992:23)은 사전 편찬에 다의어 배열이 “어원에 가까운 것”부터, 즉 역사적으로 먼저 파생된 의미부터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주로 빈도가 높으면서 “보편적으로 널리 쓰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의미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가 기존 의미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기존 의미를 부차적인 위치로 밀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적으로 먼저 발생한 의미가 더 보편적이고, 나중에 발생한 의미가 덜 보편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남기심 외(1992:5)는 사전 이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어휘의 역사적 정보보다 의미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어휘를 통시적 원칙에만 의해 배열할 경우 사전 사용자들은 원하는 의미를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강조하였다.

조남신(1994:19)은 새로 확장된 의미가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보편적인 의미로 자리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휘의 역사적인 발전을 고려해서 다의어 의미를 배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의미가 과거의 의미보다 더 널리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의 양상 배열 방식은 역사적 순서나 사용 빈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의미와 확장 의미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전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어 사전의 뜻풀이 방식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 사전의 편찬 방식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점이 일부 발견되었다. 특히 우즈베크어 사전의 경우, 어휘의 뜻풀이 등재 방식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의미 배열 원칙의 체계적 정립이 미흡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의미 간 구체성의 위계를 기준으로 보다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배열한다면, 다의어의 배열 방식이 더 체계적이고 유용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제시하려는 배열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구체적인 의미는 실물이나 감각적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둘째, 의미 확장의 과정에서 추상적 의미는 구체적 의미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반영한 배열 방식이 인지적으로 더 자연스럽다.

셋째, 사전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먼저 익숙한 구체적 의미를 이해한 후 추상적 의미로 기술하는 것이 어휘 이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러시아어 사전은 일반적으로 어원에 가까운 의미를 우선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따른다. 예를 들어, *Большой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에서 이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Кузнецов, 2000:15). 최초의 사전인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живого велико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ладимир Даль, 1880)에서는 다의 의미를 역사적 배경에 따라 배열한 형식이다.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Ожегов, 1960)는 다의어를 어원에 가까운 의미부터 배열하는 방식을 따른다. Медведова(2000:23)는 사전을 편찬할 때 역사적 특성과 어원적 특성을 동시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즈베크어 사전의 경우, 역사적으로 먼저 확장된 의미를 우선적으로 배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Normamatov, 2020:56). 예를 들어, 앞에서 살펴본 우즈베크어의 신체 어휘 ‘qo‘l’의 사전 기술을 살펴보면, 중심 의미인 ‘사람의 손가락부터 어깨까지의 신체 부위’가 ①로 정의된 후, ‘손바닥’의 의미가 ②로, ‘손가락’의 의미가 ⑤로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배열 방식은 ‘손바닥’의 의미가 ‘손가락’의 의미보다 먼저 생성되었다는 역사언어학적

가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필자가 제안했듯이 신체 어휘의 의미 배열에서 중심 의미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것부터 배치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인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즉, ‘사람의 손가락부터 어깨까지의 신체 부위’를 중심 의미로 설정하고, 그 하위 개념인 ‘손바닥’과 ‘손가락’을 중심 의미의 하위 범주로 기술한 다음 확장 의미를 배열하는 것은 언어적 직관과 논리적 체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세 가지 언어에서 역사적 배경 및 어원에 가까운 의미를 우선적으로 배열하는 형식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 장에서는 세 가지 언어 사전에서 다의어 배열 방식을 비교하고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2. 다의어 배열 제안

앞 장에서는 세 언어 사전에서 다의어 배열 방식이 어원적 근거나 역사적 의미 확장 순서를 따르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사전은 각 언어의 의미 확장 과정에 따라 다의어의 배열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세 언어의 사전에서 다의어 배열 방식은 유사한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특히 중심 의미의 배열 방식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다의어의 의미 확장 과정에서 중심 의미를 선정하는 기준과 그 배열순서가 언어 사용자의 직관적 이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신체 어휘를 중심으로 다의어 배열을 보다 체계적이고 인지적인 틀을 통해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틀은 어원적 관계나 의미의 시간적 발전을 따르는 것으로 하지 않고 의미 간의 인지적 연결성과 실용성을 고려하여 배열 방식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어휘의 중심 의미를 풀이할 때 국면 구조 이론을 활용하면, 어휘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특히 신체 어휘의 경우, 해당 신체 부위의 의미가 그 위치, 형태, 기능, 구성 등 국면적 요소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하여 의미를 기술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과 같은 신체 어휘는 ‘사람의 신체 일부’라는 정의로만은 의미 전달이 불명확해서 기능적 측면이나 형태적 특성까지 고려하여 의미를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다의어 배열을 할 때는 신체 어휘가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신체 어휘의 다의어 배열을 ‘사람 > 대상 > 행위 > 공간 > 시간 > 질’ 순서로 배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신체 어휘의 의미가 본래 인간의 신체 부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념인 <사람>에서 출발하여 점차 추상적인 개념인 <질>로 확장되는 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배열 방식은 사전 사용자가 신체 어휘 간의 의미적 연관성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언어 사용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인간은 외부 세계를 자신과 관련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체 어휘의 의미 확장은 인간의 신체와 행동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사람> 영역은 신체 어휘의 의미 확장의 출발점이 되며, 점차 추상적인 개념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따른다. 또한, <행위> 영역은 동작이나 활동과 관련된 개념을 포함하므로, 이 범주에 속하는 의미를 사전에서 별도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입’, ‘rot(입)’, ‘og’iz(입)’의 각 사전에서의 의미 기술을 살펴보자¹⁴⁾.

ㄱ. ‘입’ (『표준국어대사전』, 1999:4502)

- ① 입술에서 후두(喉頭)까지의 부분. 음식이나 먹이를 섭취하며, 소리를 내는 기관이다. 입이 크다.
- ② 포유류의 입 가장자리 위아래에 도도룩이 붙어 있는 얇고 부드러운 살. 입이 빨갛다.
- ③ 음식을 먹는 사람의 수효. 입을 덜다.
- ④ 사람이 하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입이 절다.
- ⑤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한 번에 먹을 만한 음식물의 분량을 세는 단위.

ㄴ. 러시아어 ‘rot(입)’ (Кузнецов, 2000:1130).

- ① Полость между верхней нижней челюстями, снаружи закрытая губами. Полость рта. Дышать ртам. 위턱과 아래턱 사이의

14) 한국어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이 사용 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어휘의 의미 분석을 위해 본 사전을 채택하였다. 러시아어 의미 분석을 위해서는 С. А. Кузнецов가 편찬한 *Большой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를 택했는데, 이 사전은 널리 사용될 뿐 아니라 어휘 의미 배열이 더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우즈베크어의 경우 해석 사전은 *O'zbek tilining izohli lug'ati* 5jild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 사전의 뜻풀이 예문을 채택하였다.

빈 공간으로, 입술로 덮여 있음. 입안, 구강. 입으로 숨 쉬다.

② Очертание и разрез губ. Большой р. Красивый р. 입술의 윤곽과 모양. 큰 입, 아름다운 입.

③ У животных: то же, что пасть. Рыбий р. 동물의 입. 물고기의 입.

④ Едок, иждивенец (прост.). Пять ртов кормлю. Лишний р. в семье. 식객, 부양해야 할 사람 (구어체). 다섯 식구를 부양하다.

⑤ Способность говорить.. на чужой роток не накинешь платок 말할 수 있는 능력, 의견을 표현하는 것. 남의 입에 수건을 씌울 수 없다.(속담)

⑥ прил. ротовой, -ая, -бе (к 1 и 3 знач.; спец.). Ротоваяполость형용사형: ротовой (1, 3번 의미와 관련된 전문 용어). 구강(口腔).

㉔. 우즈베크어 ‘og’iz(입)’ (*O’zbek tilining izohli lug’ati” 5jild, 2020:185*)

① Ikki jag’ o’rtasidagi, ovqatlanish, so’zlash yoki ovoz chiqarish uchun xizmat qiladigan bo’shliq. Baliqning og’zi. Og’iz bo’shligi. 위턱과 아래턱 사이에 있으며, 음식 섭취, 말하기, 소리를 내는 기능을 하는 공간. 물고기의 입, 구강(口腔), 사람의 입.

② Ikki lab va ularning bir-biriga tegib turgan joyi va atrofi. Og’zidan o’pmoq. 두 입술과 그 접촉 부분 및 주변. 입술에서 키스하다.

③ ko’chma. So’zlovchi kishi, odam. Ko’p og’iz bir bo’lsa, bir og’iz yengiladi. (Maqol) 말하는 사람, 사람. 많은 입이 하나로 합쳐지면, 하나의 입은 이길 수 없다.

④ ko’chma Birovning qaramog’ida bo’lgan odam. To’qqiz og’izni qanday boqaman? 누군가에게 부양받는 사람. 아홉 식구를 어떻게 먹여 살리나?

⑤ Miltiq, to’pponcha, minomyot, zambarak kabi otish qurollarining o’q otilib chiqadigan teshigi, stvoli. To’pning og’zi. 총, 권총, 박격포, 대포 등 발사 무기의 탄환이 나오는 구멍, 총구. 대포의 포구.

⑥ Ichki bo’shlig’i, ichi bo’lgan narsalarning kirish-chiqish uchun xizmat qiladigan joyi, teshigi. O’raning og’zi. G’orning og’zi. 속이 비어 있으며, 출입을 위해 사용되는 구멍이나 통로. 구멍이 입구, 동굴 입구.

⑦ Idishlarning narsa olish-qo’yishga xizmat qiladigan teshigi. Shisha og’zi. 그릇 등의 물건을 넣고 꺼낼 수 있는 구멍. (직역:

병의 입)

8. Ko'chaning, yo'lning boshlanish, kiraverish joyi. Ko'cha og'zi.
길이나 도로의 시작 또는 진입 부분. 거리 입구.

세 언어에서 ‘입’에 해당하는 어휘의 중심 의미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한국어 ‘입’은 사전적으로 ‘입술에서 후두까지의 부분이며, 음식이나 먹이를 섭취하고, 소리를 내는 기관’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는 신체 부위로서의 공간적 범위(위치면)와 함께, ‘섭식’과 ‘발화’라는 주요 기능(기능면)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면 구조의 복합적 측면을 반영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정밀한 개념 기술을 위해서는 ‘입술에서 후두까지, 혀와 치아를 포함하는 신체 부위로, 음식물 섭취 및 소리 생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이처럼 입의 구성 요소 중 핵심인 혀와 치아를 명시함으로써 개념적 명확성과 기능적 완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어의 ‘рот’은 ‘Полость между верхней и нижней челюстями, снаружи закрывая губами’ 즉, ‘위턱과 아래턱 사이의 빈 공간으로, 입술로 덮여 있는 부분’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는 주로 입의 위치(위치면)와 외형적 구조(구성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언급은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러시아어 ‘рот’ 역시 ‘Часть тела от губ до гортани, включая язык и зубы. Орган, который используется для приёма пищи, а также для образования звуков’ 즉, ‘입술에서 후두까지의 신체 부위로, 혀와 치아를 포함하며, 음식물 섭취 및 소리 생성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재정의하는 것이 보다 개념적으로 정합성 있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우즈베크어의 ‘og'iz’은 사전적으로 ‘Ikki jag‘ o‘rtasidagi, ovqatlanish, so‘zlash yoki ovoz chiqarish uchun xizmat qiladigan bo‘shliq’, 즉 ‘위턱과 아래턱 사이에 위치하며, 음식 섭취, 말하기, 소리내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정의된다. 이는 위치면과 기능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비교적 균형 잡힌 기술이라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정의 역시 구성 요소에 대한 구체적 명시는 없으며, 의미의 완결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Labdan boshlanib, til va tishni o‘z ichiga olgan kekirdakgacha bo‘lgan organ. Taom

yeyish va gapirish funksiyasini bajaradi’, 즉 ‘입술부터 혀와 치아를 포함하며, 후두까지 이어지는 기관으로, 음식 섭취와 발화 기능을 수행한다’로 보다 명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으로, 한국어 ‘입’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중심 의미를 ‘사람이나 동물이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는 신체 부위’로 정의한 후, 그다음 의미로 ② 포유류의 입, ③ 음식을 먹는 사람의 수효, ④ 사람의 하는 말, ⑤ 한 번에 먹을 만한 음식물의 분량을 세는 단위 등을 순차적으로 배열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일반적으로 어원에 가까운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로 점차 확장하는 방식으로 기술하는데, 이러한 배열 원리는 전통적인 기술 방식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Heine et al.(1991)의 문법화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한다면, 다의어 배열의 방식에 대해 보다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Heine et al.(1991:48)의 이론에 따르면, 개념의 의미 확장은 일반적으로 ‘구체적 → 추상적’ 방향으로 진행되며, 그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 ‘사람 > 대상 > 행위 > 공간 > 시간 > 질’의 순서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입’의 중심 의미 다음에 배열될 의미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르는 것이 이론적으로 더 타당하다.

언급한 원칙으로 한국어 ‘입’의 의미를 재배열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입’의 사전적 의미 및 재배열 제안

『표준국어대사전』	다의어 재배열
① 입술에서 후두(喉頭)까지의 부분. 음식이나 먹이를 섭취하며, 소리를 내는 기관이다.	① 입술에서 혀와 치아를 포함한 후두(喉頭)까지의 부분. 음식이나 먹이를 섭취하며, 소리 내는 기관이다.
② 포유류의 입 가장자리 위아래에 도도록이 붙어 있는 얇고 부드러운 살.	② 포유류의 입 가장자리 위아래에 도도록이 붙어 있는 얇고 부드러운 살.
③ 음식을 먹는 사람의 수효.	③ 음식을 먹는 사람의 수효.
④ 사람이 하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한 번에 먹을 만한 음식물의 분량을 세는 단위.
⑤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한 번에 먹을 만한 음식물의 분량을 세는 단위.	⑤ 사람이 하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입’의 ① 의미에 ‘혀와 치아를 포함한’이라는 정의를 추가하였다. 중심 의미 아래에는 동일한 신체적 구성 요소인 ‘포유류의 입’(②)을 배치하고 이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의 수효’(③)는 <사람> 범주에 속하는 의미로 배치한다. 그 다음으로는 <대상> 범주의 의미인 ‘한 번에 먹을 만한 음식물의 분량’(⑤)이 따라야 하며, 같은 영역에 해당하는 ‘사람의 하는 말’(④)은 마지막으로 배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⁵⁾

‘por’와 ‘og’iz’의 경우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 사전의 다의어 배열을 분석해 보면, 두 언어 모두 중심 의미 바로 아래에 원형 의미에 가장 가까운 의미를 정의한 후, <사람> 영역에 해당하는 의미를 배치하는 유사한 방식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어 사전에서 ⑥의 경우, 원형 의미에 더 가까운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배열상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어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한편, 우즈베크어 사전에서 ‘og’iz’의 의미 배열을 살펴보면, 중심 의미 아래에 어원적으로 가장 가까운 의미를 정의한 후, <사람> 영역, <대상> 영역, <공간> 영역 순에 맞게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배열 방식은 의미 확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반영하며, 보다 효과적인 의미 배열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다.¹⁶⁾

다음으로 러시아어 ‘рука’의 사전적 의미(Кузнецов, 2000:1132)를 분석해 보자.

① Одна из двух верхних конечностей человека от плеча до кончиков пальцев, а также от запястья до кончиков пальцев. 어깨부터 손가락 끝까지, 또는 손목부터 손가락 끝까지에 이르는 사람의 두 위쪽 팔다리.

② Часть тела как единица измерения. На расстоянии руки от меня. 측정의 단위로 사용되는 신체 부위. 나로부터 손길 닿는 거리.

15) 중심 의미를 국면 구조 이론을 적용하여 기술해야 하며 바로 아래에 신체적 구성 요소를 정의하고, 그다음으로 <사람> 영역에 해당하는 의미를 배열한다. 이후 <대상> 영역의 어휘군을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행위> 영역의 어휘는 동작을 표현하므로 별도로 기술한 후, <공간>, <시간>, <질>의 순서로 배열한다. 하나의 영역 내에 여러 의미가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나아가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다.

16) 하지만 우즈베크어 사전의 모든 어휘가 이 순서를 따르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③ (в косв. пад. с предло.) Сторона, бок. Сядь с левой руки от меня. (전치사로 사용됨). 쪽, 방향. 내 왼손 쪽에 앉아라 (왼쪽에).

④ Почерк, творческая манера кого-л. С трудом разбираю твою руку. 어떤 사람의 필체, 창작 방식. 너의 손글씨를 겨우 알아볼 수 있다.

⑤ Согласие на замужество, готовность вступить в брак. Претендент на чью-л. руку. Искать чьей-л. руки (искать себе жену). 결혼 승낙, 결혼할 준비. ¶ 누군가의 손을 청하다 (아내를 구하다).

⑥ О человеке (обычно какой-л. квалификации, социального положения). Стране нужны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рабочие руки (специалисты). (보통 정관사와 함께 복수형으로 사용). 어떤 사람(보통 특정 자격, 사회적 지위, 성격 등을 지닌 사람)을 지칭함. 국가에는 숙련된 노동자의 손(전문가)이 필요하다.

⑦ только ед. Разг. О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ом лице, способном оказать покровительство, содействовать кому-л. У него своя рук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단수형만 사용. 높은 지위 소유자로, 누군가를 후원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함. 그는 부처에 아는 손(연줄)이 있다.

⑧ Употр. для указания на вид, сорт, качество. Слесарь — золотые руки! Мастер на все руки (о том, кто всё умеет делать). 정관사와 함께. 구어. 종류, 품질, 기술을 나타냄. 그 기술자는 ‘황금손’이다! 뭐든 잘하는 사람(다재다능한 사람).

이 사전은 다의어를 배열할 때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정리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Кузнецов, 2000:6). 중심 의미 해석으로 보면 ‘рука’의 위치면과 구성면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 손의 ‘촉각’이라는 기능적 특성까지 추가하여 기술한다면, 이 어휘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고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점차 추상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로 확장해가는 방식으로 뜻풀이를 재배열하면 다의어 계층을 더 일정하게 기술하며 이는 다의어의 의미구조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рука’의 다의 배열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① ㉠ Часть тела человека и примата от плеча до кончиков пальцев.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предплечье, тыльную сторону руки,

ладонь и пальцы. Обладает чувствительностью к прикосновениям. 사람의 어깨에서 손끝까지의 신체 부위. 팔꿈치, 손등, 손바닥, 손가락을 포함한다. 촉각 기능을 한다.

㉠ та же конечность от запястья до кончиков пальцев. кисть. 손목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부위. 손목

㉡ Палец. Ноготь. На правой руке у неё блестящее кольцо с камнем. У неё на руках яркий красный маникюр. 손가락. 손톱. 그녀의 오른쪽 손에 보석이 있는 예쁜 반지가 있었다. 그녀의 손(손톱)에 밝은 빨간색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다.

② О человеке (обычно какой-л. квалификации, социального положения). Стране нужны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рабочие руки (специалисты). (보통 정관사와 함께 복수형으로 사용). 어떤 사람(보통 특정 자격, 사회적 지위, 성격 등을 지닌 사람)을 지칭함. 국가에는 숙련된 노동자의 손(전문가)이 필요하다.

③ Почерк, творческая манера кого-л. С трудом разбираю твою руку. 어떤 사람의 필체, 창작 방식. 너의 손 글씨를 겨우 알아볼 수 있다.

④ Согласие на замужество, готовность вступить в брак. Претендент на чью-л. руку. Искать чьей-л. руки (искать себе жену). 결혼 승낙, 결혼할 준비. ¶ 누군가의 손을 청하다 (아내를 구하다).

⑤ только ед. Разг. О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ом лице, способном оказать покровительство, содействовать кому-л. У него своя рук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단수형만 사용. 높은 지위 소유자로, 누군가를 후원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함. 그는 부처에 아는 손(연줄)이 있다.

⑥ (в косв. пад. с предло.) Сторона, бок. Сядь с левой руки от меня. (전치사로 사용됨). 쪽, 방향. 내 왼손 쪽에 앉아라 (왼쪽에).

⑦ Часть тела как единица измерения. На расстоянии руки от меня. 측정의 단위로 사용되는 신체 부위. 나로부터 손길 닿는 거리.

⑧ Употр. для указания на вид, сорт, качество. Слесарь — золотые руки! Мастер на все руки (о том, кто всё умеет делать). 정관사와 함께. 구어. 종류, 품질, 기술을 나타냄. 그 기술자는 ‘황금손’이다! 뭐든 잘하는 사람(다재다능한 사람).

이상으로 러시아어 ‘рука’의 중심 의미를 ①에 제시된 형식으로 ‘рука’의 위치, 구성, 기능을 반영하여 신체 어휘의 중심 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묘사하였다. (②)는 <사람> 영역에 해당하며, (③, ④, ⑤)는 <대상> 영역에 해당한다. <대상> 영역은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되는 방향으로 정의하였다. (⑥,⑦)은 <공간> 영역에 해당하며, <시간> 영역에 해당하는 의미는 확인되지 않았다. (⑧)은 ‘рука’의 <질>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정의는 신체 어휘 ‘рука’의 다의 배열하는 데에 일관성 있는 기술로 의미 간의 연관성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이상으로 ‘рука’의 뜻풀이를 재배열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풍부한 의미 배열을 제시함으로써 러시아어 사전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IV. 결론

이상으로, 사전에서 중심 의미와 다의어 배열을 분석한 결과 및 이를 토대로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배열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체 어휘의 중심 의미를 기술할 때에는 신체의 위치면, 형태면, 기능면, 구성면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신체 부위가 어떤 위치에 존재하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어떠한 하위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개념적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형태적 측면은 부가적 고려 요소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신체 부위가 시각적으로 명확한 형태를 지니거나, 그것이 의미 구성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손’의 경우 형태를 논리적으로 정형화하여 기술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형태면을 배제하더라도 중심 의미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신체 어휘의 의미 배열에서는 어원에 가까운 의미에서 시작하여 구체적인 의미부터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신체의 구성을 뜻하는 어휘를 중심 의미 하위로 기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중심 의미 이후의 다의어 배열에는 의미 확장의 인지적 경로를 고려한 체계적인 범주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심 의미 아래에는 어원적으로 인접한 의미를 먼저 제시한 후, 이후 의미 확장의 방향성을 ‘사람 > 대상 >

행위 > 공간 > 시간 > 질'의 순서로 설정하여, 구체적 개념에서 추상적 개념으로 나아가는 배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넷째, 각 의미 영역 내에서도 더욱 구체적인 의미를 상위에 배열하고, 점차 추상적인 의미로 전개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의미 간의 위계와 전이 과정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배열 원칙은 다의어의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신체 어휘의 개념적 구조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가파로바, 말로하트,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관용어 대조 연구 — ‘머리’와 ‘얼굴’ 관련 신체 관용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2. 강위규, 「우리말 관용 표현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3. 김보경, 「한국어 신체어의 은유와 환유」,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4. 남기심 외, 국어 어휘 단위의 사전적 제시를 위한 편찬학적 방법의 연구, 인문과학, 1992.
5. 남혜현, 「러시아어 신체어 *рука*의 의미전이 연구」, 『노어노문학』 18:2, 2006a.
6. _____, 「러시아어 신체어 *нога*의 다의성 연구」, 『러시아어 문학연구논집』 23, 2006b.
7. 배도용, 「신체어의 의미 확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8. _____, 『우리말 의미확장 연구』, 한국문화사, 2002.
9. 신기철·신용철, 『새 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10. 심재기, 『국어어휘론』. 집문당, 1982.
11. 아리스토텔레스(이종오 옮김),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I』, 리젠펜 출판사, 2007.
12. _____(박문재 옮김),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현대지성, 2021.
13. 이성하,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2016.
14. 이영환,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이티아론: 원인과 실체로서의 아이티아」, 『인간·환경·미래』, 17, 2014.
15. 이익환, 「국어 어휘 단위의 사전적 제시를 위한 편찬학적 방법의 연구」, 『인문과학』 94, 1992.
16. 이희승(1982),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82.
17. 임지룡, 「유사성의 인지적 의미 분석」, 『문학과 언어』 16, 1995.
18. _____, 「다의어의 비대칭 양상 연구」, 『언어과학연구』 15, 1998.
19. _____, 「국어학과 인지언어학」, 『나라 사랑』 108, 2004.
20. 조남신, 「다의어의 어휘 의미 계층과 의미 배열」, 『슬라브학보』 9,

- 1994.
21.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1999.
22. 플라톤(천병희 옮김), 『국가』, 도서출판 숲, 2013.
23. _____(왕학수 옮김), 『소크라테스의 변명 / 국가 / 향연』. 동서문화사, 2019.
24. 홍사만, 「신체어의 다의 구조 분석: ‘손’에 대하여」, 『千時權博士華甲紀念國語學論叢』, 형설출판사, 1985.
25. Heiko N. and Heine B. “Grammaticalization”, *The Cambridge Handbook of Historical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26. Heine, B. “Adpositions in African languages”, *Linguistique Africaine* 2., 1989.
27. _____, Claudi, U. and Hünemeyer, F.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28. Johnson M. *The Body in the min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존슨, M.(이기우 옮김), 『마음 속의 몸』, 한국문화사, 1992.]
29. Lakoff G.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레이코프, G.(이기우 옮김), 『인지의미론』, 한국문화사, 1992.]
30. Meillet A. “L’évolution des formes grammaticales”, *Scientia* 12, 1912.
31. Mirtojiev M. M. *O‘zbek tili polisemiyasi*, Toshkent, 1984.
32. _____ *O‘zbek tilining semasiologiyasi*, Mumtoz so‘z, Toshkent, 2010.
33. Norboyev J. “Phraseology in English and Uzbek language with use component ‘heart’”, *Qarshi*, 2015.
34. Normamatov S. “Leksikografiya asoslari”, *Alisher Navoiy nomidagi Toshkent davlat o‘zbek tili universiteti*, 2020.
35. *O‘zbek tilining izohli lug‘ati 5jild*, Toshkent, 2020.
36. Pustejovsky J. *The Generative Lexicon*, The MIT Press, 1995.
37. _____ and Boguraev B. *Lexical Semantics*, Clarendon press Oxford, 1996.
38. _____ and Jezek E. *Integrating Generative Lexicon and Lexical*

- Semantic Resourc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39. Даль В.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живого велико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1880.
40. Кузнецов С. А.(общ. ред.) *Большой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Норинт, 2000.
41. Масалева Н. В. “Соматизмы в русской языковой картине мира”,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 филол. наук, Иванов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2010.
42. Майсак А. Т. *Типология грамматикализации конструкций с глаголами движения и глаголами позиции*, М., 2005.
43. Майков И. В. *Нравоучительные басни*, М., 1765.
44. Медведова А. А. *Орфограф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1963.
45. Мугу Р. Ю. *Полисемантизм соматической лексики (на материале русского и немецкого языков)*, Майкоп, 2003.
46. Ожегов И.С.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2018.

Abstract

**Polysemy and Lexicographic Meaning of Vocabulary
in Korean, Russian and Uzbek**

Gaffarova, Maloh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principles of polysemy formation and the semantic relationships of body-part terms in Korean, Russian, and Uzbek. It integrates Pustejovsky(1995)'s Qualia Structure Theory with Heine et al.(1991)'s grammaticalization hierarchy (Person > Object > Activity > Space > Time > Quality). The analysis shows that core meanings expand from concrete to abstract concepts through contiguity and similarity. Polysemy and homonymy are distinguished by semantic relatedness rather than formal identity. The study proposes defining dictionary entries using qualia-based information—such as location, function, composition, and origin—to improve clarity and consistency. Comparing the three languages' dictionaries reveals that etymological or frequency-based ordering has cognitive limitation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rranging senses from concrete to abstract following the conceptual hierarchy. The proposed model offers a coherent framework for explaining how body-part terms develop multiple meanings across languages.

Key words : Qualia Structure, Grammaticaization, Central Meaning
and Core Meaning, Contiguity, Similarity

러시아어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 ты와 한국어의 지칭어 및 인칭대명사의 등가 관계 고찰: 빅토리아 토카레바의 중편소설 「티끌 같은 나」를 중심으로

승 주 연*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아프레산이 제안하는 러시아어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 ты의 6가지 용법을 중심으로 빅토리아 토카레바의 중편소설 「티끌 같은 나」에 있는 다양한 대화에서 ты가 활용된 예를 분석하여, 해당 인칭대명사와 등가가 될 수 있는 한국어의 지칭어 및 인칭대명사를 살펴본다. 이때 한국어 지칭어와 러시아어 인칭대명사의 사용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두 언어가 인칭을 지시하는 방식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는지 알아본다. 러시아어의 경우 ты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지칭할 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청자와 화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어 청자를 지칭할 때 나이를 우선시하는 한국 문화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등가어를 찾는 과정이 본고에서 제시된다.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호칭어-인칭대명사 비교와 달리, 본고는 지칭어-인칭대명사 간의 등가 관계에 주목하여 번역 사례를 분석하며, 러시아어 2인칭 단수 대명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한다.

주제어 : 2인칭 대명사 ты, 지칭어, 인칭어, 러시아어, 한국어,
화용론

*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박사 수료, krasibaya@daum.net

I. 서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언어를 통해 서로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하며, 의사 표현을 한다. 이때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종종 공손한 표현을 사용한다.¹⁾ 공손 이론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 대화 장면, 대화 상황이나 맥락 등을 고려한 이론이다.²⁾

『표준국어대사전』³⁾에서는 ‘공손’을 “말이나 행동이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라는 뜻을 가진 ‘공손하다’라는 형용사의 어근으로 본다. 『연세한국어사전』⁴⁾은 ‘공손’의 개념을 “예의 바르고 겸손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손이 겸손하여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 공손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경어법’이다. 경어법은 우리말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경어법은 화자가 청자, 문장의 주체, 객체에 대하여 높임의 의향을 드러내는 문법 범주를 일컫는다. 이 외에도 특정한 언어형식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화자가 청자에 대해 가지는 존대 의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공손법이 있다. 공손법은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심리적 거리, 발화 상황 등을 고려한 의사소통의 행위로서, 화용론적 범주를 말한다. 즉, 경어법은 문법적 범주이며, 공손법은 화용론적 범주이므로 화자가 높임의 의향을 가지고 경어법을 실현하더라도 의사소통 상에서 공손하지 않은 표현들이 존재한다.⁵⁾ 이와 관련하여 유송영⁶⁾은 ‘2인칭 대명사’의 역동성, 즉, 비규범적인 사용을 설명한다.

즉, 발화가 공손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려면 문법적인 조건 외에 화용론적 조건이 필요하다. 여기서 문법적 조건이란 경어법이고, 화용론적 조건은 공손법과 연관이 있는 언어 외적 요소로서 문법적 조건 외에 화자와 청

1) 허상희, 『한국어 공손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소통, 2012), 15쪽.

2) 이숙자, 「공손 표현에 대한 번역 전략: 호칭어를 사용한 대화체 문장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5 (2004), 131쪽.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URL: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 A%B3%B5%EC%86%90> (검색일: 2025년 9월 30일)

4) 언어정보연구원 연세 한국어 사전. URL: <https://ilis.yonsei.ac.kr/ysdic/search> (검색일: 2025년 9월 30일)

5) 허상희, 앞의 논문, 16쪽.

6) 유송영, 「2인칭 대명사 ‘당신, 자네, 너’의 사용」, 『한국어학』 23 (2004), 121-148쪽.

자의 관계, 대화의 장면 및 분위기 등의 상황적 맥락을 말하며⁷⁾, 이러한 요소들을 잘 나타내는 것이 호칭어와 지칭어이다.

호칭어는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언어적 장치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로서 특정 호칭어의 선택으로 인해 대화자들 혹은 청자와 화자 간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도 있고, 더 멀어질 수도 있다. 또한 특정 언어의 호칭어 체계는 해당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를테면 수직적 사회구조를 잘 반영하는 국어의 호칭어 체계는 수평적 사회구조가 반영된 미국영어의 호칭어 체계와 다르다.⁸⁾

지금까지 영어의 you나 러시아어의 ты나 Вы와 같은 2인칭 대명사 연구는 대부분 한국어의 호칭어와 비교하며 연구되어 왔다. 원은하·김세정·진실로⁹⁾는 코난 도일의 단편 중 「유명한 의뢰인」의 번역본 6종을 선정하여 2인칭 대명사 ‘you’를 한국어 2인칭 대명사 중 ‘당신’으로 번역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숙자¹⁰⁾는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한국어 번역본들을 비교하며, 호칭어를 사용한 대화체 문장들을 분석하여, 영어 문장에서 호칭어를 사용한 경우, 한국어로 번역할 때의 번역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한현희¹¹⁾는 러시아 희곡 『벚꽃 동산』속에 있는 다양한 호칭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의 번역 전략을 제시했다. 한편, 김나영¹²⁾은 톨스토이의 『니키타의 어린 시절』의 번역에서 러시아어 호칭어와 2인칭 대명사 Вы를 번역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언급하며, ‘ты-너’, ‘Вы-당신’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친분이 있고, 나이 차이가 거의 없는데 ты를 사용할 경우, 이때 ты의 등가어는 너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나이 차이가 크더라도 친분이 있다면 ты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부를 때 ты라고 지칭하면, 이때 ты의 등가어는 ‘너’가 될 수 없다. Вы 역시 ‘당신’과 등가어를 이룬다고 하기

7) 이숙자, 앞의 논문, 140쪽.

8) 박정운, 「한국어 호칭어 체계」, 『사회언어학』 5 (1997), 508쪽.

9) 원은하·김세정·진실로, 「공손성을 고려한 인칭대명사의 영한 번역: ‘당신’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6 (2018), 173-205쪽.

10) 이숙자, 앞의 논문, 131-155쪽.

11) 한현희, 「러시아 희곡작품 속 관계조절 호칭어의 한국어 번역 전략 고찰」, 『통번역학연구』 19 (2015), 53-85쪽.

12) 김나영, 「러시아 문학 번역에 대한 소고: A. 톨스토이의 『니키타의 어린 시절』을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80 (2023), 167-184쪽.

불편한 경우들이 존재한다. 부부나 연인이 서로를 ‘당신’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당신’은 싸울 때 상대방을 얹잡아 가리키는 뜻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다. 게다가 러시아에서는 부부가 서로를 **ты**라고 부른다. 따라서 ‘**ты**-너’, ‘**Вы**-당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부가 서로를 **ты**라고 부를 수 있으면, 이때 **ты**의 등가어는 ‘너’도 될 수 있지만, ‘당신’도 가능하다. 또한 **Вы**의 경우 2인칭 복수 대명사인 **вы**와 혼동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연구의 순서는 ‘**ты**’와 ‘**Вы/вы**’를 각각 한국어와 비교 및 대조한 후에 ‘**ты/Вы/вы**’와 한국어의 지칭어 및 인칭어와 비교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법 카테고리인 호칭어와 혼용되는 ‘지칭어’이다. 지칭어란 화자가 대화 중 가리키는 대상을 지시하는 말을 뜻한다.¹³⁾ 호칭어의 경우 구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반면, 지칭어는 문어와 구어에서 모두 나타난다.¹⁴⁾ 게다가 호칭어는 문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지만, 지칭어는 문장 성분으로 역할을 한다.

러시아어 2인칭 대명사와 연관이 있는 카테고리로서 호칭어 및 지칭어 체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카테고리는 인칭어이다. 송재영¹⁵⁾은 인칭어가 인칭대명사와 인칭 표현으로 구성돼 있다고 보았다. 인칭에 따라 인칭대명사보다는 인칭 표현이 더 활발하게 쓰이므로 인칭어 안에 다양한 인칭 표현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많은 연구가 한국어의 호칭어와 영어나 러시아어, 독일어의 인칭대명사를 비교한 반면, 한국어의 인칭어나 지칭어를 다양한 외국어의 인칭대명사와 비교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외국어의 인칭대명사와 등가를 이루는 것은 한국어의 인칭어와 지칭어인 만큼, 이와 관련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러시아어에서는 상대방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ты**와 **Вы**는 화용론적 측면에서 쓰임이 다르며, 외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조금 더 조심스러운 대명사는 친분이 있을 때나 권력관계, 나이 등의 차이가 있을 때 사용하는

13) 왕한석, 『한국사회와 호칭어』 (도서출판 역락, 2005), 17쪽.

14) 정유진, 「호칭어와 지칭어의 사용과 공손성」, 『인문사회』 21 (2021), 3089-3102쪽.

15) 송재영, 「한국어 인칭대명사 연구: 인칭표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19, 241쪽.

ты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ты의 등가어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빅토리아 토카레바의 「티끌 같은 나」에 나오는 대화를 분석하여 다양한 대화문 속 ты와 한국어 번역본¹⁶⁾을 비교 및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작품 속에서 ты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고자 하며, 러시아어 2인칭 단수 대명사 ты와 한국어의 인칭어 및 지칭어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과정을 통해 적합한 등가어를 찾아내고자 한다. 본고의 목적은 해당 번역본의 대화 내용 전체를 원문과 비교 및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ты의 등가어를 찾는 것이 목적이므로, 직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일부 오역이 있을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다.

II. 본론

러시아어의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가 한국어의 인칭어 및 지칭어와 등가를 이룬다는 것은 추측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한국어의 어떤 인칭어 및 지칭어와 등가를 이루며, 그 근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러시아어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 ты의 용법을 알아야 한다.

ты의 기본적인 용법을 알기 위해 MAC¹⁷⁾에서 제시하는 용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크게 네 가지 용법을 갖는다.

- 1)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사용된다.(보통 친한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여 친근감을 표현할 수 있으며, 다소 무례하게 느껴진다.)
- 2) (구어체) 보편인칭문에서 특정 행위를 일반화할 때 사용된다.
- 3) (구어체) 여격으로 쓰이며, 소사의 의미로 협박을 하거나 화가 많이 났다는 것 혹은 실망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된다.
- 4) (구어체) 소사적 의미로 감탄사와 함께 사용되어서 해당 감탄사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청자를 부르는 것과 연관 지어 사용되는 용법이 1번의 의미에 국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친한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여 친근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다소 모호하다. 얼마나

16) 토카레바, 빅토리아(송주연 옮김), 『티끌 같은 나』, (도서출판 잔, 2020), 430쪽.

17)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4-х т.*, (М.: Рус. яз.; Полиграфресурсы, 1999).

가까워야 친하다고 할 수 있는지,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가능한지, 혈연관계가 아닌 경우 어떤 관계까지 친하다고 할 수 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프레산¹⁸⁾이 제안하는 총 7가지 용법 중 실제 대화와 관련이 있는 6가지 용법은 다음과 같다. (1) ‘친밀함의 ты’ (ты близкое), (2) ‘혈연관계¹⁹⁾의 ты’ (ты родственное), (3) ‘유아적인 ты’ (ты детское) (друг к другу и к старшим), (4) ‘연장자의 ты’ (ты старшее), (5) ‘무례한 ты’ (ты хамское), (6) ‘교양 없는 ты’ (ты панибратское)가 그것이다.

‘친밀함의 ты’란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 서로를 부를 때 사용한다는 것을 뜻하며, ‘혈연관계의 ты’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부를 때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유아적인 ты’란 아이가 어른을 지칭할 때 사용되며, ‘연장자의 ты’는 반대로 연장자가 나이 어린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교양 없는 ты’는 잘 모르는 사람끼리 혹은 처음 보는 사람끼리 무식하거나 교양이 없어서 사용하는 경우이며, ‘무례한 ты’는 상대방에게 겁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프레산이 제안하는 ты의 용법 중 ‘ты внедиалоговое’는 생각 속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떠올리는 상황은 대화가 아니므로 제외하고, 동사 활용에서 ты가 생략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경우는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문장 내에서의 ты의 역할에 따라 ты는 다양한 격으로 표현이 가능하므로 주격을 포함하여 6격 모두를 분석 대상에 포함했으며, 명령문 또한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먼저 아프레산이 인정한 다양한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안젤라는 소설의 주인공이며, 가수가 되고 싶어 한다. 안젤라와 나타샤, 그리고 아버지 바시카는 시골에서 살며, 안젤라는 성공을 위해 도시로 떠난다. 키라 세르게예브나는 안젤라 가족의 이웃이며, 모스크바에 집이 있고, 영화계에서 꽤 유명하고 유능한 영화 평론가이다. 니콜라이와 레나는 부자이며, 안젤라는 도시로 상

18) Апресян Ю. Д.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Т. 2. Интегральное описание языка и системная лексикография* (Язык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1995), С. 152.

19) 러시아 가족법 제14조에 따르면, ‘родственник’이란 부모님, 자녀, 조부모, 손자, 손녀, 친형제, 이복형제나 이부형제를 가리킨다. 즉,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КонсультантПлюс. URL: https://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8982/ (Дата обращения: 30.09.2025)

경한 후 가수로 데뷔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게 된다.

친밀함의 ты는 부부간의 대화, 친구 사이뿐만 아니라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라도 서로 친밀함을 느낄 경우 양측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아래의 <표 1>은 친밀함의 ты가 사용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친밀함의 ты가 사용된 관계

부부	1.키라 세르게예브나와 남편 인노첸티 2.니콜라이와 레나
이웃	키라 세르게예브나와 안젤라의 아버지
친구/친분이 있는 사이	키라 세르게예브나와 레기나 니콜라이와 이고리
절친의 가족	니콜라이와 절친의 아내 라이사
연인	니콜라이와 안젤라
고용인과 피고용인	니콜라이와 변호사
헤어진 연인	니콜라이와 안젤라

이들은 친구나 연인, 고용인과 피고용인 등 관계가 다양하다. 이 중에서 예문 (1)의 경우는 인척 관계인 부부간에 나누는 대화이며, 예문 (2)는 키라 세르게예브나와 안젤라의 아버지 바샤의 대화이고, 예문 (3)은 니콜라이와 친분이 있는 이고리가 나눈 대화이며, 예문 (4)는 니콜라이와 그가 고용한 변호사가 나눈 대화이다. 마지막으로 예문 (5)의 경우는 니콜라이와 정신과 의사인 친구의 아내와 나눈 대화이다. 연인 사이나 헤어진 연인 사이인 경우, 모두 ‘자기’라는 호칭어(지칭어)로 지칭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레나와 경호원 모브달리 역시 친분이 있는 사이로 발전하지만, 잠깐 가까워지는 정도에서 그칠 뿐 연인 사이는 아니므로, 해당 관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

- Я хочу сделать зубы, – сказала Лена.
- Поезжай в Цюрих, – предложил Николай. – Поживи там.
- Ну конечно... Ты будешь диктовать: где мне жить... (Одна из

многих: 45)

“나 이 하고 싶어요.” 레나가 불쑥 말을 꺼냈다.

“취리히로 가. 거기 잠깐 머물면서 하든지.” 니콜라이가 제안했다.

“이럴 줄 알았어……. 언제나 당신이 지시하는 곳에서 살아야 할 테니까…….”(티끌 같은 나: 68)

위의 예문 (1)은 부부인 니콜라이와 레나의 대화이다. 두 사람은 부부이며, 레나는 50살, 니콜라이는 52살이다. 따라서 남편에게 ‘Ты будешь диктовать’라고 한 부분은 ‘당신이 지시하는 곳에서’라고 번역한 부분은 적절해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부부간에 사용할 수 있는 지칭어는 ‘오빠, 너, 당신, 자기, 이름+씨’ 등이므로, 부부간에 사용하는 ты의 등가어는 ‘오빠, 너, 자기, 당신, 이름+씨’ 등이 된다.

(2)

– Я ведь тебе уже заплатила. – удивлялась дачница.

– Тебе что, жалко? – удивлялся Васька. (Одна из многих: 8)
“돈은 선지급했잖아요.” 모스크바에서 온 여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돈 몇 푼 갖고 그럴 거야?” 바실리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다.

(티끌 같은 나: 12)

위의 예문 (2)는 키라 세르게예브나와 안젤라의 아버지 바시카가 나누는 대화이며, 키라에게 안젤라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아들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인다. 키라 세르게예브나는 물고기를 잡아달라며 안젤라의 아버지 바시카에게 돈을 미리 줬지만, 바시카가 다시 한번 더 돈을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키라 세르게예브나가 한 말에 있던 тебе나 바시카가 대답할 때 쓴 тебе 모두 번역본에서는 영형 호칭어로 처리했다. 두 사람이 이웃 관계여서 친분이 있긴 하지만, ‘너’나 ‘당신’이라고 번역하면 자칫 지나치게 무례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설에서 두 사람은 한 번밖에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의 친분을 소설 속에서 가늠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 경우 ты의 등가어는 영형 호칭어가 적절해 보이지만, 이웃이 친한 친구라면 ‘너’가 등가어가 될 수 있고, 이웃이지만, 적대 관계라면 ‘당신’이 등가어가 된다.

(3)

A) – У тебя зуб болит? – спросил Игорь. (Одна из многих: 38)

“치아에 문제라도 있나?” 이고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티끌 같은 나: 57)

B) – Ты не знаешь, как найти Анжелу? (Одна из многих: 62)

“자네 혹시 어디 가면 안젤라를 찾을 수 있는지 아나?” (티끌 같은 나: 93)

예문 (3)의 경우 니콜라이와 친분이 있는 이고리가 나누는 대화이며, 양쪽 모두 ты를 사용한 경우가 없어서 이고리가 니콜라이에게 ты라고 한 대화 (A)와 이고리가 니콜라이를 ты라고 한 대화 (B)를 찾았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서로를 ты라고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니콜라이의 나이는 52세이며, 이고리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나이 차이가 크지 않으리라고 추측되며, 서로 친한 사이이므로, 서로 말을 편하게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번역본에서는 영형 호칭어를 지칭어로 사용했지만, A)의 경우 у тебя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자네 치아에 문제라도 있나?”나 “자네 치아에 무슨 문제라도?” 정도가 적합할 것이다. 또한 두 사람이 친구라면, ‘너’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때 ты와 등가를 이루는 지칭어는 2인칭 인칭대명사 ‘자네’와 ‘너’가 된다.

(4)

– Обидно? Или перетерпишь ?

– Обидно. Не то слово. У меня мозги кипят.

– Тогда чего париться? – Пятерку исполнителю и десятку следовательно, чтобы не заводили дело.

– Ты о чём ? – нахмурился Николай. (Одна из многих: 106)

“속상해요, 아님 참을 만해요?”

“당연히 속상하지. 머릿속이 부글부글 끓어.”

“그럼 이렇게 하시죠. 다섯 장은 킬러에게 주고 열 장은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도록 수사관에게 주는 거예요.”

“자네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니콜라이가 미간을 찡그렸다. (티끌 같은 나: 157)

예문 (4)의 경우 니콜라이의 내연녀인 안젤라가 떠난 후에 니콜라이가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 레프 야코블레비치에게 하소연하는 내용이다. 니콜라이의 나이는 52세이지만, 변호사의 나이는 알 수 없다. 이들은 각각 고용인과 피고용인이지만, 서로를 *ты*라고 지칭하며, ‘Обидно’나 ‘Или перетерпишь?’처럼 주어를 생략하는 등 짧은 문장을 사용하며, ‘пятерка’나 ‘десятка’와 같이 구어체에서 쓰이는 단어를 쓰는 것으로 보아 친분이 있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니콜라이가 변호사에게 “*Ты о чём?*”이라고 하는 문장에서 러시아어 2인칭 대명사 *ты*는 자칫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 ‘너’나 ‘당신’보다는 ‘자네’라는 2인칭 대명사와 등가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호사 역시 아주 친한 사이라면, ‘자네’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친하지만, 나이 차이나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이 고용인을 ‘자네’라고 부르는 상황은 불편해 보인다. 따라서 변호사가 말한 ‘перетерпишь’라는 문장에서는 *ты*의 등가어는 영형 호칭어가 적합해 보인다.

(5)

– Это кризис, – гундосила Раиса. – Ты должен его переждать. Переболеть.

– А потом что ? – спрашивал Николай.

<...>

– Ты хочешь сказать, что я постарею? Постарею и смирюсь с неизбежностью. Так? (Одна из многих: 55, 56)

라이사는 빨래집게를 코에 꽂은 것처럼 듣기 거북한 비웃음으로 말했다.

“부부에게 위기가 온 거예요. 그 위기가 지나가길 기다려야죠. 그리고 이겨 내야죠.”

“그런 다음에는요?” 니콜라이가 진지하게 물었다.

<...>

“내가 지금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순리를 거스르지 말고 수궁하며 살아라, 뭐 그런 거죠?”

(티끌 같은 나: 82, 83)

예문 (5)는 니콜라이가 정신과 의사 라이사와 나눈 대화이며, 라이사는 절친의 아내이기도 하다. 라이사가 말한 “*Ты должен его переждать.*”는 라이사가 절친의 아내라는 것을 감안하고, *ты*를 영형 호칭어로 처리하지

않은 채 의미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자기²⁰⁾는 그 위기가 지나가길 기다려야 해요.”라고 번역할 수 있다. 따라서 ты의 등가어는 ‘자기’ 혹은 ‘이름+씨’가 된다. 니콜라이가 말한 “Ты хочешь сказать, что я постарею?”의 경우는 라이사가 절친의 아내라는 점을 감안해서 “제수씨는 그러니까 내가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호칭어와 지칭어가 다양하지 않은 러시아어의 경우 제수씨라는 호칭어를 러시아 사람들이 쓸 리 만무하지만, 절친의 아내를 지칭하는 ты의 등가어를 찾는다면 영형 호칭어와 ‘제수씨’가 된다.

<표 2> 혈연관계의 ты

모녀 관계	부녀 관계
안젤라와 어머니 나타샤	니콜라이와 딸

「티끌 같은 나」에서 ты를 지칭하는 대화는 모녀 관계와 부녀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예문 (6)은 안젤라와 어머니 나타샤의 대화이며, 예문 (7)은 딸과 니콜라이(아버지)의 대화이다.

(6)

Анжела сказала матери:

– Я уеду в Москву.

– Не пушу! – постановила Наташка.

– Непустишь, уеду безо всего. Как стою, – пообещала Анжела.

Наташка посмотрела на дочь и поняла: уедет.

Она вздохнула и пошла к соседке занимать деньги. (Одна из многих: 7, 8)

어느 날 안젤라가 통보하듯 말했다.

“저 모스크바로 떠날래요.”

“누구 맘대로?” 나타샤는 단호했다.

“안 보내 주면 지금 입은 이대로 아무것도 안 갖고 떠날 거예요.”

안젤라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나타샤는 딸을 한 번 쳐다보고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직감했다.

20) 왕한석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기’라는 지칭어를 여성들만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성별이 매우 중요한 결정 요소이며, 특히 2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에 이르는 중장년 화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 왕한석, 앞의 논문, 226-242쪽 참고.

‘내가 잡는다고 될 일이 아니군.’
그녀는 한숨을 한 번 쉬더니 옆집 여자에게 돈을 빌리러 갔다. (티
끌 같은 나: 12)

예문 (6)은 안젤라와 어머니 나타샤의 대화이다. 안젤라와 엄마 나타샤는
혈연관계이므로, 안젤라는 엄마를 지칭할 때 ты라고 한다. ‘Не пустишь’
에는 ты가 생략되었고, 생략된 ты를 살려서 직역하면, ‘엄마가 안 보내주
면’이 된다. 따라서 딸이 엄마를 지칭할 때 ты를 사용하면, ты의 등가어는
‘엄마’가 되지만, 엄마가 딸을 지칭할 때 ты를 사용한다면 ‘너’라는 2인칭
대명사가 등가어가 된다.

(7)
– Я ухожу, – произнес Николай. – Я устал.
– Ты только что отдыхал, -заметила старшая дочь. (Одна из
многих :59)
“내가 나가지. 지쳤어.” 니콜라이가 선언하듯이 말했다.
“아빠는 이제 막 휴가에서 돌아온 거 아니었어요?” 큰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티끌 같은 나:89)

예문 (7)은 니콜라이와 큰딸의 대화이다. 큰딸 레나가 어머니와 이혼하고
싶어 하는 아버지를 만류하는 부분이다. 아버지가 딸을 ты라고 지칭하는
경우, ты의 등가어는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인 ‘너’이며, 딸이 아빠를 ты라
고 부를 때, ты의 등가어는 ‘아빠’가 된다. 따라서 위 대화에서 ты의 등가
어는 ‘아빠’라는 지칭어와 ‘너’라는 인칭대명사가 된다.

<표 3> 연장자의 ты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을 지칭할 때	1. 키라 세르게예브나가 안젤라를 지칭할 때 2. 안젤라를 고용한 집에서 노파가 안젤라를 지칭할 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을 지칭할 때	1. 프로듀서 마르크가 안젤라를 지칭할 때 2. 프로듀서의 조수 스타스가 안젤라를 지칭할 때 3. 영화평론가 키라 세르게예브나가 신인 영화감독 사브라스킨을 지칭할 때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지칭할 때	1. 작곡가 이고리가 안젤라를 지칭할 때 2. 레나가 안젤라를 지칭할 때

	3. 니콜라이가 안젤라를 지칭할 때 4. 레나가 운전기사 세르게이를 지칭할 때 5. 레나가 경호원 모브달리를 지칭할 때 6. 니콜라이가 비서를 지칭할 때
--	--

연장자의 ты는 연장자 쪽만 청자를 ты로 지칭하는 경우이며,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1)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을 지칭하거나, 2)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을 지칭하거나, 3)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지칭하는 경우로 나뉜다. 안젤라를 고용한 집에서 노파가 안젤라를 지칭할 때는 노파의 나이가 상당히 많고, 노파가 직접적으로 안젤라의 고용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라고 보기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ты에 가깝다고 판단되고, 작곡가 이고리가 안젤라를 지칭하는 경우는 사실상 부부가 안젤라를 고용했기 때문에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니콜라이와 안젤라의 관계는 처음에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이었고, 이때는 니콜라이만 안젤라를 ты라고 지칭한다. 레나와 모브달리의 경우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여서 처음에는 레나만 모브달리를 ты라고 지칭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고, 가까워지면서 함께 ты라고 지칭하는 관계로 발전한다. 예문 (8)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ты가 사용된 예로 키라 세르게예브나가 안젤라와 나누는 대화를 나타내며, 예문 (9)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ты 중에서도 키라 세르게예브나와 신인 영화감독 사브라스킨이 나누는 대화이고, 예문 (10)은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 대화 중에서도 레나가 운전기사 세르게이와 나누는 대화이다. 예문(8)의 경우 부모와 자식 정도의 나이 차이를 추측할 수 있고, 예문 (9)의 경우 소설에 명시되지는 않지만, 키라 세르게예브나가 사브라스킨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예문 (10)의 경우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나이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8)

– А вообще у тебя какие планы ? – поинтересовалась Кира Сергеевна.

– Устроить жизнь. (Одна из многих: 14)

“근데 넌 앞으로 어쩔 생각이니? 생각해 둔 것 있어?” 키라 세르

게예브나가 궁금하다는 듯 질문했다.
 “어떻게든 자리를 잡아야죠.” (티끌 같은 나: 21)

예문 (8)은 키라 세르게예브나와 안젤라의 대화이다. 키라 세르게예브나는 안젤라의 고향에 별장을 갖고 있고, 안젤라 가족의 이웃이다. 키라 세르게예브나에게도 성인이 된 아들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안젤라는 키라 세르게예브나의 딸뻘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키라 세르게예브나는 영화평론가이고, 해당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키라 세르게예브나가 안젤라에게 ‘у тебя’라고 하는 부분은 ‘너는’이 되며, 이때 ты에 적합한 등가어는 2인칭 단수 대명사 ‘너’가 된다.

(9)
 – Возьмешь на эпизод. И еще, между нами... Имеет богатого покровителя. Он может вложиться. Это тебе не армянская деревня
 – Учтите, я не продаюсь. – предупредил Савраскин. (Одна из многих: 82)
 “단역으로 써 보면 어떨까. 이걸 우리끼리만 하는 애긴데..... 돈 많은 애인도 있어. 말만 잘하면 투자도 할 수 있구나봐. 아르메니아 시골의 널리고 널린 애들하곤 비교도 안 되지.”
 “미리 말씀드리지만 난 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브라스킨이 경고했다. (티끌 같은 나: 123.124)

예문 (9)는 이미 영화계에서 자리를 잡고 나이도 많은 키라 세르게예브나라는 영화평론가와 신인인 데다 젊은 영화감독 사브라스킨의 대화이며, 키라 세르게예브나가 영화감독 사브라스킨에게 영화에 잠깐이라도 출연하고 싶어 하는 안젤라를 추천하는 상황이다. 키라 세르게예브나는 영화감독을 ты라고 지칭하지만, 영화감독은 вы로 응대한다. 키라 세르게예브나가 사브라스킨보다 나이도 더 많고, 영화평론가로 자리를 잡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Возьмешь на эпизод.’에서 생략된 ты의 의미를 살리면, ‘자네가 단역으로 써 보면 어떨까.’ 정도가 되며, 이때 ты의 등가어는 ‘자네’라는 2인칭 단수 대명사가 된다.

(10)

– Я могу идти? – спросил Сергей.

– Может, повесишь люстру? – попросила Елена. (Одна из многих:

94)

“퇴근 해도 될까요?” 세르게이가 물었다.

“상들리에 좀 달아 주고 갈래요?” 레나가 부탁했다. (티끌 같은 나: 140)

예문 (10)은 레나가 운전기사 세르게이와 나눈 대화이다. 세르게이는 퇴역 군인 출신이며, 레나의 나이가 50살인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크지 않아 보인다. 위 대화에서 ты는 영형 호칭어로 처리했지만, ты의 등가어는, ‘세르게이씨(이름+씨)’도 가능하다. 물론 레나가 세르게이와 매우 친하다면, ‘자기’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 ты의 등가어는 영형 호칭어, ‘이름+씨’, ‘자기’가 된다.

(11) [무례한 ты]

– Хватит, -сказал маэстро. – Раздевайся.

– Зачем?-не поняла Анжела. (Одна из многих: 21)

“그만하면 됐어.” 마에스트로가 입을 열었다.

“옷 벗어.”

“옷은 왜요?” 안젤라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었다. (티끌 같은 나: 33)

예문 (11)의 경우 가수가 되고 싶은 안젤라가 유능한 프로듀서 마르크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프로듀서가 안젤라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는 장면이다. 프로듀서의 조수가 안젤라에게 이것이 일종의 테스트라고 설명을 했다고 해도, 안젤라가 상당히 놀라고 겁먹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 프로듀서가 안젤라를 ты라고 지칭했을 때는 ‘무례함’에서 더 나아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위 대화에서는 명령문의 특성상 청자를 지칭하는 ты는 생략되었고, 이때 등가어 또한 생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교양 없는 ты]

– А ты ничего, – сказал Савраскин. – Когда злишься, в тебе

что-то появляется. Могу дать тебе роль третьего плана. Небольшой эпизод. Покажешь свою красивую задницу.

– Козел, – сказала Анжела. – Думаешь, со мной можно так разговаривать? Вот возьму и вылью тебе соус на башку. (Одна из многих : 85)

“넌 그 정도면 괜찮아. 화를 낼 때 특히 더 마음에 든단 말이야. 너한테 단역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어. 길지 않은 장면으로 말이야. 네 예쁜 엉덩이나 한번 보여주면 돼.”

“나쁜 놈! 나랑은 이런 식으로 대화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소스를 머리통에 쏟아 버릴까 보다.”(티끌 같은 나: 127)

예문 (12)의 경우 니콜라이와 어린 애인인 안젤라가 영화감독 사브라스킨을 만나는 상황에서 니콜라이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사브라스킨이 안젤라와 하는 대화이며, 두 사람은 초면이지만, 사브라스킨은 자신과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젊은 아가씨에게 무례하게 군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교양 없는 ты라고 볼 수 있으며, ты의 등가어는 무례함이 묻어나는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인 ‘너’가 된다.

빅토리아 토카레바의 「티끌 같은 나」의 경우 아프레샨이 제안한 6가지 ты의 용법 중 유아적인 ты만 제외하고, 모두 발견되었고, 이 중 친밀한 ты와 연장자의 ты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소설 속에 친밀한 관계에 놓여있는 등장인물이 많으며, 연장자의 ты를 쓸 수 있는 관계 또한 많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이 차이가 크더라도 친밀한 관계(친구, 연인, 이웃, 고용인과 피고용인 등)라면 서로 ты라고 지칭할 수 있지만, 나이 차이 외에도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한쪽이 높고, 다른 한쪽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쪽만 ты라고 지칭한다. 또한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면, ты의 사용에도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니콜라이와 안젤라가 처음에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이었고, 이때는 니콜라이만 안젤라를 ты라고 지칭했지만, 이들이 연인으로 발전한 후에는 안젤라 역시 ты라고 지칭하면서 이때 이들이 사용한 ты는 친밀함의 ты가 된다. 흥미로운 점은 헤어진 후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ты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위의 대화 분석을 통해 ты의 등가어를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서로 ты를 사용하는 경우:

- 화자와 청자가 부부인 경우에 ты의 등가어는 ‘당신’, ‘너’, 혹은 ‘자기’라는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이다.
- 친분이 있거나, 친구 사이인 경우 ты의 등가어는 나이 차이에 따라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인 ‘자네’, 혹은 ‘너’가 된다.
- 절친의 가족인 경우, 상대방이 친구의 아내라면 ты의 등가어는 ‘제수씨’라는 지칭어이며, 여자의 경우 남편의 친구를 ты라고 불렀다면, 이때 ты의 등가어는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인 ‘자기’ 혹은 ‘이름+씨’가 된다.
- 연인이나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연인일 경우 ты의 등가어는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인 ‘자기’나 ‘당신’이 된다.
- 고용인과 피고용인 중에서도 서로 막역한 사이이고, 나이 차이가 거의 없다면, ты의 등가어는 ‘자네’나 ‘너’, ‘자기’와 같은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 혹은 상황에 따라서 영형 호칭어가 된다.
- 모녀 관계나 부녀 관계의 경우 딸이 어머니 아빠를 부를 때 ты를 사용한다면, 이때 ты의 등가어는 ‘엄마’ 혹은 ‘아빠’가 되며, 어머니 아빠가 자녀를 부를 때 ты를 사용한다면, 이때 ты의 등가어는 ‘딸의 이름’이나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 ‘너’가 된다.
- 나이가 비슷한 두 사람이 초면에 서로 ты라고 한다면, 이때 ты의 등가어는 무례함이 묻어나는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인 ‘너’가 된다.

2) 대화를 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상대방을 ты라고 부르는 경우:

-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이 아주 어린 사람을 ты라고 한다면, 이때 ты의 등가어는 ‘너’, 혹은 ‘상대방의 이름’이 된다.
-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을 지칭할 때 ты를 사용한다면, ты의 등가어는 ‘당신’, ‘자기’, ‘너’ 등과 같은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가 된다.
-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ты라고 부를 경우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다면, ты의 등가어는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인 ‘자기’ 혹은 ‘너’이며,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라 할지라도 나이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영형 호칭어가 등가어가 될 수 있다.
- 갑의 위치에 있는 프로듀서가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 안젤라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며 “(너) 옷 벗어!”라고 명령하는 부분의 경우는 대부분의 명

령문이 그렇듯 영형 호칭어를 사용하며, 명령문이 아닌 경우라면 ты의 등가어는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인 ‘너’가 적합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어의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 ты는 ‘너’나 ‘자기’ 같은 한국어의 2인칭 단수 인칭대명사나 다양한 지칭어와 등가 된다. 어머니 아빠가 자녀를 부를 때 사용한 ты는 ‘너’라는 2인칭 대명사로 번역할 수 있고, 사장이 비서를 부를 때 사용한 ты는 비서의 이름(이름을 알 수 있다면)으로 번역하면 되며, 절친의 아내를 부를 때 사용한 ты의 등가어는 제수씨, 혹은 영형 호칭어이며, 명령문의 경우는 지칭어 대신 영형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와 같이 ты는 단순히 반말에 사용되는 ‘너’ 외에 무수히 많은 지칭어나 인칭대명사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지칭어와 러시아어 인칭대명사의 사용 양상을 대조함으로써 두 언어가 인칭을 지시하는 방식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는지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호칭어-인칭대명사 비교와 달리, 본고는 지칭어-인칭대명사 간의 등가 관계에 주목하여 번역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어와 러시아어는 모두 발화 상황에서 화자·청자·제삼자를 지시하는 체계가 발달해 있으나, 언어적 실현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러시아어의 경우 2인칭 대명사 ты가 친밀함, 혈연, 혹은 무례함까지 다양한 사회적 뉘앙스를 담아 활용된다. 반면 한국어는 나이 차이, 사회적 신분의 차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차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 등 조금 더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대응 번역에서 ‘자기, 자네’와 같은 2인칭 단수 대명사나 ‘엄마, 아빠’와 같은 혈연 지칭어, 혹은 발화 상황에서 생략(영형 호칭어) 전략이 빈번하게 사용된다. 특히 무례한 ты는 ‘너’로 직역되기보다, 문맥에 따라 반말체 서술이나 무시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친분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 피고용인이 고용인을 부를 때, 절친의 아내를 부를 때,

나이 차이를 알 수 없는 두 사람이 서로를 ты라고 부를 때 적합한 한국어 등가어를 찾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인칭 지시 방식은 ‘직접적 대명사 사용’과 ‘맥락 기반 지칭어 선택’이라는 상보적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번역 과정에서 단순히 어휘적 등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화행 의도와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기능적 등가 설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어 지칭어와 러시아어 인칭대명사 비교를 통해 두 언어가 인칭 지시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조직화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더욱 다양한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번역학,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URL: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 A%B3%B5%EC%86%90> (검색일: 2025년 9월 30일)
2. 김나영, 「러시아 문학 번역에 대한 소고: A. 톨스토이의 『니키타의 어린 시절』을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80, 2023.
3. 박정운, 「한국어 호칭어 체계」, 『사회언어학』 5, 1997
- 송재영, 「한국어 인칭대명사 연구: 인칭표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19.
4. 언어정보연구원 연세 한국어 사전. URL: <https://ilis.yonsei.ac.kr/ysdic/search> (검색일: 2025년 9월 30일)
5. 왕한석, 『한국사회와 호칭어』, 도서출판 역락, 2005.
6. 원은하·김세정·진실로, 「공손성을 고려한 인칭대명사의 영한 번역: ‘당신’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6, 2018.
7. 유송영, 「2인칭 대명사 ‘당신. 자네, 너’의 사용」, 『한국어학』 23, 2004.
8. 이숙자, 「공손 표현에 대한 번역 전략: 호칭어를 사용한 대화체 문장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5, 2004.
9. 정유진, 「호칭어와 지칭어의 사용과 공손성」, 『인문사회』 21, 2021.
10. 토카레바, 빅토리아(송주연 옮김), 『티끌 같은 나』, 도서출판 잔, 2020.
11. 한현희, 「러시아 희곡작품 속 관계조절 호칭어의 한국어 번역 전략 고찰」, 『통번역학연구』 19, 2015.
12. 허상희, 『한국어 공손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소통, 2012.
13. Апресян Ю. Д.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Т. 2. Интегральное описание языка и системная лексикография*, Язык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1995.
14. КонсультантПлюс. URL: https://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8982/ (Дата обращения: 30.09.2025)
15.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4-х т.*, М.: Рус. яз.; Полиграфресурсы, 1999.
16. Токарева В. *Одна из многих*, АСТ, 2007.

Abstract

**A Study on the Equival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Russian Pronoun ‘ты’ and Korean Pronouns:
Focusing on Victoria Tokareva’s *One of the Many***

Seung, Joo Yeoun
(Korea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s Korean referring expressions with Russian personal pronouns, focusing on functional equivalence in their interaction with the second-person pronoun ты. It examines translation strategies and semantic nuances arising from the multifunctional use of ты, which can convey intimacy, kinship, or rudeness. In contrast, Korean generally avoids direct second-person pronouns, using kinship terms, intimate expressions, or zero forms; rude uses of ты are often rendered through impolite or colloquial styles rather than ‘너’.

The findings indicate that Russian relies on explicit pronouns, while Korean depends on context-bound expressions, suggesting that translation must account for social relationships and speech acts. This study contributes to translation studies and contrastive linguistics and calls for further research across diverse textual genres.

Key words : Second-person Pronoun ‘ты’, Designator, Personal Word, Russian, Korean, Pragmatics

『조선어배우기』의 문법 메타언어 연구: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와의 대조를 중심으로

윤 효 승*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북한에서 발간된 『조선어배우기』와 한국에서 제작된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를 대상으로, 문법 설명에서 사용된 러시아어 메타언어의 활용 양상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두 교재는 모두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문법 항목을 설명하는 방식과 러시아어의 기능적 활용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분석은 국립국어원의 문법 분류를 바탕으로 조사, 어미, 연결 표현, 복합 표현의 네 범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조선어배우기』는 문법 항목 간의 의미 및 시제 간 대비를 중심으로 제시하며, 대응되는 러시아어 표현을 직접 병기하거나 예문 번역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의미적 대응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반면 『카자흐한국어』는 형태적 조건과 규칙 설명을 중시하고 화용적·담화적 기능을 보다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문법의 체계적 이해를 유도한다. 본고는 두 교재의 러시아어 메타언어 활용을 대조함으로써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한 자국어 문법 교육에서 메타언어가 갖는 교육적 함의를 고찰하고, 교재별 문법 설명 대조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북한, 조선어, 한국어교육, 조선어배우기, 메타언어

* 부산가톨릭대학교 국제교육원 초빙교수, hsyoon@cup.ac.kr

I. 서론

한국어교육과 조선어교육은 외국어로서의 자국어교육이라는 목적 아래 남북한의 언어 교육 정책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전해 왔다. 조선어교육은 1954년부터 시작되어 학문적 체계를 형성했으며, 이는 1959년 연세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된 한국어교육과 유사한 역사적 흐름을 가진다(김한근, 2022). 북한에서는 자국어에서의 조선어교육뿐만 아니라 해외 학습자를 위한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버전의 교재를 출판했으며, 한국어교육 역시 해외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을 통해 교육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교재들은 외국어로서의 자국어교육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용 교재에 관한 연구는 김중섭·조현용(1996), 이관식(2005), 오현아·전영근(2022) 등으로 이어져 왔으며, 어휘·문법·회화·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선어교육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조선어배우기』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스가이 외, 2024; 주은진 외, 2025; 허예인·스가이 요시노리, 2025)은 해당 교재를 다른 북한 교재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편, 조선어와 한국어 교재를 비교한 연구들도 어휘(임건수·송봉운, 2024), 문법(이주행, 2004), 초급 교재(김한근, 2021) 등에서 진행된 바 있으나, 조선어교육에서 메타언어로서 러시아어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선어교육을 목적으로 발간된 『조선어배우기』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 동일한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출판된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이하, 『카자흐한국어』)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두 교재는 문법 설명에서 러시아어를 메타언어로 사용하므로 대조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다. 두 교재의 문법 설명에 사용된 러시아어 메타언어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각 교재가 러시아어를 어떤 방식으로 문법 설명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한편, 한국어 교재의 문법 설명에서도 메타언어의 혼용이나 저빈도 용어 사용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이유경, 2018), 이에 따라 한국어 설명 자체에 대한 선행적 검토의 필요성 또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어 설명의 번역이 아닌 러시아어 단독 메타언어를 통해 문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되고 학습자의 이해를

매개하는지를 살피는 데 우선적인 의의를 두었다.

본고는 초·중급 교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초급 단계는 외국어 습득에서 모국어 혹은 익숙한 매개어가 의미 생성의 중심 역할을 하며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이 크게 작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초·중급에서 제시된 고빈도 문법 항목들은 반복 제공되어 이후 단계 문법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중급 이상의 학습자는 매개어를 통한 사고단계에서 벗어나 한국어로의 빠른 전환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초·중급 단계에 살펴보고, 중·고급 교재 분석은 후속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검토

선행연구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 교재와 조선어 교재의 내용 및 구성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이주행, 2004; 김한근, 2021, 2022; 임건수·송봉운, 2024; 여란결·강현화, 2024), 둘째, 한국어 교재에 병기된 러시아어에 대한 분석 연구(함계임, 2020), 셋째, 『조선어 배우기』에 대한 연구(스가이 외, 2024; 주은진 외, 2025; 허예인·스가이 요시노리, 2025; 윤효승, 2025), 넷째, 한국어 교재의 문법 설명에 관한 연구이다(이유경, 2018; 이수미, 2022). 이 가운데 본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연구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여란결·강현화(2024)는 『조선어 1~5: 류학생용』(이하, 『조선어』) 교재를 대상으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하, ‘통용’)과 비교하여 문법 항목의 구성과 등급별 체계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조선어』의 문법 항목 수는 ‘통용’보다 적지만 ‘통용’의 문법 중 상당수가 『조선어』에서는 어휘적 구의 형태로 제시되어 실제 학습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두 교재의 문법 항목은 대부분 일치하거나 유사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핵심 문법 체계는 대체로 공통된 기반 위에 있었다. 또한 『조선어』 교재가 표현 문형 중심의 문법 항목을 포함하여 의사소통적 성격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 맥락에서의 화용적 의미보다는 형식적 규범 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남북한 교재가 문법 내용 면에서는 유사성을 지니면서도 교수 관점과 제시 방

식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함계임(2020)은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의 문법 기술 방식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세종한국어』와 『카자흐한국어』를 대상으로 조사의 문법 기술과 연결어미 설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용어의 혼용, 유사 문법 간의 변별 부재, 의미 및 용법 설명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어에서 러시아어와 격 기능이 일치하는 항목에 대한 용어 기술 방식과 유사 문법을 변별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한 문법 기술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는 러시아어를 메타언어로 활용한 한국어 교재의 문법 기술 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고의 문법 메타언어 비교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윤효승(2025)은 『조선어배우기』의 실제 예시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교재의 외적·내적 특성을 조명하였다. 그중 문법 구성과 제시 방식을 분석한 부분에서는 문법 교육이 형태 인식과 조합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문법 항목 제시는 풍부하지만 의미적·화용적 맥락을 고려한 설명이 부족하여 학습자의 실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한 과 내에 여러 문법 항목이 제시되고 문형 연습에서도 다양한 문법 구조가 반복되지만, 이러한 문법 항목들이 과의 주제와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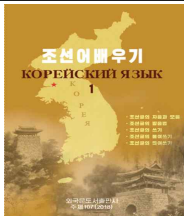
이수미(2022)는 한국어 교재 5종에 제시된 문법 항목의 제시 방식과 설명 언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문법 설명에 사용된 용어가 의미적·품사적 정보를 담고 있음에도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이해 어휘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분석하며, 이러한 용어 사용이 오랜 기간 비판 없이 답습되어 온 교재 개발 관행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다수의 한국어 교재가 영어 번역을 병기하고 있으나, 영어권 학습자가 다수를 차지하지 않는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방식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III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III.1. 연구 대상

『조선어배우기』는 북한에서 국외 학습자를 대상으로 출판된 교재 중 가장 최근의 것으로 확인되며, 학습자의 언어권에 따라 러시아어판과 중국어판으로 구성되었다. 이 교재는 조선어 내용을 기초로 언어권에 따라 번역이 병기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에서 출판한 국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인 『카자흐한국어』는 교재의 설명이 카자흐어가 아닌 러시아어로 되어 있어 러시아어권 학습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교재이다.²⁾

<표 1> 『조선어배우기』 서지 정보

교재		저자	출판 연도	쪽수	출판사	등급 ³⁾
	조선어배우기 기 1	배광희 외	2017	284	외국문도서출판 사	5급 (초급)
	조선어배우기 기 2	최승주 외	2021	429	외국문도서출 판사	4급 (초·중 급)
	조선어배우기 기 3	안중천 외	2022	317	외국문도서출 판사	3급 (중급)

또한, 『조선어배우기』의 중국어 학습자용 버전을 확인한 결과, 두 교재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름과 지명이 각 언어권에 맞게 조정되고 병기된 언어만 차이가 난다. 『카자흐한국어』 역시 다른 언어권의 버전을 확인한 결과, 학습자에 맞춰 이름과 지명을 변경하고 일부 삽화와 목차가 일부 다를 뿐 기본적인 교수요목의 틀은 동일하며 언어 병기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어서 두 교재는 기본적인 교육 구성과 교수 요목의

- 2)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는 교재의 설명이 카자흐스탄어가 아닌 러시아어로 되어 있어 러시아어권 학습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교재이다. 그럼에도 ‘카자흐스탄인’이라고 한 것은 등장인물의 이름, 문화적 요소들에 카자흐스탄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는 러시아어권 한국어 교재로 볼 수 있다(함계임, 2020).
- 3) 『조선어배우기1』이 발행된 이후인 2019년에 북한에서는 언어 구사 능력을 평가하는 조선어소유급수 기준을 1~5급으로 제정하였다. 가장 낮은 급이 5급이고 전문가 수준에 가깝게 구사하는 사람에게 1급이 부여된다. 따라서 교재의 1권은 초급, 2권은 초중급, 3권은 중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어교육에서는 1·2급은 초급, 3·4급은 중급, 5·6급은 고급 수준에 해당한다. 다음을 참조. 정빛나, 「북한판 ‘우리말 실력겨루기’…김일성大 평가 등급 마련」, 연합뉴스, 2019.01.11. URL: <https://yna.co.kr/view/AKR20190111026800504> (검색일: 2025년 9월 10일)

일관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비교 분석의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카자흐한국어』 서지 정보

교재4)		저자	출판 연도	쪽수	출판사	등급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1	황인교 외	2015	378	한국국제교 류재단	1급 (초급)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2	황인교 외	2015	364	한국국제교 류재단	2급 (초급)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3	황인교 외	2013	330	한국국제교 류재단	3급 (중급)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4	황인교 외	2013	334	한국국제교 류재단	4급 (중급)

따라서 『카자흐한국어』는 러시아어권 한국어 교재로 볼 수 있으며 『조선어배우기』와 여러 공통점을 지닌다. 두 교재는 국가 주도의 공적 기관에서 발행되었고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언어 지식과 기능을 통합한 구성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외국어 버전으로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교의 타당한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초급부터 고급까지 전체 언어 능력 등급을 다루는 총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언어 교육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와 더불어, 두 교재 모두 동포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분석의 준거가 충족된다.⁵⁾

III.2. 연구 방법

- 4) 『카자흐한국어』는 총 6권으로 발간되었으나, 본고에서는 1~4권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 5) “이 책은 조선어배우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조선어를 배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배광희 외, 2017:4).”
“이 책은 로어를 알고있는 로씨야를 비롯한 독립국가협동체 나라들에서 조선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한 교과서이다(배광희 외, 2017:284).”

본 연구는 북한에서 발간된 『조선어배우기』에 나타난 문법 메타언어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위해 한국에서 출판된 『카자흐한국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러시아어가 문법 설명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법 설명을 형태, 의미, 기능의 세 차원에서 분석한다. 문법의 러시아어 기술은 이 세 차원을 모두 포괄하지만 의미와 기능은 그 범주 설정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한국어 문법 기술은 일반적으로 형태와 구조를 우선 제시하고, 그 위에 의미와 기능을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우형식, 2010). 본 연구 역시 러시아어 기술을 형태·구조와 의미·기능의 두 측면에서 살펴보고, 전자는 형태적 결합 규칙에 후자는 문법 항목의 의미와 화용 조건에 초점을 맞춘다.

문법 범주 설정에 있어 북한 교재는 문법 항목을 ‘토’ 중심으로 격토, 이음토, 맺음토, 시간토, 도움토 등 의미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반면 국립국어원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김중섭 외, 2017)에서는 조사, 선어말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종결어미, 표현의 여섯 가지 범주를 제시한다. 이때의 표현은 일정한 의미 단위를 형성하는 복합 형식을 포함하며, 연구자에 따라 관용구, 문법적 언어, 기능적 표현 등으로도 불린다(유해준, 2022). 그러나 문법 범주는 단일하지 않으며, 예컨대 시간 표현만 해도 시제·동작상·서법·양태로 구분되거나 양태가 인식 양태와 행위 양태로 다시 세분되기도 한다(김정숙 외, 2024). 이러한 다양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북한의 ‘토’, 국립국어원의 분류 체계, 그리고 러시아어 문법 범주 간의 대응 가능성을 고려한 절충적 분석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는 문법 항목을 ‘조사’, ‘어미’, ‘연결 표현’, ‘복합 표현’의 네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는 문장 내 문법적 관계를 드러내는 기본 범주로서, 북한의 ‘격토’ 및 러시아어의 ‘падеж’와 대응한다. 둘째, ‘어미’는 시제·상·경어법·서법 등 주요 문법 기능을 실현하는 핵심 범주로, 북한의 ‘맺음토·시간토·도움토’ 및 러시아어의 ‘время’, ‘наклонение’, ‘вежливая форма’와 대응한다. 셋째, ‘연결 표현’이라는 범주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이음토’와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실제 교재에서 ‘조건 표현’, ‘이유 표현’ 등 의미·기능 중심으로 문법이 제시되는 방식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연결 표현은 조건, 이유, 목적, 시간 관계 등 절과 절을 연결하는

기능을 포함하며, 러시아어의 ‘союз’ 및 ‘придаточные конструкции’와 비교될 수 있다. 넷째, ‘복합 표현’은 ‘-지 않다’, ‘-을 수 있다’, ‘-고 싶다’ 등 두 개 이상의 형태가 결합하여 일정한 의미 기능을 형성하는 문법적 언어 또는 기능적 표현으로, 국립국어원의 ‘표현’ 범주에 해당한다. 이는 북한의 ‘도움토’ 및 러시아어의 ‘отрицание’, ‘модальность’ 등과 대응한다.

이 네 가지 분석 범주는 국립국어원 분류 체계의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면서 북한의 ‘토’ 중심 문법 체계 및 러시아어 문법 전통과의 대응을 고려한 절충적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연결 표현’과 ‘복합 표현’을 독립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교재의 실제 기술 방식에서 드러나는 의미·기능 중심의 설명 경향을 분석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문법 항목을 추출하여 목록화한다. 둘째, 추출된 항목을 앞서 제시한 네 가지 범주에 따라 분류한다. 셋째, 각 항목이 두 교재에서 어떤 러시아어 용어와 설명 방식을 통해 기술되는지를 확인한다. 넷째, 러시아어 메타언어가 각 문법 항목의 형태·의미·기능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서술한다.

IV. 연구 결과

IV.1. 조사

조사 항목에서는 ‘이/가, 을/를, 에, 에서, 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조선어배우기』는 조사를 북한 문법 체계의 ‘격토’ 범주에 포함시키며 모든 조사 항목을 공통적으로 ‘аффикс’로 지칭한다. 예를 들어 ‘이/가’는 ‘именной аффикс’, ‘을/를’은 ‘винительный аффикс’, ‘에’는 ‘дательный аффикс’, ‘에서’는 ‘местный аффикс’로 제시된다. 이는 조사를 어근에 결합하는 문법 형태소로 인식하는 북한의 토 중심 문법 전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러시아어 문법의 격어미 체계를 참조하여 구조적 대응 관계를 강조한다. 반면 『카자흐한국어』는 ‘이/가’를 ‘показатель именительного падежа’로, ‘을/를’을 ‘частица’로 표기하여 각 조사의 문법 기능과 러시아어 품사 범주의 대응 관계에 따라 설명 용어를 달리한다. 이러한 제시는 러시아어 격 체계와의 대응을 확보하면서도 한국어 조사의 독립성을 일정 부분 유지하려는 시도

로 볼 수 있다. ‘падеж’라는 용어가 러시아어 학습자에게 더 직접적일 수 있지만 교재별 메타언어 선택은 설명의 포괄성과 직접 대응성이라는 두 전략 사이에서 각 교재가 최적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형태·구조적 측면에서 『카자흐한국어』는 각 조사의 결합 조건을 명확히 기술한다. 예를 들어, ‘이/가’는 “Если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е оканчивается на согласную,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и, если на гласную, то -га(명사가 자음으로 끝나면 -이, 모음으로 끝나면 -가가 붙는다)”와 같이 음운적 제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을/를’ 역시 “Если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е оканчивается на согласную,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у, если на гласную, то -лу(명사가 자음으로 끝나면 ‘-을’을, 모음으로 끝나면 ‘-를’을 붙인다)”이라고 설명하여 학습자가 규칙을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설명은 형태적 조건과 규칙 중심의 기술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어권 학습자의 문법적 추론 과정에 초점을 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조선어배우기』는 결합 조건보다는 통사적 기능을 중심으로 서술하며, ‘аффикс подлежащего’, ‘винительный аффикс’와 같이 문장 내 문법적 역할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이는 문법 형태의 분포보다는 문장 구조 내 관계성을 강조하는 서술 방식이다.

『조선어배우기』에서는 ‘은/는’과 ‘이/가’를 하나의 문장 안에서 동시에 제시하며, 각각을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й аффикс’, ‘именной аффикс’로 표기한다. 두 조사를 문법 범주상 분리하지 않고 함께 제시하는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한국어 교재에서는 보기 드문 특징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두 조사가 행동의 주체를 나타내는 문법적 역할을 하는 것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의미·기능적 측면에서는 『조선어배우기』가 러시아어 문법 체계와의 대응을 적극 활용한다. 예를 들어, ‘에서’는 “Он выполняет такую же функцию, как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предлоги «на/в»(러시아어의 전치사 ‘на/в’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로 설명되어 두 언어 간 의미적 유사성을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반면 『카자흐한국어』는 “В сочетании с глаголами действия обозначает место его совершения. В сочетании с глаголами движения означает исходный пункт движения(동작 동사와 결합할 때는 행위의 장소를, 이동 동사와 결합할 때는 출발점을 나타낸다)”와 같이 한국어 내부의 의미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세분화된 기능적 기술을 제시한다. 즉, 조선어 교재가 러시아어 문법 범주와의 일대일 대응을 통한 직관적 이해를 지향한다면

카자흐한국어는 한국어의 내적 체계를 중심으로 한 규칙적 이해를 지향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조사라도 <그림 1>처럼 예문 맥락에 따라 러시아어 번역이 달리 제시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조선어배우기』는 ‘바람도 불고 비도 옵니다’라는 예문에서 ‘도’를 ‘и’로 제시하여 강조 소사의 기능을 부각시키지만, 『카자흐한국어』는 “연필이 있어요. 지우개도 있어요.”에서의 ‘도’ 의미에 맞게 ‘тоже, также’로 풀이한다. 이는 두 교재가 동일 조사의 문법적 기능을 다르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각 교재가 예문에 맞는 가장 자연스러운 러시아어 표현을 선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일대일 대응어를 제시할 때는 문맥과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 1> 『조선어배우기』와 『카자흐한국어』의 조사 ‘도’ 제시 방식

조선어배우기 1: 200-201	카자흐한국어 1: 53
 바람도 불고 비도 옵니다. 우리는 숙제도 하고 텔레비전도 봅니다. И дует ветер, и идёт дождь. Мы и делаем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и смотрим телевизор. 200 계절과 날씨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й аффикс «-도» выполняет такую же функцию, как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усилительная частица «и». 예: 열기도 쓰기도, 책도 잡지도, 여기도 저기도	도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к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м и выражает значение «тоже, также.» 연필이 있어요. 지우개도 있어요. 카이라트 씨가 있어요. 마지나 씨도 있어요. A 서점이 있어요? B 네, 우체국도 있어요.

두 교재는 조사를 설명하는 메타언어의 구성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조선어배우기』는 “Винительный аффикс (-을/를) после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го обозначает объект действия(목적격 조사 -을/를은 명사에 붙어, 동작의 대상을 나타낸다)”와 같이 조사 형태와 문법 기능을 간결히 대응시키는 정의 중심의 서술을 사용한다. 이러한 설명은 조사 형태와 그 문법적 역할을 일대일로 대응시켜 학습자가 규칙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반면 『카자흐한국어』는 “Частица **е**с**т**е **п**рибавляется к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м и в сочетании

с глаголами действия обозначает место его совершения (조사에서는 명사에 붙으며, 동작 동사와 결합할 때 그 동작이 일어나는 장소를 나타낸다)”와 같이 결합 관계와 의미적 맥락을 함께 제시하여 문법 항목의 의미적 확장을 보여준다. 즉, 조사 형태와 그 동작 동사와 결합한다는 환경을 기술함으로써 문법 기능이 실제 문맥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설명한다.

요약하면, 『조선어배우기』는 조사를 러시아어의 **аффикс** 범주 안에서 기능적으로 설명하고, 의미상 대응되는 전치사나 접속사를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다. 반면 『카자흐한국어』는 한국어 조사의 문법적 지위를 먼저 설명한 뒤, 이에 대응하는 러시아어 격 표지를 나란히 제시함으로써 두 언어의 문법 체계를 독립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북한 교재는 러시아어 문법 범주를 중심으로 의미적 대응을 중시하는 반면, 『카자흐한국어』는 한국어 문법의 자율성을 전제로 형태적·절차적 설명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IV.2. 어미

어미 항목에서는 초급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습니다/습니까, -았/었-, 관형형 -은/-는, -을’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형태·구조적 측면에서 두 교재는 모두 어미의 결합 규칙을 다루지만, 기술의 폭과 일관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조선어배우기』는 조사 항목에서는 결합 조건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어미 항목에서는 일부 형태적 제약을 제시한다. 예컨대 “Если основа глагола или прилагательного оканчивается на согласную,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습니다», а если на гласную «-ㅁ니다»(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면 ‘-습니다’, 모음으로 끝나면 ‘-ㅁ니다’가 붙는다)”와 같이 종결 어미의 결합 규칙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다만 이러한 형태 제시는 ‘-습니다’에 국한되며, 다른 어미 항목에서는 결합 조건보다 의미 기능 설명에 초점을 둔다. 반면 『카자흐한국어』는 대부분의 어미 항목에서 결합 규칙을 명시적으로 서술하며 일관된 형태 중심 체계를 보인다. 예를 들어 “Если основа глагола или прилагательного оканчивается на гласную ㅏ, ㅑ -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았-», в остальных случаях - «-었-»(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이 모음 ㅏ, ㅑ로 끝나면 ‘-았-’, 그 외에는 ‘-었-’이 붙는다)”와 같이 음운 조건까지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이러한 방식은 조사 항목

에서와 마찬가지로 문법 항목마다 형태 규칙을 반복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규칙적 변화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조선어배우기』와 『카자흐한국어』의 어미 ‘-았/었-’ 제시 방식

조선어배우기 1: 106	카자흐한국어 1: 113
 Временной аффикс «-았/었/였» обозначает прошедшее действие, состояние и факт, а «-겠-» – будущее действие, состояние и факт, при этом они ставятся перед заключительным аффиксом «-니니다/습니다». 예: 나는 읽었습니다. (Я прочитал.) 나는 읽겠습니다. (Я прочитаю.)	-았/었- Суффикс прошедшего времени -았/었-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к глаголам и прилагательным, употребляется для выражения действия или события в прошлом. Если основа глагола или прилагательного оканчивается на гласные ㅏ, ㅑ, то к основе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суффикс -았-. В остальных случаях к основе глагола или прилагательного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суффикс -었-. Глаголы или прилагательные, оканчивающиеся на 하다 меняют основу глагола на -했-.

의미·기능적 측면에서 두 교재는 어미의 의미 기능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상이하다. 『조선어배우기』는 어미의 문법적 의미를 시간적·통사적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았/었-’은 “обозначает прошедшее действие, состояние и факт(과거의 행위·상태·사실을 나타낸다)”로 서술한 뒤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겠-’을 “будущее действие, состояние и факт(미래의 행위·상태·사실)”라고 함께 설명하며 시제의 대비를 중심에 둔다. 또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형 ‘-을’에 대해서도 <그림 3>처럼 현재형과 과거형을 함께 서술함으로써 시제 간의 대비와 연속성을 중심으로 문법 체계를 설명한다.

<그림 3> 『조선어배우기』와 『카자흐한국어』의 어미 ‘-을’ 제시 방식

조선어배우기 1: 265	카자흐한국어 2: 100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Даже некогда поесть. Определительный аффикс «-ㄹ(을)» после слова со значением действия или состояния определяет последующее слово и выражает будущее время. Подобные аффиксы «-는» и «ㄴ(은)» обозначают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а «-던» – прошедшее время.	관형형 어미 -(으)ㄹ (미래) -(으)ㄹ является окончанием будущего времени,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к основе глагола, который служит определением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го. Если основа глагола оканчивается на согласную,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을, если на гласную, то -으.

반면 『카자흐한국어』는 담화 상황과 화용적 기능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습니다/습니까’는 “Окончание официально-вежливой формы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ого предложения(공식적이고 정중한 평서문 어미)”, ‘-았/었-’은 “употреб-

блается для выражения действия или события в прошлом(*과거의 행위나 사건을 나타낸다*)”로, 관형형 ‘-을’은 “(-으)ㄴ является окончанием будущего времени,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к основе глагола, который служит определением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го(‘-을’은 동사의 어간에 붙어 명사를 수식하며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로 서술한다. 이는 시제 간의 대비보다는 어미의 개별적 의미 기술에 초점을 두고 화용적·담화적 조건을 병행하여 제시하는 서술 방식이다. 즉, 『조선어배우기』가 시제의 체계적 대비를 중심으로 조선어 어미를 설명한다면, 『카자흐한국어』는 화용적 조건과 실제 사용 상황을 중심으로 어미의 기능을 제시하는 상이한 접근을 취한다.

『조선어배우기』는 어미를 ‘토’에 해당하는 ‘аффикс’로 일괄 제시하며, 시제·종결·관형 기능을 모두 문법적 접사 체계 안에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습니다’를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аффикс(тхю) «-н니다/습니다» обозначает завершение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и вместе с тем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종결 어미(토) «-н니다/습니다»는 서술문의 끝맺음과 현재 시제를 함께 나타낸다*)”라고 기술하여 어미가 문장 말미에서 시제를 실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아가 “Аффиксы выполняют такую же смысловую функцию, как предлоги, падежи и окончания времени в русском языке(*이러한 어미들은 러시아어의 전치사 격 시제 어미와 유사한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명시하여, 조선어의 어미 체계를 러시아어 문법 범주와 직접적으로 대응시킨다. 이러한 설명은 러시아어 화자에게 개념적 친숙함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조선어 어미의 독자적 기능이 러시아어 체계 안에 포함될 우려도 내포한다.

반면 『카자흐한국어』는 어미를 “Окончание официально-вежливой формы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ого предложения(*공식적이고 존댓말인 서술문의 종결 표현*)”와 같이 기술하여 시제보다는 화용적 기능을 세분화하고, 러시아어 문법 범주를 직접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ын/-ен является окончанием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глагола или прилагательного, которое, присоединяясь к основе прилагательного или к *이다, 아니다*, служит определением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го(*-ын/-ен 동사나 형용사의 현재 시제 어미로서, 형용사 어간이나 ‘이다’, ‘아니다’에 붙어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한다*)”와 같은 내재적 설명을 통해 형태적 조건과 의미 기능을 동시에 제시한다. 즉, 『조선어배우기』가 조선어 문

법을 러시아어 문법 범주 속에 대응시키며 외적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카자흐한국어』는 러시아어를 보조적 매개로 활용하되 한국어 내부 체계에 근거한 화용적·기능적 이해를 중시하는 내재적 접근 방식을 취한다.

요약하자면, 『조선어배우기』는 어미를 ‘토’에 해당하는 접사 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다루며, ‘-았/었-’과 ‘-겠-’, 관형형 ‘-은/는’과 ‘-던’처럼 시제 간 대비를 한번에 제시함으로써 조선어 어미의 시간적 체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또한 어미의 기능을 러시아어 문법 범주와 직접 대응시켜 구조적 대응 관계 강조한다. 반면 『카자흐한국어』는 각 어미의 결합 규칙과 화용적 기능을 세밀히 기술하면서, 러시아어 문법 범주는 보조적으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IV.3. 연결 표현

연결표현 항목에서는 초급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으면, -도록, -을수록, -기 위하여, -느라고, -기 전에, -은 후에’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두 교재는 모두 절과 절을 연결하는 문법 형식을 다루지만 범주 설정과 기술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조선어배우기』는 이러한 연결 형태를 ‘이음 토’에 해당하는 *аффикс*로 지칭한다. 반면 『카자흐한국어』는 *окончание*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며 결합 형태와 문형 제약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형태·구조적 측면에서 『조선어배우기』는 각 표현의 문장 내 기능을 중심으로 서술하며 결합 조건에 대한 언급은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으면’은 “Соединительный аффикс «-(으)면» соединяет два предложения в условно-следственном отношении(연결 접사 «-(으)면»은 조건-결과 관계로 두 문장을 연결한다)”라고 두 절의 구조적 관계를 명시한다. ‘-도록’ 역시 “Этот аффикс не ставится за временными аффиксами(이 접사는 시제 접사 뒤에는 오지 않는다)”라고 하여 결합 제약을 간단히 제시한다. 반면 『카자흐한국어』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결합 위치와 문형 제약을 전면에서 제시한다. 예를 들어, ‘-면/으면’은 “-면/으면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к основе глагола или прилагательного и обозначает условие(동사나 형용사 어간에 붙으며 조건을 나타낸다)”와 같이 결합 조건을 명확히 드러내고, ‘-느라고’는 “...При употреблении -느라고 субъект действия один и тот же. -느라고 не используется в повелительных или побудительных предложениях(주어가 동일해야 하고 명령이나 청유문에서는 쓰이지 않는다)”라고 기술하여 실제 사용 제약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러한 기술 방식은 『카자흐한국어』가 형태 규칙과 담화 제약을 병행하는 규칙 중심적 접근을 보이는 반면, 『조선어배우기』는 통사적 기능 중심의 서술에 머무는 차이를 보여준다.

의미·기능적 측면에서 두 교재는 모두 문장의 연결 간 논리적 관계인 조건, 목적, 원인, 시간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그림 4>의 『조선어배우기』는 연결표현의 의미를 러시아어 문법 범주와 직접적으로 대응시켜 제시한다. 특히 ‘-기 전에’와 ‘-은 후에’의 경우 ‘(«-ㄴ 후에 = после ...», «-기 전에 = до ...»’라고 기술함으로써 러시아어 전치사 ‘до’와 ‘после’에 명확히 대응시키며 시간적 관계를 직관적으로 제시한다. 『카자흐한국어』 또한 “-기 전에 и -(으)ㄴ 후에 прибавляются к глаголам и указывают на то, что действие... произошло «до» или «после»...(‘-기 전에’와 ‘-(으)ㄴ 후에’는 동사에 붙어서 어떤 동작이 «하기 전에» 혹은 «한 후에» 일 어났음을 나타낸다)”라고 설명하여 ‘до/после’라는 대응어를 활용되 그 의미가 어떤 결합 구조를 통해 실현되는지를 명시하는 차이가 있다.

<그림 4> 『조선어배우기』와 『카자흐한국어』의 연결 표현 ‘-기 전에/은 후에’ 제시 방식

조선어배우기 1: 240	카자흐한국어 1: 233
 이 약은 한알씩 하루에 세번 식사를 한 후에 30분 지나서 더운물에 잠수십시오. 그리고 이 약은 식사를 하기 전에 한알씩 드십시오.  Принимайте это лекарство по одной таблетке три раза в день через 30 минут после еды с тёплой водой, а это лекарство – по одной таблетке до еды. Сочетания «-ㄴ 후에», «-ㄴ 다음에» после основы глагола обозначают «после чего-л.». А сочетание «-기 전에» после основы глагола – «перед чем-л.». «-ㄴ 후에», «-ㄴ 다음에»= после..., «-기 전에»= до...	-기 전에/-(으)ㄴ 후에 -전에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к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м, имеющим отношение ко времени и указывает на действие, совершенное до какого-либо момента. -후에 употребляется для выражения действия, совершенного после чего-либо. -기 전에 и -(으)ㄴ 후에 прибавляются к глаголам и указывают на то, что действие, указанное во второй части предложения, произошло «до» или «после» каких-либо действий, к которым присоединены -기 전에 или -(으)ㄴ 후에. 조금 전에 도착했어요. 1시간 후에 만나요. A 식사하기 전에 차를 마실까요? B 식사한 후에 차를 마십니다.

또한 의미 설명의 구체성에서도 두 교재의 차이가 드러난다. 『조선어배우기』는 ‘-느라고’를 “обозначает причину какого-либо действия(어떤 행위의 원인을 나타낸다)”라고 서술하는 반면, 『카자흐한국어』는 “-느라고 употребляется для выражения причины, из-за которой не было возможности совершить действие(-느라고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었던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와 같이 화용적 조건과 결과적 의미를 함께 제시한다. 이러한 설명

은 『조선어배우기』가 문법적 의미의 핵심만 제시하여 학습자의 직관적 이해를 유도하는 반면, 『카자흐한국어』는 실제 담화 맥락에서의 사용 규칙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교재 단계에 따른 문법 제시 범위의 차이도 찾을 수 있다. ‘-을수록’의 경우, 『조선어배우기』는 2권 초중급 단계에서 ‘аффикс степени’라고 간략히 기술한다. 반면 『카자흐한국어』는 4권 중급 단계에서 같은 문법이 제시되며 “-을수록 указывает на постепенные изменения(‘-을수록’은 점차적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обычно употребляется в сочетании с -으면(보통 ‘-으면’과 함께 쓰인다)”라는 실제 사용 양상을 추가로 제시한다. 동일 항목이라도 어떤 단계에서 다루는지에 따라 교재의 설명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두 교재 모두 연결 표현을 통해 절 간의 관계를 설명하지만 『조선어배우기』는 조사와 어미에서와 마찬가지로 문법 항목을 ‘аффикс’ 범주 안에서 통사적 기능 중심으로 제시하고, ‘-기 전에’, ‘-은 후에’를 러시아어 ‘до/после’와 직접 대응시켜 의미를 직관적으로 설명한다. 반면 『카자흐한국어』는 이러한 대응어를 활용하면서도 결합 구조와 화용적 제약을 함께 제시하여 문법의 실제 사용 조건을 구체화한다. 특히 ‘-느라고’나 ‘-을수록’처럼 사용상의 제약이나 결합 양상을 병기함으로써 담화적 맥락 속 문법 운용 능력을 강조한다.

IV.4. 복합 표현

복합 표현 항목에서는 ‘-지 않다, -고 싶다, -은 것 같다, -을 수 있다, -는 모양이다’를 중심으로 두 교재의 기술 방식을 비교하였다.

형태-구조적 측면에서 『조선어배우기』는 여러 문법 항목을 함께 제시하며 의미 대비 속에서 구조적 기능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지 않다’와 ‘-지 못하다’를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Сочетание «-지 않다 / 안-» ... а «-지 못하다 / 못-» ...”로 기술함으로써 두 부정 표현의 차이를 함께 보여준다. 이는 앞서 어미 항목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서로 관련된 문법 요소를 동시에 제시하는 서술 방식이다. 반면 『카자흐한국어』는 ‘-지 않다’만을 독립 항목으로 다루며 “-지 않다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к основе глагола или прилагательного и служит для образования отрицательной формы(동사 형용사 어간

에 붙으며 부정형을 만든다)”라고 하여 결합 형태의 조건을 전면에서 제시한다. 또한 『카자흐한국어』는 ‘-은 것 같다’와 ‘-는 모양이다’에서 각각 받침 유무와 시제에 따른 활용 규칙을 세밀히 구분한다. 예를 들어 “К основе прилагательных, оканчивающихся на ㄴ ...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ㄴ, к остальным -은(ㄴ으로 끝나는 형용사 어간에는 -ㄴ을 붙이고, 나머지는 -은을 붙인다)”이라 하여 형태적 제약을 구체화하고, <그림 5> “К глаголам прошедшего времени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으)ㄴ 모양이다, а к глаголам будущего времени -(으)ㄴ 모양이다(과거 시제의 동사에는 ‘-(으)ㄴ 모양이다’를 미래 시제의 동사에는 ‘-(으)ㄴ 모양이다’를 사용한다)”로 시제별 결합 양상을 명확히 제시한다. 이러한 서술은 『카자흐한국어』가 규칙적 형태 분석을 중심으로 문법 지식을 체계화하려는 성격을 지님을 보여준다.

<그림 5> 『조선어배우기』와 『카자흐한국어』의 복합 표현 ‘-은 모양이다’ 제시 방식

조선어배우기 2: 319	카자흐한국어 4: 181
 문법을 학습합니다. (Грамматика) 《-ㄴ(은/는) 모양이다》 이미 비가 오는 모양입니다. 철수가 책을 다 읽은 모양이구나. Конструкция 《-ㄴ(은/는) 모양이다》 состоит из определительного аффикса 《-ㄴ(은/는)》 и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го 《모양》. Эта конструкция обозначает предположение будущего действия.	-(으)ㄴ/는 모양이다 -(으)ㄴ/는 모양이다 является формой, образованной сочетанием -(으)ㄴ/는 и зависимого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го 모양. Данная форма употребляется для выражения предположения какого-либ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основанного на указанном факте. К глаголам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는 모양이다, а к прилагательным -(으)ㄴ 모양이다. К глаголам прошедшего времени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으)ㄴ 모양이다, а к глаголам будущего времени -(으)ㄴ 모양이다. К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м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인 모양이다. 책을 많이 보는 걸 보니깐 책을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아침 일찍 출발하는 걸 보니깐 회사가 먼 모양이에요. A 식당에 사람이 아주 많아요. B 그렇군요. 음식이 맛있는 모양이에요.

의미·기능적 측면에서 두 교재는 복합 표현의 의미를 다루는 방식에서 상이한 경향을 보인다. 『조선어배우기』는 복합 표현 간 의미 대비를 중심으로 설명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지 않다’와 ‘-지 못하다’를 한 항목 내에서 병렬 제시하며 전자는 ‘주체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 후자는 ‘객관적 상황 때문에 불가능한 행위’로 구분한다. 이처럼 복수의 표현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의미 차이를 체계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또한 ‘-고 싶다’를 хотеть + инф. 구조와 일대일 대응시켜 제시하거나, ‘-을 수 있다’를 могу와 직접 연결함으로써 러시아어 대응을 통한 직관적 이해를 유도한다. 반면 『카자흐한국어』는 복합 표현의 화용적 기능과 사용 조건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은 것 같다’는 “Русский эквивалент – «кажется»”로 러시아어 대응어를 제시하면서도 그 의미를 “догадка или предположение говорящего о каком-либо событии(어떤 사건에 대한 화자의 추측이나 짐작)”으로 구체화하고, ‘있다/없다’ 등 특정 동사와의 결합 제약까지 병행 설명한다. 또한 ‘-는 모양이다’의 경우 “Данная форма употребляется для выражения предположения какого-либ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основанного на указанном факте(이 형태는 주어진 사실을 근거로 한 추측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기술하여 담화 상황을 전제로 한 의미 실현을 중시한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조선어배우기』가 의미 대비 중심의 서술을 통해 학습자의 개념적 구분을 돕는 반면 『카자흐한국어』는 화용적 조건과 실제 사용 맥락을 중심으로 문법 기능을 세밀하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법 설명에 이어지는 예문과 번역의 활용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림 6>의 『조선어배우기』는 예문 번역을 통해 학습자가 문맥 속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은 것 같다’의 경우 예문에서 ‘Мне кажется’, ‘по-моему’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추측한 의미를 러시아어 표현과 연결할 수 있게 한다. ‘-을 수 있다’ 역시 ‘могу’와 같은 단일 어휘와 대응시켜 직관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참고로 초급에 해당하는 1권은 예문에 러시아어 번역을 제시하지만, 초·중급에 해당하는 2권에서는 이를 생략하여 학습자의 자율적 추론을 유도한다. 반면 『카자흐한국어』는 예문을 러시아어로 제시하지 않아 특정 러시아어 표현과 연결하기보다 의미 범주를 일반화하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학습자는 예문 번역에 의한 직관적 이해보다 규칙적 정의와 설명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념을 익히게 된다.

<그림 6> 『조선어배우기』와 『카자흐한국어』의 복합 표현 ‘-은 것 같다’ 제시 방식

조선어배우기 1: 216	카자흐한국어 2: 60
 (제 생각에는) 괜찮을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홍색이 좋은것 같습니다.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это хорошо. По-моему, розовый цвет лучше. Сочетания «-ㄴ 것 같다» и «-ㄹ 것 같다» обозначают предположение какого-либо действия или состояния. При этом «-ㄴ 것 같다» относится к настоящему времени, а «-ㄹ 것 같다» – к будущему.	-(으)ㄴ 것 같다 (형용사)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к основе прилагательного и обозначает догадку или предположение говорящего о каком-либо событии или факте. Русский эквивалент - «кажется». К основе прилагательных, оканчивающихся на ㅁ в подслоге и не имеющих нижнеслоговых согласных,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ㄴ. К основе остальных прилагательных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은. Со словами 있다/없다 используется -는 것 같다. 밖에 날씨가 추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두꺼운 옷을 입었어요. 저원 씨가 오늘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아요. A 준영 씨가 오늘 바쁜 것 같아요. B 네, 요즘 준영 씨 회사에 일이 많아요.

요약하자면, 『조선어배우기』는 복합 표현을 의미 대비 중심으로 통합 제시하며 ‘-지 않다/-지 못하다’처럼 유사 항목을 함께 다루어 개념적 차이를 드러낸다. 또한 ‘-고 싶다’, ‘-을 수 있다’를 хотеть + инф., могу 등 러시아어 표현과 직접 대응시켜 학습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다. 반면 『카자흐한국어』는 각 항목의 결합 규칙과 시제별 제약을 세밀히 기술하고, ‘-은 것 같다’, ‘-는 모양이다’ 등에서 화용 조건을 병행 제시하여 실제 사용 맥락을 중시한다.

V. 나가며

본 연구는 북한에서 발간된 『조선어배우기』에서 문법을 설명하는 메타언어의 특성을 살피기 위하여 동일한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카자흐한국어』와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 어미, 연결 표현, 복합 표현의 네 범주를 설정하고 동일 문법의 형태·구조, 의미·기능을 중심으로 러시아어로 기술된 부분을 검토하였다.

『조선어배우기』는 북한 문법 체계의 ‘토’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문법 항목을 구조적으로 기술하면서, 러시아어 문법 범주와의 직접적 대응을 통해 조선어 문법의 기능을 외재적으로 설명하는 경향을 보였다. ‘에서’를 ‘на/в’, ‘도’를 ‘и’로, ‘-은 후에’를 ‘после’, ‘-고 싶다’를 ‘хотеть + инф.’로 대응시켜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일대일 대응은 러시아어 문법 지식을 기반으로 조선어 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조선어배우기』는 문법 설명에서 대립되는 항목을 ‘은/는’과 ‘이/가’, ‘-지 않다’와 ‘-지 못하다’와 같이 한 단원 내에 함께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았/었-’과 ‘-겠-’ 등의 시제 표현의 대립 또한 한 문법에서 병렬적으로 설명되며, 형태와 의미의 대비를 통해 문법 체계의 규칙성과 일관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조선어배우기』 1권은 모든 예문에 러시아어 번역을 병기하여 문법 설명에 직접적인 대응어가 없더라도 학습자가 예문을 통해 조선어 문법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은 것 같다’의 경우, 예문 번역에서 ‘Мне кажется’, ‘По-моему’와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미적 대응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한편 『카자흐한국어』는 러시아어를 보조적 메타언어로 사용하되 문법 항목의 결합 조건과 화용적 기능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조사와 어미 항목에서는 문법 형태의 기능적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연결 표현과 복합 표현의 경우에는 의미와 사용 맥락을 함께 제시하였다. 일부 항목에서는 러시아어 대응어를 직접 병기하여 학습자가 의미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사용 맥락을 중시한 서술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조선어배우기』는 러시아어 문법 범주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대응을 통해 문법 항목 간의 체계성을 부각시키는 반면 『카자흐한국어』는 결합 조건과 화용적 설명을 강화하여 실제 사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만 본 연구는 비교 분석 대상이 한 종의 교재에 국한되어 있어 여기서 드러난 메타언어 차이가 북한과 한국의 외국어로서 자국어교육의 일반적 차이를 반영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교재를 포함하여 분석 범위를 확장하고, 초·중급을 넘어 중·고급 단계에서의 문법 기술 양상과 다른 언어권 학습자용 교재와의 비교를 통해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한 조선어 교재의 문법 설명 체계를 실증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외국어로서의 자국어교육 비교 연구를 확장하는 기초적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1. 김정숙 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학개론』, 하우, 2023.
2. 김중섭·조현용, 「북한의 언어정책과 한국어교육 연구: <조선문화어 강독(유학생용) 1,2>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13, 1996.
3. 김중섭 외,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2017.
4. 김한근, 「북한 조선어교육 교재와 남한 한국어교육 교재 비교 연구: 김형직사범대학교와 세종학당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32-3, 2021.
5. _____, 「북한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학 분석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비교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65, 2022.
6. 배광희 외, 『조선어배우기 1』, 외국문도서출판사, 2017.
7. 스가이 요시노리·허예인·조현용, 「『조선어배우기(러시아어판·중국어판)』와 『조선어(류학생용)』의 비교 연구: 학습 대상에 따른 교재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21-3, 2024.
8. 안종천 외, 『조선어배우기 3』, 외국문도서출판사, 2022.
9. 여란결·강현화, 「외국인을 위한 『조선어』 교재 연구: 발음, 어휘, 문법의 내용 지식을 중심으로」, 『어문학』 164, 2024.
10. 오현아·전영근,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이북의 <조선어실천문법(실습생용)> 교재 분석 연구: 김일성종합대학과 김형직사범대학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77, 2022.
11. 우형식, 「한국어 교육 문법의 체계와 내용 범주」, 『우리말연구』 26, 2010.
12. 유해준, 「한국어 교육 문법 항목의 분류 및 제시 양상 연구」, 『현대문법연구』 116, 2022.
13. 윤효승, 「북한의 조선어 교재 『조선어배우기(러시아어판)』 분석」, 『한국어교육연구』 25, 2025.
14. 이관식, 「북한의 한국어교육 회화교재 분석 연구: 조선어회화, 조선어회화2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6-1, 2005

15. 이수미,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문법,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국제어문』 94, 2022.
16. 이유경, 「한국어 교재의 문법 용어에 대한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41, 2018.
17. 이주행, 「남한과 북한의 외국인을 위한 문법 교과서 비교 분석」, 『국어 교육』 115, 2004.
18. 임건수·송봉운, 「남북한 한국어와 조선어 교재의 어휘 목록 비교 연구: 조선어(2022)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6-2, 2024.
19. 정빛나, 「북한판 ‘우리말 실력겨루기’...김일성大 평가 등급 마련」, 연합뉴스, 2019.01.11, URL: <https://yna.co.kr/view/AKR20190111026800504> (검색일: 2025년 9월 10일).
20. 주은진·글하요·고혜민, 「북한 출판 『조선어 배우기』 러시아어판과 『조선어(류학생용)』 교재 비교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4-1, 2025.
21. 최승주 외, 『조선어배우기 2』, 외국문도서출판사, 2021.
22. 함계임,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한 독학 겸용 한국어교재의 문법 기술 현황과 개선 방안」, 『교육문화연구』 26-5, 2020.
23. 허예인·스가이 요시노리, 「『조선어배우기(러시아어판·중국어판)』와 『조선어(류학생용)』의 문법 항목 비교」, 『이중언어학』 99, 2025.
24. 황인교 외,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1』, 한국교류재단, 2015
25. _____,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2』, 한국교류재단, 2015
26. _____,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3』, 한국교류재단, 2013
27. _____,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4』, 한국교류재단, 2013

Abstract

**A Study on the Grammatical Metalanguage of *Learning Choson*:
A Comparison with a Korean Textbook**

Yoon, Hyoseu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This study compares the use of Russian metalinguistic expressions in grammar explanations of two textbooks: *Learning Choson* published in North Korea and *Comprehensive Korean for Kazakhstanians* produced in South Korea. Both are designed for Russian-speaking learners but differ in their approaches to grammatical description and the pedagogical use of Russian. The analysis, based on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s grammar classification, focuses on four categories: particles, verb endings, connective expressions, and compound expressions. The results show that *Learning Choson* presents grammatical items through semantic and tense-based contrasts, providing corresponding Russian expressions or translations for intuitive understanding. In contrast, *Comprehensive Korean for Kazakhstanians* emphasizes morphological conditions, rule-based explanations, and pragmatic functions to promote systematic learning. By contrasting these approaches, the study elucidates the pedagogical implications of metalinguistic mediation in grammar instruction for Russian-speaking learners and offers foundational data for comparative research on North and South Korean textbooks.

Key words : North Korea, Choson language, Korean Language Education, Learning Choson, Metalinguistic Expressions

Фразеологизмы как дидакт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на занятиях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как иностранному (теоретические основы выбора материала)

О. С. Спиридонова*

О. С. Храброва**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러시아어를 외국어로 가르치는 수업에서 관용어구를 활용하는 문제를 다루며, 학생들이 언어 속에 반영된 러시아 민족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러시아 언어 및 화법 문화의 심층적 층위에 접근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논문에서는 ‘역량’,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로서 언어·문화학적, 문화 간, 지역학적, 언어·지역학적 역량의 개념을 제시한다.

РКИ 학습에 대한 언어·지역학적 접근에 따르면, 러시아어 교육 과정에 관용어구를 학습 단위로 도입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관용어구는 문화적·교육적 잠재력을 지니며, 언어·지역학적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주제어 : 관용어구, 속담, 격언, 역량, 문화, 배경지식.

* 제1저자, 안양대학교 러시아언어문화학과 조교수, Olga3061s@mail.ru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초빙교수, o_khrabrova@mail.ru

I. Введение

Современные стратегии обучения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как иностранному связаны с социокультурным подходом,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обучение не может быть продуктивным без учета культурного многообразия мира, которое находит отражение в языке и, прежде всего, его культуромаркированных единицах. Эффективность обучения языку зависит не только от уровня языковой подготовленности иностранных учащихся, но и от их знания условий общения, правил этикета, невербальных форм выражения (мимики, жестов), фон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что делает необходимым более глубокое изучение не только собственно языка, но и мира его носителей, их культуры, образа жизни, характера, менталитета. Следовательно, необходимо знакомить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изучающих русский язык с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ой, показать красоту и выразительность русского слова. Иностранные студенты, изучающие русский язык, должны достичь уровня, достаточного для общения не только в учебной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сфере. От учащихся требуется владение не искусственной и упрощенной, а настоящей, живой русской речью, в которой есть место оценкам, эмоциям и т.п. Восприятию такой речи, пониманию её многокрасочности, образности и экспрессивности призвано помочь ознакомление иноязычных студентов с фольклором и фразеологией.

Нам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что знакомство с фразеологией и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фольклора, а именно, с пословицами и поговорками, способствует пониманию иностранными учащимися особенностей русского менталитета, э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ценностей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помогает проникнуться духом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почувствовать красоту и выразительность русского слова. Многие ученые (Е. М. Верещагин, В. Г. Костомаров, В. В. Морковкин, В. М. Мокиенко, Ю. Е. Прохоров и др.) подчёркивают, что во фразеологии очень ярко отражается национальный характер, опыт народа, его отношение к окружающему миру, оценка его и критерии этой

оценки, то есть определенные традиции поведения и нравственные установки. Как подчеркивает Е. М. Верещагин и В. Г. Костомаров в книге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две трети страноведческой информации содержит в себе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ая семантика именно фразеологизмов (Верещагин & Костомаров, 1990: 38-39).

Адекват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фразеологизмов способствует углублению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навыков, делает речь живой, выразительной, эмоциональной. Знание фразеологии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показательных хорошего владения языком. Правильное и уместное употребление фразеологизмов придает речи неповторимое своеобразие, особую выразительность, образность и меткость, делает ее эмоционально окрашенной, позволяя тем самым судить о личности собеседника и о его национальном менталитете.

II. Теоретические и методические основы формирования лингвострановедческой компетенции иностранных учащихся на материале фразеологизмов

В современной методике препода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таким понятиям, как компетенц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педагогическая, учебно-познавательная,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страноведческая и др.) и компетентностный подход к обучению (Г. В. Елизарова, И. А. Зимняя, И. И. Халеева, Л. И. Харченкова и др.).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мпетентностным подходом, знания, усвоенные обучающимися в рамках учебного курса, должны послужить основой умений реша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задачи, должны помочь активно действовать в качестве успешного участника кросскультурной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В работах отечественных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не сформировано единого подхода к определению понятия «компетентность» / «компетенция» (см.,

например: Азимов и Щукин, 1999; Байденко, 2004; Зимняя, 2003 и др.)

Термин «компетентность» получил обоснование в литературе по педагогике и лингводидактике для обозначения способности личности к выполнению какой-либо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основе жизненного опыта и приобретенных знаний, навыков и умений. Таким образом, если компетенцию мож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в виде совокупности знаний, навыков, умений, приобретенных в ходе обучения и образующих содержательный компонент такого обучения, то компетентность означает свойства, качества личности, определяющие ее способность к выполнению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основе приобретенных знаний и сформированных на их основе навыков и умений. По утверждению А. И. Сурыгина, компетенция – это круг вопросов, в которых кто-либо хорошо осведомлен, обладает понятием, опытом. Компетентность – это свойство личности, базирующееся на компетенции (Сурыгин, 2000:50; Щукин, 2007:118).

В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е компетенция (от лат. *competentis* – способный) понимается как совокупность знаний, навыков, умений, формируемых в процессе обучения иностранному языку (Азимов и Щукин, 1999:118).

В ориентации на основную цель обучения иностранному языку – обучение общению – в рамках компетентностного подхода одной из основных задач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является формирование у учащихся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компетенции. Под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компетенцией в современной методике понимается способность решать средствами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актуальные для учащихся и общества задачи общения в бытовой, учебной,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и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В структуре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компетенции выделяют несколько составляющих: лингвистическую (языковую), социолингвистическую, дискурсивную, стратегическую, социальную, социокультурную, лингвокультурологическую, страноведческую и лингвострановедческую компетенции (Азимов и Щукин, 1999:109; Щукин, 2007:109), среди которых культуро-ориентированными являются лингвокультурологическая, межкультурная, страноведческая, лингвострановедческая и др.

Лингвокультурологическая компетенция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совокупность знаний, умений и личностных качеств, приобретаемых в процессе освоения системы культурных ценностей, выраженной в языке и регулирующей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е поведение носителей этого языка (Воробьев, 1999; Кошарная, 1999; Маслова, 1997 и др.).

Межкультурная компетенция – это основанная на знаниях, отношениях и умениях способность индивида осуществлять межкультурное общение посредством создания общего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общения значения происходящего и на его основе достигать позитивного для всех результата общения. МКК не имеет аналогов с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компетенцией носителей языка и может быть присуща только медиатору культур – языковой личности, изучающей иностранный язык и способной выйти за пределы собственной культуры и осуществить медиатив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без утраты культур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Сафонова, 1996; Елизарова, 2001 и др.).

Страноведческая компетенция – совокупность знаний о стране изучаемого языка. Наличие таких знаний обеспечивает определенный уровень навыков и умений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 целях общ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го компонента языка, речевого этикета и невербальных средств обучения (Щукин, 2007: 325).

Применительно к выбранному авторами дидактическому материалу, а именно фразеологизмам, пословицам и поговоркам, важно определить содержание лингвострановедческой компетенции.

Понятие «лингвострановедческая компетенция» в метод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определяется неоднозначно. Приведем некоторые определения: так Э. Г. Азимов и А. Н. Щукин определяют лингвострановедческую компетенцию как «знание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ычаев, традиций, реалий страны изучаемого языка, способность извлекать из единиц языка страноведческую информацию и пользоваться ею, добываясь полноцен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Азимов и Щукин, 1999:140; Щукин, 2007:143).

Е. И. Воробьева под лингвострановедческой компетенцией понимает

способность осуществлять межкультурную коммуникацию, базирующуюся на знаниях лексических единиц с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м компонентом семантики и умениях адекватного их применения в ситуациях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общения, а также умениях использовать фоновые знания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в ситуациях опосредованного 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го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общения (Воробьева, 1999:31).

Анализ определений лингвострановедческой компетенции позволяет выделить ее составляющие, в которые входят следующие знания и умения:

- Зн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культуре страны, содержащихся в семантике лексических единиц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й компонент);
- фоновые знания, проявляющиеся в процессе общения в виде смысловых ассоциаций и коннотаций;
- умение извлекать лексические единицы с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м компонентом семантики (НКС) из текстов (умение толковать данные единицы);
- умение адекватно применять лексические единицы с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м компонентом семантики в ситуациях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общения;
- умение использовать фоновые знания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в ситуациях опосредованного 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го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общения (Митрофанова и Костомаров, 1990: 15-20; Азимов и Щукин, 1999:140) (См. таблицу).

Обобщение знаний и умений, составляющих базу лингво- страноведческой компетенции, позволили определить *лингво- страноведческую* компетенцию как знание лексических единиц с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м компонентом семантики, а также умение определять лексику с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м компонентом, толковать ее содержание, использовать фоновые знания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в ситуациях опосредованного 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го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общения.

Считаем необходимым включить в данное определение не только знание лексических единиц с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м компонентом

семантики, но и умение выделять языковые (слово) и речевые (текст) единицы с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м компонентом, умение адекватно их воспринимать, понимать и воспроизводить в речи.

В настоящей работе за основу принимаются лингвострановедческий подход как наи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й в методическом плане при работе с фразеологизмами, пословицами и поговорками.

Структура лингвострановедческой компетенции представлена в таблице:

табл. 1. Структура лингвострановедческой компетенции

	Описание лингвострановедческой компетенции	Содержание лингвострановедческой компетенции
знания	* Знания об истории, географии, культуре страны, усвоенные в процессе изуче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 сведения о культуре страны находятся прежде всего в лексике с НКС (применительно к настоящему исследованию – в текстах МЖРФ); * фоновые знания; * коннотативные реалии; * сравнение лексики с НКС русского и родного языков.	* Наличие лексики с НКС; * Способы нахождения: - тексты (пословицы, поговорки); - выбор из текста (пословицы, поговорки); * толкование; * понимание (фразеологизмы) * употребление (пословицы и поговорки).
	Примеры описания и содержания лингвострановедческой компетенции на материале МЖРФ	
	* <u>история</u>: <i>Вот тебе, бабушка, и Юрьев день;</i> * <u>география</u>: <i>Ехал Ваня из Казани, // Продавал муку пудами...; Наши Полкан из Байкала лакал. В Москве – москвичи, // Во Пскове – псковичи, // В Костроме – костромичи;</i> * <u>о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е</u>: <i>Не все коту масленица-будет и Великий пост.;</i> * <u>фоновые знания</u>: <i>Седьмая вода на киселе;</i> <u>Лексика с НКС</u>:	

	<i>Хороша хваленая хохлома;</i> <i>Щи да квас для тебя у нас;</i> <i>Где кисель – тут и сел. Где пирог – тут и лег.</i> <i>Где блины – тут и мы. Где щи с мясом – тут и место наше.</i> <u>Коннотативные реалии:</u> <i>Поп на дороге – недобрая встреча. Поп праведно живёт: с нищего дерёт, да на церковь кладёт.</i> <i>- Фома, у тебя в избе тепло?</i> <i>- Тепло! На печи в шубе терпеть можно.</i>	
	Описание лингвострановедческой компетенции	Содержание лингвострановедческой компетенции
умения	* умение извлекать лексические единицы с НКС из речи (умение толковать данные единицы); * умение адекватно применять лексические единицы с НКС в ситуациях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общения; * умение использовать фоновые знания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в ситуациях опосредованного 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го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общения.	* наличие лексики с НКС; * наличие единиц, для адекватного понимания которых необходимы фоновые знания.
	Примеры описания и содержания лингвострановедческой компетенции на материале МЖРФ	
	<u>Умение</u> придумать небольшой рассказ, который можно закончить пословицей. Напр., <i>Двое пахут, а семеро руками машут. В лес идут, а на троих один топор с собой берут.</i> <u>Умение</u> составить рассказ по сюжету одного из предложенных фразеологизма или пословицы. <u>Умение</u> восстановить пословицу по ключевым словам, объяснить смысл пословицы, например, <i>Дело – потеха. Дело – безделье.</i> <u>Умение</u> выразить мысли пословицей, например:	

	1) Человек учился всю жизнь, а все без толку (без пользы для себя и других). 2) Ради знаний порой и сном надо жертвовать. <u>Умение</u> находить соответствие между иллюстрациями и фразеологизмами, пословицами и поговорками. <u>Умение</u> видеть во фразеологизмах, текстах пословиц и поговорок все лексико-грамматические явления, которые изучаются на занятиях по лексике и грамматике. В процессе выполнения заданий учащиеся узнают новые фразеологизмы, пословицы и поговорки пословица.
--	--

Формирование лингвострановедческой компетенции позволяет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и коммуникативную компетенцию в ситуациях межкультур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Во фразеологии запечатлен богат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опыт народа, его материальная и духовная культура. Благодаря своей экспрессивно-стилистической окраске и тому, что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е единицы (далее ФЕ) являются единицами более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обобщения, чем слово, обладают большей по сравнению со словом выразительностью и смысловой весомостью.

Фразеологизмы служат источником культуроведческой информации, стимулом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лингвострановедческой работы. Именно лингвострановедение, занимаясь изучением языка «с точки зрения его культураносной функции» (Верецагин и Костомаров, 1990:9), помогает учащимся овладеть знаниями для адекватного общения, чтения и письма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Знакомясь с фразеологизмами при овладении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иностранный учащийся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иобщается к новой для него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е.

В качестве одного из компонентов, включаемых в содержание понятия «национальная культура», могу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ФЕ.

В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е в качестве дидактического материала выступают фразеологизмы¹⁾, отобранные на основе принципа минимизации и учебной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и. Фразеологизмы – это благодатный материал,

1) Пословицы и поговорки, вслед за Н. М. Шанским,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автором и в составе фразеологии.

который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 занятиях по различным дисциплинам: при обучении лексике, грамматике. ФЕ отличаются образностью и выразительностью. В рассматриваемых ФЕ выделяются безэквивалентные и фоновые слова, которые могут быть сгруппированы по тематическому принципу, что позволя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их на занятиях по разговорной практике при изучении различных тем.

Анализ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как иностранному показал, что в ней имеются неиспользованные резервы для включения ФЕ в учебный процесс. Лингвострановедческая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обучения РКИ позволяет, используя еще нереализованные ресурсы, заложенные в программном материале, без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затрат учебного времени расширить объем культурной памяти, лексический запас иностранных учащихся и их знания о русском языке.

III. Фразеологизмы, пословицы и поговорки как предмет изучения на занятиях по РКИ

При лингвострановедческом подходе к обучению иностранному языку, который получил широк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 методике преподавания РКИ, язык невозможно изучать в отрыве от экстра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проблем и, прежде всего, от культуры того общества, которое говорит на данном языке. Успешное овладение иностранным языком будет зависеть от того, как будет усваиваться информация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го характера.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знание типичных для говорящих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оценок, связанных с определенными названиями, именами героев литературы и фольклора. Новые требования к обучению иностранным языкам диктую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оиска новой *дидактической единицы обучения*. Единица обучения – одно из основных понятий, которое требует дидактического воплощения в отборе языкового материала. В качестве единицы

обучения иностранным языкам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 предложение, высказывание, текст (Азимов и Щукин, 1999:77).

В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е предметом лингвометодического анализа и единицей обучения являются фразеологизмы.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необходимым рассмотреть понятийный аппарат, разработанный учеными, исследующими фразеологию и малые жанры фольклора (в рамках настояще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 пословицы и поговорки), с целью создания понятийного аппарата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учащихся.²⁾

В. Я. Пропп отмечал, что «ни одна гуманитарная наука – ни этнография, ни история, ни лингвистика, ни история литературы не могут обходиться без фольклорных материалов и изысканий. <...> Разгадка многих и очень разнообразных явлений духовной культуры кроется в фольклоре» (Пропп, 1976:16).

Фольклор –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коллективная творче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рода, отражающая его жизнь, воззрения, идеалы (Кравцов, 1976:5).

Знакомство студентов-филологов с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фольклора целесообразно начать с предъявления им учебного текста о фольклоре.

Текст для предъявления студентам:

Фольклор – (от английских слов folk – народ, lore – мудрость).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коллективная творче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рода, отражающая его жизнь, воззрения, идеалы.

Впервые термин «фольклор» был введен в науку в 1846 году английским ученым Вильямом Томсом. Термин стал употребляться в различных странах как международный, но с разными смысловыми оттенками (как «народная мудрость», поэтическое творчество народа, краеведение, этнография и т. д.), этим термином обозначают все народное творчество, в котором слиты традиционные формы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слова, действия, музыки и танца. В русской науке термин «фольклор» употребляется для обозначения народного поэтиче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а для обозначения, например, народной музыки или народной

2) Справочные материалы для студентов будут приведены в следующей части статьи.

хореографии используются термины «музыкальный фольклор», «танцевальный фольклор» и т. д.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этому пониманию термина «фольклор» наука, его изучающая получила название фольклористики (Кравцов, 1976:5).

Особое место среди разнообраз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устного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занимают малые жанры русского фольклора (далее МЖРФ). При всем различии их сближают краткость и устойчивость формы, удивительная емкость содержания, метафорический принцип построения образов, ритмический строй, древность происхождения (Мартынова и Митрофанова, 1986). К малым жанрам фольклора относятся произведения, различающиеся по жанров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но имеющие общий внешний признак – небольшой объем. Малые жанры фольклорной прозы, или паремии (от греч. *paroimia* – “притча”), очень разнообразны: пословицы, поговорки, приметы, загадки, прибаутки, присловья, скороговорки, каламбуры, благопожелания, проклятия и проч. (Зуева и Кирдан, 1998).

Понятие «малые жанры русского фольклора» является многогранным, объемным и насыщенным по содержанию. В учебных целях,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инципами минимизации материала и учебной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и его рассмотрения, из всего перечня МЖРФ в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е отобраны пословицы и поговорки.³⁾

III. 1 Пословицы и поговорки: структурная и содержательная характеристика⁴⁾

Определение жанра. В методической и справочной литературе существует множество определений понятия пословица и поговорка. Приведем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3) Упражнения с фразеологизмами, пословицами и поговорками будут приведены в следующей части статьи.

4) Ввиду того, что пословицы и поговорки представлены в учебной литературе, они описываются по усеченной схеме.

I. *Пословица* – краткое народное изречение с назидательным содержанием, народный афоризм.

Поговорка – краткое устойчивое выражение,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образное, не составляющее, в отличие от пословицы, законченного высказывания (Ожегов и Шведова, 1992:546, 585).

II. *Пословица* – краткое, устойчивое в речевом обиходе, ритмически организованное образное изречение, обладающее способностью к многозначному употреблению в речи по принципу аналогии. Пословицы обобщают социаль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и житейски-бытовой опыт народа. Обладают такими признаками, как поучительность, категоричность утверждения или отрицания.

Поговорка – общепринятое образное выражение, существующее в речи для эмоциональных оценок и применяющееся по принципу аналогии к ряду жизненных явлений: выражение досады; выражение неодобрения или недоумения по поводу какой-либо внезапности – «свалился как снег на голову» (Аникин и Круглов, 1983:116, 129).

III. *Пословица* – краткое народное изречение, имеющее одновременно буквальный и переносный, образный план или только переносный план и составляющее в грамматическом отношении законченное предложение.

Поговорка – краткое народное изречение (нередко назидате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имеющее только буквальный план и в грамматическом отношении представляющее собой законченное предложение (Жуков, 2000:11).

Анализ определений пословицы и поговорки позволяет выделить общие черты этих жанров фольклора: *пословица* – краткое изречение, назидательное, применимо к различным сторонам жизни, употребляется в буквальном и переносном значении, или только в переносном значении, имеет форму законченн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высказывания). *Поговорка* – краткое выражение, образное, дает эмоционально-экспрессивную оценку жизненным явлениям, не составляет законченн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В настоящей работе под **пословицами** понимаются краткие народные изречения применительно к различным сторонам жизни, имеющие одновременно буквальный и переносный, образный план или только образный план и представляющие форму законченн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Под **поговорками** – краткие устойчивые выражения, имеющие только буквальный план и в грамматическом отношении не представляющие собой законченн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отметить, что четкого разграничения между пословицей и поговоркой никогда не существовало в паремиологической традиции: во всех сборниках пословицы и поговорки представлены вместе, что объясняется близостью этих понятий, а также сложностью и неразработанностью методики их практического разграничения.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в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е мы исходим из того, что хотя теоретически понятия пословица и поговорка разграничиваются, эти произведения объединяются в общий учебный блок.

Пословицы, несмотря на свою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неповторимость, тесно связаны с другими жанрами фольклора. Они нередко включались в сказки, песни, предания и загадки. Роднит пословицы с другими жанрами сходная тематика, особенно темы народного труда, бытовых отношений и т. п.

Классификация. В лингвометод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существует несколько типов классификации пословиц и поговорок, выделенных по различным основаниям. Важнейшими из них являются:

1. *Алфавитная классификация* требует размещения пословиц в алфавитном порядке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начальных букв первого слова. Так расположены пословицы и поговорки в большинстве старинных русских сборников и во многих современных изданиях. Достоинством алфавитной системы является ее простота. Однако при таком способе размещения варианты одной и той же пословицы, начинающихся с разных букв, попадают в разные места. Особенно неудобен этот способ для классификации переводных пословиц, ибо любое изречение можно

перевести так, что оно будет начинаться с какой угодно буквы.

2. *Классификация по опорным словам* подразумевает распределение пословиц по тем узловым словам, из которых данное изречение состоит. Так, пословицу *Куй железо, пока горячо* можно отнести в группу, объединяющую все изречения о кузнецах и ковке, в группу, которая говорит о железе (или других металлах), и в группу, посвященную всему горячему. Этот способ удобен для отыскания некоторых, уже известных пословиц, но плох тем, что при нем одинаковые по смыслу, но разные по лексическому составу изречения попадают в разные группы, а близкие по словам, но разные по смыслу – в одну.

3. *Тематическая классификация* предполагает распределение пословичных изречений по темам высказывания, т. е. по их содержанию. Так, пословица *Сапожник без сапог* будет входить в группу о жизни (труде) сапожников, шире – ремесленников, еще шире – трудящихся вообще. Тематической классификации придерживался В. И. Даль и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паремиологов. Тематическая классификация позволяет отвлечься от многих необязательных (чисто внешних) элементов изречения и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более существенное в нем. Однако и эта система не лишена недостатков. Во-первых, большинство пословиц употребляются в переносном значении, т. е. отличаются многотемностью, и потому не могут быть включены в одну узкую тему. Во-вторых, все предметно-тематические классы, предлагаемые паремиологами, взаимно перекрещиваются и потому не дают однозначного решения. В-третьих, сама разбивка на тематические группы весьма произвольна и каждым исследователем и составителем сборника решается по-своему (Пермяков, 2000:10-11).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принимается *тематический принцип* классификации, несмотря на его недостатки, так как в практике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иностранного большая часть учебников и учебных пособий построена по тематическому принципу.

III.2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е единицы

В современны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по русской фразеологии, в целом, существует согласие относительно того, что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е единицы* –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идиомы, основным признаком которых является полное переосмысление семантики составляющих 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единиц: семантика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ой единицы невыводима из значений составляющих ее слов. Эти единицы устойчивы по составу, воспроизводимы и обладают собственной номинативной функцией. Именно в них наиболее ярко отражается специфика языка, его самобытность. Для большинства фразеологизмов характерен строго закрепленный порядок слов. Например, нельзя переставить компоненты в фразеологизмах *все течет, все изменяется, ни свет ни заря; кровь с молоком* и др. В то же время фразеологизмы глагольного типа, т. е. состоящие из глагола и зависящих от него слов, допускают перестановку компонентов: *набрать в рот воды – в рот воды набрать; не оставить камня на камне - камня на камне не оставить*.

В российском языкознании существуют два подхода к определению фразеологизма: «узкий» и «широкий». Понятие фразеологии в узком и широком смысле введено в середине 50-ых гг. XX века. С. И. Ожеговым (Ожегов, 1957:35).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широкого подхода являются следующие ученые: Н. Ф. Алефиренко, В. М. Мокиенко, В. Н. Телия, В. В. Виноградов, Н. М. Шанский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Под фразеологизмами в широком смысле подразумеваются все сочетания с образным, эмоциональным и оценочным значением – это пословицы, поговорки, афоризмы, крылатые выражения, цитаты из литератур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прозаических и поэтиче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узкого подхода являются ученые: В. П. Жуков, А. В. Жуков, А. М. Бабкин, В. М. Огольцев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Ученые данного подхода относят к фразеологизмам только сверхсловные единицы, которые подверглись семантическим трансформациям. Это собственно сами фразеологизмы. А. В. Жуков в своём

пособии «Русская фразеология» (1986) даёт следующее определение фразеологизма: «фразеологизм – это воспроизводимый в речи оборот, построенный по образцу сочинительных или подчинительных (непредикативного или предикативного характера), обладающий целостным значением и сочетающийся со словом» (Жуков, 1986:6). Это понимание фразеологизма берет за основу В. В. Виноградов, который наряду с воспроизводимостью фразеологизма в готовом виде отмечал и его не менее значимый признак – целостность значения.

Ученый выделял следующие типы фразеологизмов:

1.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е сращения (спустя рукава, ни в зуб ногой и т. п.);
2.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е единства (сидеть на мели, стреляный воробей и т. п.);
3.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е сочетания (оказывать помощь, поле деятельности и т. п.) (Виноградов, 1977:121, 128, 13).

Н. М. Шанский добавил к данной классификации четвертый тип –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е выражения, к которым относятся пословицы, поговорки, крылатые фразы. По мнению ученого,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е выражения» – это «устойчивые в своем составе и употреблении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е обороты, которые не только являются семантически членимыми, но и состоят целиком из слов со свободными значениями» (Шанский, 1996:69-70). Отличительной особенностью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х выражений от свободных сочетаний ученый называет то, что они «воспроизводятся говорящим как готовые единицы с постоянным значением и составом» (Шанский, 1996:69-70).

В данной работе авторы придерживаются *широкого подхода* к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ой единице. В качестве базового определения принимается следующее: «Фразеологизмы (от греч. *frasis* – ‘выражение’ и *logos* – ‘учение; учение о выражениях’) – устойчивые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или предложения), воспроизводимые в потоке речи как одна языковая

единица и представляющая собой смысловое и структурное единство» (Самотик, 2022:411).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анной позицией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собственно фразеологизмы, а также пословицы и поговорки.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й корпус языка – сокровищница сведений о культуре и менталитете народа. Во фразеологизмах сконцентрированы и закреплены представления народа о мифах, обычаях, обрядах, традициях, ритуалах, привычках, морали, поведении, а также стереотипы и социально-исторические факты. В. Н. Телия пишет, что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й состав языка – это «зеркало, в котором лингвокультурная общность идентифицирует своё национальное самосознание» (Цит. из Маслова, 2001:82).

Но, вместе с тем, именно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е единицы вызывают наибольшие трудности у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так как фразеология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один из наиболее сложных для усвоения уровней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Ткаченко, 1998: 60). Основные ошибки употребления фразеологизмов в речи иностранцев связаны с несколькими причинами:

1) Особенности формы фразеологизма.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ая единица, как правило, имеет устойчивый компонентный состав, поэтому не допускает замены одного компонента на другой. В абсолютном большинстве фразеологизмов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нельзя заменять компоненты, так как изменение компонентного состава приведет к их разрушению: *закручивать гайки, умыть руки, приходить в голову (кому)* и т. д. Часто допускаются ошибки в употреблении таких фразеологизмов, как *играть роль (в чем), иметь значение (для кого), играть первую скрипку (в чем), пока суд да дело*.

2) Незнание значения фразеологизма.

Часто фразеологизм понимается в прямом значении, что является ошибкой. Нужно помнить, что названные единицы всегда имеют **переносное значение**. Так, фразеологизм *тяжелая артиллерия* обозначает медлительного, неповоротливого человека, единица *отдать концы* имеет

значение «умереть».

3) *Незнание особенностей значения фразеологизмов.*

Большинство фразеологизмов обладает ярко выраженной эмоциональностью, оценочностью, экспрессивностью. Такие фразеологизмы, как *ветер в карманах гуляет, руки не доходят* (до кого, чего), *затыкать рот* (кому) принадлежат к разговорному стилю и не могут употребляться в деловой или научной речи. Другие фразеологизмы, например, *принимать решение, одержать победу (над кем), прийти к выводу (о чем)* принадлежат к книжному стилю. Ошибки в употреблении фразеологизма зачастую связаны с незнанием его сочетаемости с другими лексемами. Так, единица *ахиллесова пята* в значении «слабая сторона кого, чего» может употребляться только в форме единственного числа и сочетаться с одушевленными и неодушевленными именами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ми (*ахиллесова пята –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хоккея, педагогов*).

Необходимо подчеркнуть воспитательную ценность ФЕ. Так, конечной целью пословиц всегда было воспитание, они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выступали как педагог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пословицы содержат педагогическую идею, с другой – оказывают воспитательное воздействие, выполняют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функции: повествуют о средствах, методах воспитательного влия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представлениям народа, дают характерологические оценки личности – положительные и отрицательные, которые, определяя так или иначе цели формирования личности, содержат призыв к воспитанию, самовоспитанию и перевоспитанию, осуждают взрослых, пренебрегающих своими священными обязанностями – педагогическими и т. д. В пословицах содержится материал практического характера: житейские советы, пожелания в труде и др., например: *Учи сына, когда поперек лавки лежит, вдоль вытянется – трудно будет. Водила за ручку – получила белоручку. Пока сын мал, будь ему воспитателем;*

когда он вырастет - братом.

А. П. Усова (1972), Г. Клименко (1983), Н. Орлова (1984) отмечают, что пословицы содержат некоторые правила поведения, моральные нормы, с их помощью можно остановить хвастуна, насмешника; дать меткую характеристику человеку или его деятельности, эмоционально выразить поощрение, деликатно высказать порицание, осудить неверное или грубое действие. Они являются помощниками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нравственных качеств, и, прежде всего, трудолюбия и дружеского отношения друг к другу.

IV. Заключение

В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е рассмотрены фразеологизмы и возможности их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 процессе обучения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как иностранному. В рамках лингвострановедческого подхода к обучению РКИ является целесообразным введение в учебный процесс в качестве единицы обучения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е единицы. Эти тексты обладают культурным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 потенциалом и являются источником лингвострановедческой информаци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фразеологизмов на урок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иностранного даё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подавателю в непринужденной форме:

- расширить активный и пассивный лексический запас обучаемых;
- расширить фоновые знания обучаемых;
-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роникновению в глубинные сло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ыражающие особенности мировидения русского человек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изучение русской фразеологии и русского фольклора позволит иностранным студентам расширить свои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русском языке, овладеть навыками правильного употребления фразеологизмов в речи, лучше понять историю и культуру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참고문헌

1. Азимов Э. Г. и Шукин А. Н. *Словарь методических терминов (теория и практика преподавания языков)*, СПб.: Златоуст, 1999.
2. Аникин В. П. и Круглов Ю. Г. *Русское народное поэтическое творчество*, Л.: Просвещение, 1983.
3. Байденко В. И. *Компетенции: к освоению компетентностного подхода: Лекция в слайдах: автор, Версия*, М.: Исследоват. центр проблем качества подготовки специалистов, 2004.
4. Верещагин Е. М. и Костомаров В. Г.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Лингвострановедение в преподавани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иностранного. 3-е изд., перераб. и доп.*, М.: Русский язык, 1983.
5. _____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Изд.4-е, доп.*, М.: Русский язык, 1990.
6. Виноградов В. В. “Об основных типах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х единиц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Лексикология и лексикография*, М.: Наука, 1977.
7. Воробьев В. В. “О статусе лингвокультурологии”, *IX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гресс МАПРЯЛ. Русский язык, литература и культура на рубеже веков. Т. 2*, Братислава, 1999.
8. Воробьева Е.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направленное формирование лингвострановедческой компетенции учителя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Немецкое отделение, 4-5 курсы”, дисс. ... канд. пед. наук, СПб., 1999.
9. Елизарова Г. В. *Культура и обучение иностранным языкам*, СПб.: Изд-во РГПУ им. А.И. Герцена, 2004.
10. _____ “Формирование межкультурной компетенции студентов в процессе обучения иноязычному общению”, дисс. ... д-р пед. наук, СПб., 2001.
11. Жуков В. П. *Словарь русских пословиц и поговорок*, М.: Русский язык, 2000.
12. _____ *Русская фразеология*, М.: Высшая школа, 1986.

13. _____ *Русская фразеология,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М.: Высшая школа, 2006.
14. Зимняя И. А. “Ключевые компетенции – новая парадигма результата образования”,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сегодня* 5, 2003.
15. Клименко Г. “Использование пословиц и поговорок в работе с детьми”, *Дошкольное воспитание* 5, 1983.
16. Кошарная С. А. *В зеркале лексикона: введение в лингвокультурологию*, Белгород: Изд-во Белгор. гос. ун-та, 1999.
17. Кравцов Н. И. и Лазутин С. Г. *Русское устное народное творчество*, М.: Высшая школа, 1983.
18. Маслова В. А. *Введение в лингвокультурологию*, М.: Наследие, 1997.
19. _____ *Лингвокультурология*, М.: Academia, 2001.
20. Митрофанова О. Д., Костомаров В. Г. и др. *Методика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иностранного*, М.: Русский язык, 1990.
21. Огольцев В. М. *Устойчивые сравне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СПб.: Отд-ние изд-ва «Просвещение», 1992.
22. Ожегов С. И. “О структуре фразеологии (в связи с проектом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ого словар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Лексикографический бюллетень* 2, 1957.
23. Ожегов С. И. и Шведова Н. Ю.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Азъ Ltd., 1992.
24. Орлова Н. “Использование пословиц и поговорок в работе с детьми”, *Дошкольное воспитание* 4, 1984.
25. Пермяков Г. Л. *Пословицы и поговорки народов Востока. Систематизированное собрание изречений двухсот народов*, М.: Лабиринт, 2000.
26. Пропп В. Я. *Фольклор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 Избранные статьи*, М.: Наука, 1976.
27. Самотик, Л. Г. *Лексика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М.: ФЛИНТА, 2022.
28. Сафонова В. В. *Изучение языков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бщения в контексте диалога культур*, Воронеж: Истоки, 1996.

29. Сурыгин А. И. *Основы теории обучения на неродном для учащихся языке*, СПб.: Златоуст, 2000.
30. Ткаченко Н. Г. “К вопросу о русской фразеологии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и методический аспекты)”, *Язык. Сознание. Коммуникация: Сб. научных статей* 6, 1998.
31. Усова А. П. *Русское народное творчество в детском саду*, М.: Просвещение, 1972.
32. Халеева И. И. *Основы теории обучения пониманию иноязычной речи*, М.: Высшая школа., 1989.
33. Харченкова Л. И. “Этнокультурные и социолингвистические факторы в обучении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как иностранному”, дисс. ... д-ра пед. наук, СПб., 1997.
34. Шанский, Н. М. *Фразеолог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СПб.: Специаль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96.
35. Щукин А. Н. *Обучение иностранным языкам: Теория и практика*, М.: Филоматис, 2007.

Abstract

**Phraseological Units as Didactic Material in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 Classes**

Spiridonova, O. S.
(Anyang University)
Khrabrova, O. S.
(Yonsei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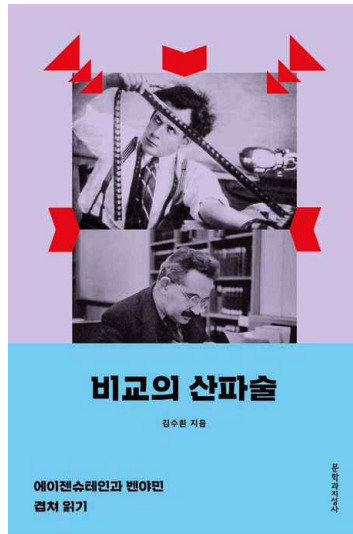
This article explores the use of phraseological units in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 classes to broaden students' understanding of Russian national culture as reflected in the language, as well as to enable them to understand the deeper layers of Russian linguistic and speech culture.

The article defines concepts such as competence, competency,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It also provides definitions of linguacultural, intercultural, regional, and linguistic-cultural competencies, which are part of the communicative competencies.

Within the framework of a linguistic-cultural approach to teaching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 it is advisable to introduce phraseological expressions into the educational process as a unit of instruction. Phraseological units possess cultural and educational potential and are a source of linguistic-cultural information.

Key words : Phraseological Units, Proverbs, Sayings, Competencies, Culture, Background Knowledge

“겹쳐 읽기”의 즐거움과 현기증:
『비교의 산파술』 서평
(저자: 김수환, 문학과지성사, 2025)



윤 영 순*

만남은 설레는 단어다. 특히 그것이 천재들의 만남이라면 더욱 그렇다. 고대 그리스나 르네상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러시아에서도 장르를 초월한 천재들의 만남은 드물지 않았다. 도스토옙스키의 추도식에서 피아노로 러시아 정교회 종소리 레퀴엠을 연주한 무소르그스키라던가, 체홉과 라흐마니노프가 처음 만나 밤새 ‘아브라우 듀르쇼’를 마셨다던가, 음악가가 되고 싶었던 소년 파스테르나크에게 글을 쓰라고 조언했던 스크랴빈이라던가, 서로 다른 영역의 범접하기 어려운 천재들의 스침은 늘 흥

*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ysyoon@knu.ac.kr

미로웠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런 ‘물리적’ 만남에 대해 수다를 떨고 싶었던 나는 벤야민과 에이젠슈테인의 만남을 다루는 이 책을 비교적 편안하게 집어 들었다. 그런데 책을 읽는 동안 실제로 만난 적 없던 두 천재를 한 권의 책에서 조우할 수 있도록 기획한 저자의 세심한 조산술에 경탄하면서도, 점점 확장되는 ‘만남’의 범주와 그를 통해 파생되는 수많은 질문으로 즐거운 ‘현기증’을 경험해야만 했다.

독일의 문학 및 문화이론가, 그리고 소련의 영화감독이자 이론가였던 두 사람은 각각의 영역에서 범접할 수 없는 성공을 거둔 이들이다. 최근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세상을 바꿀 놀라운 기술 변화를 함께 경험하고, 전체주의 체제를 살아가면서 그 본질을 치열하게 탐구한 천재들이다. 기존 예술의 관념을 뒤집은 복제 기술이 가져온 새로운 장르인 사진과 영화에 관한 공통의 관심에 주목하고 이들의 지적 유산을 필자의 표현처럼 ‘겹쳐’ 읽는 것은 그야말로 흥미로운 체험이었다. 급변하던 세계에서 자신들이 속한 나라와 예술의 경계를 넘어, 그 ‘너머’를 사유하던 그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포착하고 그것을 읽어내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자꾸 다른 이름들이 투입됐다. 두 천재의 삶의 궤적과 글을 교차시키는 저자의 ‘산파술’이 놀랄 정도로 과감해서 또 다른 상상력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1세기 전,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도래했다. 제2차 산업혁명의 달콤한 열매를 채 누리기도 전에 새로운 기술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대량 학살의 도구가 되었다. “달력이 아니라 진짜 20세기”는 1914년에 시작되었다는 아흐마토바의 저 유명한 시구절은 ‘폭력’과 ‘극단’의 시대로서 지난 세기가 지닌 비극의 성격을 증언한다. 전쟁과 혁명, 파시즘과 전체주의, 기계화와 물신숭배로 점철된 20세기 전반기는 가장 끔찍한 이름들을 역사에 남겼다. 서로 적으로 만났지만, 작가 그로스만의 표현대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쌍둥이처럼 닮은 히틀러와 스탈린은 20세기를 파국과 대량 학살의 시대로 만든 장본인이었다. 하지만 인류가, 또는 인간이라는 종이 절망적이지 않은 않았음을 그들과 동시대를 살아낸 여러 천재의 삶과 창작이 보여주고 있다. 그 중 히틀러의 나라가 낳은 벤야민과 스탈린이 사랑한 영화감독 에이젠슈테인이 남긴 유산은 극단의 시대가 인류에게 남긴 희망의 기호로 읽을 수 있다.

아마도 개별 논문으로 집필되었을 이 책의 각 장은, 그럼에도 꽤 유기적

으로 연결되어 있다. ‘유리 집’의 계보학을 다룬 1장은 19세기 중반부터 유럽 지식인들이 천착해 온 기술 발전과 유토피아에 대한 저 유명한 수정궁의 이야기를 영화와 건축, 문학과 철학적 사유들을 통해 펼쳐놓는다. 에이젠슈테인의 실현되지 못한 프로젝트 중 하나에서 출발한 ‘유리집’의 러시아적 계보는 체르니셴스키와 도스토옙스키 소설 속 수정궁의 이미지에서 시작하여 보그다노프의 『붉은 별』에 나오는 ‘푸른 유리’ 지붕과 자마틴이 창조한 단일제국의 ‘유리의 벽’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문학과 역사의 유토피아, 또는 반(反)유토피아적 전통 속에서 이어지고 확장된다.

같은 시대, 벤야민이 언급한 세어바르트의 유리와 바우하우스의 강철에서 출발한 저자는 세어하우스의 유리 유토피아를 건축에서 실현한 타우트의 프로젝트, 그리고 바우하우스의 초대 교장 그로피우스와 교수로 일했던 칸딘스키까지 유리집의 연결고리를 확장해 나간다. 유럽과 러시아의 작가와 건축가, 영화감독까지 매혹되었던 유리집은 그 투명함과 아름다움에 내재한 유토피아적 이상과 함께 사적인 삶이 불가능한 감시 체제의 도구라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상징으로 표상되었다. 역사의 끝, 현실 유토피아와 그 이후를 꿈꾸던 100년 전 예술가들이 ‘유리집’에 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 에이젠슈테인의 실현되지 못한, 또는 실현될 수 없었던 유리집 프로젝트와 벤야민의 사유를 연결 짓는 과정에서 불쑥불쑥 등장하는 20세기 예술가들의 ‘텍스트 더미’는 저자가 인용한 알렉산더 클루게의 ‘상상의 채석장’으로서 독자들에게 아찔한 현기증을 불러일으킨다.

‘유리집’의 상상력이 역사의 시작과 끝으로서 유토피아라는 시공간과 연결되어 있다면 2장의 디즈니와 미키마우스는 1930년대와 40년대 다시 사유할 수밖에 없던 인간 존재, 또는 인류를 그 출발점과 먼 미래라는 양극단에서 이야기한다. 인간, 남성, 여성, 동물, 기계 이 모든 개념을 포괄할 수 있고,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존재로서의 미키마우스와 모든 것이 가능한 만화 속 세계는 20세기 인간이 꿈꾸었던 포스트 시대와 ‘포스트휴먼’이기도 했고, 원형의 태고와 ‘존재의 물질’이기도 했을 것이다.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20세기 세계 풍경 속에서 “왜소하고 부서지기 쉬운 인간의 몸뚱이”에 대비되는 형상으로서 벤야민이 정의한 절단되고 늘어나는 미키마우스의 파괴적-해체적 형상은 인간의 연약함과 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포괄하는 존재다.

저자는 이와 같은 벤야민의 관찰을 만화 속 캐릭터들의 변신 가능성, 그리고 세계를 마음껏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에 주목한 에이젠슈테인의 ‘디즈니’ 원고와 ‘겹쳐’ 읽는다. 여기에 더해 벤야민의 파괴적 자유와 에이젠슈테인이 언급하는 플라스마적 자유가 어떻게 다른 지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현재의 파괴가 전제된 미래 포스트휴먼의 예시로서 미키마우스를 바라본 벤야민과 달리 에이젠슈테인은 여기서 태고의 원형질로 퇴행하는, 전(前) 인간적 존재를 찾아낸다. 하지만 독자로서 내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자가 에이젠슈테인의 ‘디즈니’ 글쓰기 작업을 관통하는 일종의 몽타주적 ‘자유’에 대한 열망을 읽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전형적 인물과 독백의 언어가 지배했던 시절, 모든 시공간, 인간과 동물, 젠더의 경계를 이월하는 디즈니 만화 속 주인공은 절망을 넘어선 희망의 기호이기도 했을 테니 말이다.

2장이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미키마우스라는 다분히 당대로서 새로웠던 매체와 캐릭터를 다루고 있다면 3장은 벤야민과 에이젠슈테인만큼이나 흥미로웠던 한 개인, 채플린에게 주목한다. 채플린에 대한 두 사람의 고찰은 ‘웃음’의 본질에 대한 아주 오랜 논쟁을 상기시킨다. 벤야민의 채플린 논문을 인용하면서 저자는 채플린의 웃음에 대한 아도르노와 벤야민의 논쟁을 소환한다. 이렇게 채플린 현상 ‘겹쳐 읽기’ 과정은 벤야민과 아도르노, 에이젠슈테인에게로 확장된다. 웃음, 미메시스, 유아적 본질, 그리하여 유년기를 통한 인간과 예술적 창작 본질의 문제로까지 깊어지는 채플린학(學)은 거대한 변혁의 시대 인간 존재의 문제를 예술과 철학에서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책의 4장과 5장은 얼핏 보면 3장까지의 ‘겹쳐 읽기’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1930년대 유성 영화의 등장과 소비에트 영화 산업의 변화(또는 몰락), 그리고 마르크스의 『자본』을 영상으로 옮기려 했던 에이젠슈테인의 야심만만한 기획은 기술, 혁명, 자본주의, 인간, 매체 등을 다루는 앞의 문제의식과 연장선상에서 읽을 수밖에 없다. 만약 실현되었다면 영화사의 혁명이 되었을 미완의 프로젝트 『자본』은 저자의 전작 저서의 제목처럼 “책에 따라 살기”에 충실한 러시아인 특유의 “불가능을 현실에 가능케 하는” 일종의 유토피아적 기획으로 읽힌다.

이처럼 인류사의 가장 극적 시공간을 살았던 두 사람의 시대와 문화 예술에 대한 성찰은 그 자체로도 흥미롭지만, 그들 텍스트와 작품 여기저기에 흩어진 생각의 파편들을 모으며 때로 교차하고 때로는 비껴가는 시선을 뒤쫓는 저자의 ‘겹쳐 읽기’ 과정을 관찰하는 즐거움도 쏙쏙했다. 거기에 독자로서의 과제는 아마도 발굴된 그 ‘상상의 채석장’에서 우리 시대를 읽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리라. 전쟁과 혁명, 기술 발전과 자본주의, 독재와 살육의 역사가 지배했던 시대를 살아낸, 단순히 살아낸 것이 아니라, 위대한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 창조성의 본질을 파고들었던 두 천재의 상상력과 그 상상력이 향한 지점을 ‘겹쳐’ 읽는 ‘비교의 산파술’이 여전히 유효한 것은 어찌면 그들이 염려하고 우려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아니 더욱 예민하고 복잡해진 시공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규정

제정 2016. 11. 3. 규정 제206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러시아와 유라시아 지역 사회와 문화 연구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한국과 해당 지역의 발전적 미래를 모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러시아·유라시아 지역 문화와 사회 전반에 관한 연구와 조사활동
2. 연구 자료의 수집, 분석 및 정리
3.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세미나 및 공개강연회의 개최
4. 연구논문집 및 연구자료집의 간행
5. 학술도서의 번역 및 출판
6. 국제적인 학술교류
7. 특수연구 계획에 대한 연구비 보조
8.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를 위원회를 둔다.

제4조(구성)

-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과 부소장 1인을 둔다.

- ②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부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직무는 소장을 보좌한다.
- ④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소장과 부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연구원 등)

- ①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겸임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 ③ 박사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④ 전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⑤ 객원연구원은 국내외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⑥ 보조연구원은 연구소 사업에 참여하는 석사,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및 회의)

-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및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
2. 예산 및 결산
3. 규정의 개정
4.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학술위원회

제8조(구성 및 회의)

- ① 연구소의 학술 관련 기획 및 국내외 교류를 담당하기 위해 학술위원회를 둔다.
- ② 학술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및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학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심의사항) 학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내외 학술 네트워크 구축
2. 출판, 저술 지원, 학술대회 개최
3. 교과목 관련 사항
4. 기타 연구소 학술활동과 관련된 사항

제5장 편집위원회

제10조(구성 및 회의)

- ① 연구소 정기 학술지의 기획, 편집,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편집간사로 구성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본교 및 타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 ④ 편집간사는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연구자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 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편집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편집위원회의 독립성은 보장되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6장 재정

제11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학교보조금, 각종연구비,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제7장 보칙

제13조(운영세칙)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규정 제206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년 1월 26일 개정 및 보완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편집규정

제정 2019. 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의 학술지인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의 편집 및 논문의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게재내용)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논문
2. 비평논문, 논단
3. 서평, 서평논문
4. 기타 연구소의 연구 활동에 부합되는 글

제3조(학술지의 발행) 학술지의 간행은 연 2회로 한다. 발행일은 4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제4조(투고)

1. 다른 출판부에 이미 발표된 글은 본 학술지에 게재될 수 없다. 단 외국논문의 경우 원게재지를 명기하고 게재할 수 있다.
2. 투고논문의 세부 지침은 별도의 투고지침에 따르며 투고지침의 제·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5조(저자의 표시)

1. 저자의 영문이름과 소속을 명시한다.
2. 공동저자의 경우, 저자별 공헌도에 따라 나열하고 소속을 명시한다.

제6조(편집위원회)

1. 학술지의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7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편집위원은 국내외 전문연구자 중에서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임무)

1. 편집위원회는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형식·분야·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를 한다.
2. 2차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논문의 최종적인 게재여부를 편집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해당분야 전문 학자 3인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2.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비공개로 한다.
3.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사기준)

1. 각 심사위원들은 투고논문들에 대해 창의성, 완성도, 시의성, 투고 규정의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판정에 근거하여 최종 심사 결과를 필자들에게 통보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보고서를 300자 이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분류하여 판정한다. 4단계 심사 분류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게재 가	내용과 형식에 있어 논문의 필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단순 오타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정 후 게재	내용과 형식에 있어 논지전개에는 무리가 없으나 부분적인 재고나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해 이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견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수정사항을 요약하여 수정한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출한 논문과 수정사항서는 편집위원회가 검토·확인하여 게재한다.
수정 후 재심	논문의 기본방향과 논지전개에 무리가 있어 근본적인 재고나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이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호에 게재할 수 없으며, 재심은 다음 호로 이월되며 투고자는 이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음 호에 재투고된 수정 논문은 재심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 불가	논문의 내용과 형식이 학술논문의 기본적인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거나 본 학회지의 기본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5. 심사위원의 3인의 심사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아래 표를 따른다.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판정
가	가	가	게재 가
가	가	수정	수정 후 게재
가	가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수정	수정	불가	재심
불가	불가	가	게재 불가
불가	불가	불가	게재 불가
불가	불가	수정	게재 불가

제10조(판정)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사논문의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제11조(이의제기) 투고자는 논문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시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논문심사서, 이의제기문을 검토하고 재심할 수 있다.

제12조 판권 및 저작권 양도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에 발표되는 논문의 판권 및 디지털 정보 권한을 포함하는 모든 소유권은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가 갖는다.

제13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투고지침

제정 2019. 03

1.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투고지침은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편집 규정 제4조에 근거한다.
2. 투고에 관한 일반사항
 - 1) <한글97> 이상의 버전 또는 <MS Word 2003> 이상의 버전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 3) 투고는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ires-journal.or.kr) 또는 편집위원회 전자우편(iresknu@gmail.com)으로 논문 파일을 첨부하여 보낸다.
 - 4) 논문 작성 언어는 한국어나 영어 또는 러시아어로 한다.
 - 5) 투고 논문은 아래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 (1) 논문 제목
 - (2) 저자 이름
 - ① 저자의 소속과 전자우편 주소는 논문 1쪽에 * 각주로 표기한다.
 - ② 공동연구 논문일 경우 주저자를 제일 앞에 명기한다.
 - (3) 국문 초록(300자 내외)과 주제어(5-6개 내외)
 - (4) 본문
 - (5) 참고문헌
 - (6) 영문초록(200단어 내외)과 주제어(Key word, 5-6개 내외)
 - (7) 서평은 각주를 포함하여 원고지 30매 내외로 한다.
 - (8) 학술지 발행은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로 하며, 원고 마감일은 3월 31일과 9월 30일로 한다.
3. 원고작성 시 유의사항

1) 참고문헌: “MLA ” 양식을 따른다.(최근 8판)

(1) 참고문헌은 단행본→논문, 국내서→국외서(러시아→서구)순으로 배열하고, 알파벳순으로 작성한다.

(2) 국내서와 중국·일본 자료의 경우 단행본은 쌍꺼쇠(『』)로 표시하고, 논문과 편명의 경우는 홑꺼쇠(「」)로 표시한다.

러시아어 포함 서구자료의 경우, 단행본은 서명만 이탤릭 활자로 표시하고, 논문의 경우에는 겹따옴표(“ ”)로 표시한다. 석·박사 학위논문은 ‘논문’으로 간주다.

(3) 참고문헌 목록은 다음 예시에 따라 작성한다.

① 단행본

저자명(번역자명), 『서명』 판수, 출판지: 출판사, 발행연도.

예) 도스토예프스키(이대우 옮김), 『까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상)』, 열린책들, 2009.

Мальцев Ю. Бунин: 1870-1953, Посев, 1994.

② 논문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 발행기관, 발행년도.

예) 이강은, 「막심 고리키 초기 단편의 “당당한 인간 재고」,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44, 2013.

Емеренко И. “к вопросу о женском идеале в эстетике А. Чехова”, *Славянские языки в свете культуры*, М. 2006.

③ 인터넷(한글 논문일 경우 ‘Дата обращение’를 ‘검색일’로 변경)

예) «Корё Сарам» - записки о корейцах. URL:

<https://koryo-saram.ru/category/literature>.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2.10.2019.

2) 인용

(1) 사료(자료)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원문을 병기할 수 있다.

(2) 긴 인용문은 본문 위 아래로 한 줄을 띄우고 구분이 되도록 제시한다. 인용문의 글자크기는 본문보다 한 포인트 줄이고, 왼쪽 여백도 한 칸 들여쓰기로 한다.

- (3) 간단한 인용문을 문장 내에 인용할 경우 겹따옴표(“ ”) 로 처리한다.
겹따옴표(“ ”)로 묶여진 인용문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는다.
- (4) 인용문의 출처는 각주로 처리한다.
- (5) 직접인용은 쪽수만 명기하고, 간접인용은 반드시 ‘참조’를 붙인다. 재
인용의 경우는 출전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6) 본문 내 용어의 강조는 홑따옴표(‘ ’)를 사용한다.

3) 각주

- (1) 각주의 번호는 논문 전편을 통해 일련번호로 매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각주 문헌 표기의 순서와 부호는 참고문헌 규정 (1), (2)와 동일한 규
정을 적용한다.
- (3) 각주는 다음 예시에 따라 작성한다.

① 단행본

저자명(번역자명), 『서명』 판수 (출판지: 출판사, 발행연도), 쪽수.
예) 도스토예프스키(이대우 옮김), 『까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상)』
(열린책들, 2009), 237쪽.

Мальцев Ю. Бунин: 1870-1953 (Посев, 1994), С. 328.

② 논문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 (발행기관, 발행연도), 쪽수.
예) 이강은, 「막심 고리키 초기 단편의 “당당한 인간” 재고,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44 (2013), 217쪽.

Емеренко И. “к вопросу о женском идеале в эстетике А.
Чехова”, *Славянские языки в свете культуры* (М.,
2006), С. 323.

- ③ 각주를 달고자 하는 문장 뒤 [] 표시 안에 참고문헌 번호 및 쪽수
표시도 공히 허용한다.

예) [7, С. 26]

- ④ 인터넷(한글 논문일 경우 ‘дата обращения’를 ‘검색일’로 변경)

예) «Корё Сарам» - записки о корейцах. URL:

<https://koryo-saram.ru/category/literature>(дата обращения:
12.10.2019).

(4) 각주에서, 앞에서 언급한 동일한 자료를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생략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① 동양서

저자명, 앞의 논문(앞의 책), 발행연도, 쪽수

예) 도스토예프스키(이대우 옮김), 앞의 책, 2009, 237쪽.

② 서양서

Ibid, op, cit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표와 그림

표와 그림은 <표 1>, <표 2> ... <그림 1>, <그림 2>... 순으로 제시한다.

5) 본문의 글자모양과 문단모양은 다음과 같다.

(1) 편집 용지: 사용자 정의로 폭 168mm, 길이 240mm로 정의한다. 용지 여백은 위쪽 22mm, 아래쪽 20mm, 머리말 15mm, 꼬리말 0mm, 왼쪽 26mm, 오른쪽 26mm, 제본 0mm으로 한다.

(2) 본문과 요약문: 한국어는 대표-휴먼명조(크기 10, 장평 95%), 러시아어와 영어는 기호-Times New Roman(크기 10, 장평 100%), 줄 간격 165%, 들여쓰기 10pt.

(3) 인용문: 한국어는 대표-휴먼명조(크기 9.5, 장평 95%), 러시아어와 영어는 기호-Times New Roman(크기 9.5, 장평 100%), 줄 간격 140%, 좌우여백 26pt, 들여쓰기 10pt.

(4) 참고문헌: 한글은 대표-휴먼명조(크기 10, 장평 95%), 러시아어와 영어는 기호-Times New Roman(크기 10, 장평 100%), 줄 간격 165%.

(5) 각주: 한글은 대표-휴먼명조 (크기 9, 장평 100%), 러시아어와 영어는 기호-Times New Roman(크기 9, 장평 100%), 줄 간격 130%, 좌우여백 0pt, 첫 줄 내어쓰기 15pt. 각주 번호는 괄호(예:1), 2), 3)...)로 표시.

(6) 페이지 표시는 하지 않는다.

(7) 제목

논문제목: 한글은 대표-휴먼명조, 러시아어와 영어는 기호-Times New Roman, 크기 13, 장평 95%, 자간 0%, 중앙정렬

소제목: 한글은 대표-휴먼명조, 러시아어와 영어는 기호-Times New Roman, 크기 10, 장평 95%, 자간 0%, 중앙정렬

ТРЕБОВАНИЯ РЕДАКЦИИ / ФОРМАТ СТАТЬИ

1. Воз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корейский, английские и славянские языки для написания статьи.
2. Объем статьи более или менее 15 страниц по установленному формату.
3. Внизу первой страницы следует указать имя автора, место работы, адрес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ы (в примечании с знаком *)
4. При соавторстве следует указать имя первого автора, потом второго,... и. т. д.
5. Ссылка приводится внизу на каждой странице (не в конце статьи)
6. Статья должна быть набрана в программе 'MS-WORD'
- ① Шрифт: Times New Roman
- ② Размер шрифта в тексте 10, размер шрифта в цитате текста и в примечании 9.
- ③ См. экземпляр - формат статьи по требованиям редакции.
7. К статье должны быть предложены резюме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объем резюме до 1 страниц, куда входят название статьи и имя автора, и место работы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в скобках. См. экземпляр) и пять ключевых слов на англи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8. Статьи должны высланы в редакцию журнала института iresknu@gmail.com
9. Журнал издается 2 раза в год, 30-го апреля и 31-го октября.
Статьи принимаются в любое время. Однако следует иметь в виду, что 31-го марта и 30-го сентября заканчивается срок подачи статьи для выпуска журнала.

ЛИТЕРАТУРА

1. Вся литература, использованная в тексте статьи, должна быть приведена в списке в конце статьи.
2. Список литературы должны быть выстроены по алфавитному порядку имен авторов.
3. Список литературы составляется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автор, название литературы, издательство. год издания.

Например:

① Монография

Мальцев Ю. *Бунин: 1870-1953*, Посев, 1994.

② Журнал,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Емеренко И. “К вопросу о женском идеале в эстетике А. Чехова”, *Славянские языки в свете культуры*, М. 2006.

③ Интернет, Сайты.

«Корё Сарам» - записки о корейцах. URL:
<https://koryo-saram.ru/category/literature>.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2.10.2019.

④ Ссылки - (приводятся примечания внизу на каждой странице с
очередными номерами по арабской цифре)

- 1) Монография: Мальцев Ю. *Бунин: 1870-1953* (Посев, 1994), С.328.
- 2)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или журнал: Емеренко И. “к вопросу о женском идеале в эстетике А.Чехова”, *Славянские языки в свете культуры* (М., 2006), С.323.
- 3) Сайты в интернете: «Корё Сарам» - записки о корейцах. URL:
<https://koryo-saram.ru/category/literature>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2.10.2019).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칭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연구소 내의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거한다.

제4조 용어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함)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혹은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와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5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본 연구소 편집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4) 예비조사는 연구지원 부서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1. 예비조사 결과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편집위원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8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1. 본 조사는 연구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칭함)를 구성하여야 한다.
- 2.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3. 조사위원회가 제 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 1. 조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며,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및 임명한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 2.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

켜서는 아니 된다.

3.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 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칭함)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제출한다.
2.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4조 판정

1. 조사위원회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5조 결과에 대한 조치 및 기록의 공개

1. 부정행위가 확인된 논문에 대해서는 e저널을 포함하여 본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이를 본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는 한편, 해당 논문 투고자의 소속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도 통보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 투고자에 대해 부정행위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학술지 투고를 금지한다.
2.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1.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2018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제14호

인쇄일: 2025년 10월 28일

발행일: 2025년 10월 31일

발행인: 김민아

편집인: 이종현

발행처: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인쇄처: 도서출판 책과세계
